이투데이

프리미엄 석간 경제지
ECONOMY TODAY

etoday.co.kr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 ISSN 2383-6652

2015년 5월 14일 목요일 제1150호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투자 BanKIS®

대한민국 vs 론스타 "혈세 5조 걸렸다"

정부 첫 '투자자-국가 간 소송' 내일 美 워싱턴서 심리 개시

'외환銀 매각승인 지연' 최대 쟁점
소송 성립여부 등 법리공방 예고

혈세 5조원이 걸린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소송전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첫 심리를 시작으로 개시된다.

이번 소송전은 우리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벌이는 첫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인데다 5조원이라는 막대한 세금이 걸려 있는 만큼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세계은행(WB)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15일 오전 워싱턴에 있는 WB 본부에서 우리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법정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리를 개최한다. 오는 24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이번 심리는 소송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번 소송전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46억7900만 달러(약 5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2년 11월 21일 ICSID에 중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1차적 쟁점은 소송 성립 여부를 다루는 관할권 문제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자회사들을 통해 외환은행 등에 투자했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한국과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맺은 투자협정(BIT)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BIT를 근거로 국세청이 스타타워 빌딩과 하나금융 매각 수익 등에 부과한 8000억원대 세금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론스타의 자회사들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인 만큼 투자협정과는 무관하다고 맞서고 있다.

최대의 쟁점은 론스타가 손해배상의 가장 큰 이유로 지목한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문제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소송전에 론스타는 국내 로펌인 세종과 미국 대형 로펌인 시들리오스틴을, 우리 정부는 태평양과 미국 아널드앤드포터를 각각 법정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우리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6개 유관 정부부처 팀장급 실무자 10여 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워싱턴에 급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첫 심리에는 2007~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금융당국과 경제부처 수장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심리는 내달 29일부터 열흘간 열린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특정 국가에 투자했다가 해당국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기구 중재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최종 판정이 내려지기까지 1년이 소요된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포스코플랜텍 법정관리로 가나

포스코 이사회 '지원여부' 의결안건서 제외

포스코의 포스코플랜텍 지원 현황

- 2010년 3월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 1600억원에 인수
- 10월 799억원 유상증자
- 2012년 1월 567억원 유상증자
- 2013년 7월 성진지오텍-포스코플랜텍 합병
- 2014년 3월 717억원 유상증자
- 12월 2900억원 유상증자

포스코 이사회가 계열사인 포스코플랜텍의 지원 여부를 의결 안건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미루면서 포스코플랜텍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가능성은 커졌다. 14일 포스코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이사회에서는 포스코플랜텍과 관련한 사항을 의결 안건으로 다루지 않는다. 포스코 고위 관계자는 "포스코플랜텍과 관련해서는 실무자가 이사진에게 현황을 보고하는 안건만 오늘 이사회에 올라 와 있다"고 밝혔다.

보고 안건으로만 다뤄진다는 것은 이사회에서 포스코플랜텍의 지원 여부에 대한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포스코는 포스코플랜텍의 처리 방안과 이에 따른 파장을 이사진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포스코플랜텍의 대출금 연체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지만 절차에 따른 결정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포스코 이사회가 유동성 문제 해결이 다급한 포스코플랜텍을 의결 안건으로 다루지 않는 것을 놓고 업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법정관리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포스코플랜텍은 대출금 연체를 자력으로 해결할 여력이 전혀 없다"며 "지난해 12월 유상증자한 2900억원도 수일 만에 여신 상환에 모두 썼기 때문에 대주주의 지원이 없으면 법정관리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애널리스트는 "포스코의 포스코플랜텍 지원 가능성을 50%로 보고 있다"며 "자금 지원이 아닌 채권단에 채무보증이나 자산 담보제공과 같은 방안도 포스코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플랜텍은 지난 13일에도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우리은행에서 199억원의 대출원리금 연체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 1일 외환은행의 무역어음대출 원리금 445억원을 연체했다. 7일에는 150억원 규모의 하나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다. 포스코플랜텍이 5월 들어 현재까지 연체한 여신은 모두 804억원이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이완구 전 총리 검찰 출석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충남 부여·청양 재선거 출마 당시,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은 의혹으로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관련기사 5면

노진환 기자 myfixer@

'CSR 국제컨퍼런스' 오늘 오후 1시 대한상의 ▶ 관련기사 6면

하루 한 생각

餞春迎夏
(전춘영하)

봄을 전별하고 여름을 맞다

▶ 14면



조현식 사장 ▶2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안드로이드 앱)

녹십자, 캐나다 혈액분획제제 공장 내달 착공

글로벌 혈액제제 시장 진출 교두보

녹십자가 북미지역 공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캐나다 혈액분획제제 공장 건립이 오는 6월초 시작된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녹십자가 오는 2019년까지 캐나다 퀘벡주 정부와 1800억원을 투자해 캐나다 몬트리올에 짓기로 한 혈액의약품 생산공장이 6월초 착공된다.

착공식에는 녹십자 허일섭 회장, 허은철 대표를 비롯해 녹십자 캐나다 현지법인 GCBT(Green Cross Bio Therapeutics Inc) 대표인 김영호 녹십자 부사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녹십자는 캐나다 공장을 글로벌 혈액제제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삼고, 혈액제제 시장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북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GCBT는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캐나다 퀘벡 주정부 등과 혈액 의약품 제조공장 설립에 대한 재정 지원과 우선 구매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회사는 GCNA(Green Cross North America Inc)가 지난해 100%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GCNA의 지분은 녹십자홀딩스와 녹십자가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녹십자는 협약 체결 당시 퀘벡투자청으로부터 2500만 캐나다달러(약 240억원)의 재정지원을 비롯해 세제 혜택을 받았고, 올초 국민연금도 캐나다 공장 설립에 700억원을 투자키로 결정했다.

강인효 기자 kangih@



데이터 뉴스 DataNews

IMF "성장동력 정체" 한국경제 엇갈린 전망 "확장국면 진입" OECD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예상 성장률을 한 달 만에 또 3.1%로 하향 조정했다.

IMF는 13일 한국과의 2015년 연례협의가 지난 8일 종료됐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IMF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0%로 제시한 이후 지난 2월 'G20 글로벌 전망과 정책 도전' 보고서에서 3.7%로, 지난 4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3.3%로 계속 낮춰 제시했다.

IMF는 성장률 하향 조정에 대해 "2013년 초부터 형성됐던 성장동력이 정체됐다"면서 "2014년 2분기 이후 성장률은 이전의 1년 동안 나타났던 것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

국제기구 상반된 한국경제 진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경제의 '회복론'을 뒷받침하는 지표가 나왔다.

14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3월 기준 경기선행지수(CLI)는 102.0으로 2010년 4월(102.1) 이후 3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 재고순환지표·주가지수·장단기 금리차·제조업 경기 전망 등을 근거로 산출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적 국면이라는 뜻이다. 이 지표가 들어맞으면 한국의 경기 회복세는 올 하반기로 갈수록 강해진다.

한국의 3월 OECD 경기선행지수는 전월과 비교해 0.2포인트 높아졌으며 9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박상영 기자 sypark@

물류 영토확장… 1조 베팅한 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사장〉

한국타이어 지주사 오너로
신사업 확장·M&A 등 임무
KT렌탈 실패후 '절치부심'
지난달 대우로지틱스 이어
동부익스프레스 LOI 제출
인수땐 단숨에 4위권 진입



한국타이어가 물류회사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본격적 영토 확장에 나섰다. 타이어와 배터리 등 자동차부품에 한정된 사업영역을 더욱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이 전략의 중심에는 오너일가의 장남 조현식〈사진〉 사장이 존재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와 재계 등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달 대우로지스틱스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데 이어 최근 동부익스프레스 인수전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대우로지스틱스 실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입찰은 6월 초로 예정돼 있다. 여기에 동부익스프레스까지 인수하면 한국타이어는 단박에 물류업계 4위권에 진입하게 된다. 두 매물의 매각대금은 각각 3000억원과 7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인수전의 주체는 엄밀하게 따져 한국타이어가 아닌 지주사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2년 9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장남 조현식 사장과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로 잘 알려진 차남 조현범 사장이 각각 사업영역을 나눠 맡았다.

조현식 사장은 한국타이어 투자부문을 분리해 지주사 오너로 나섰다. 이 회사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다. 투자부문을 분리한 만큼 재투자와 신사업 확장, M&A 등이 주된 임무다. 조현범 사장은 기존의 한국타이어를 맡았다.

조현식 사장의 고민은 이때부터 깊어졌다. 이름이 지주사일 뿐 '사업영역 확대'라는 책임과 숙제만 주어졌기 때문이다. 새 사업에 뛰어들어야 하는 부담도 떠안았다.

신사업을 위한 본격 행보는 지난해 말 시작됐다. 올해 초 글로벌 3위권에 이름이 올라 있는 자동차 공조기 전문기업 한라비스테온 인수에 뛰어든 것. 재무적 투자자인 한앤컴퍼니와 함께 한라비스테온 공동 인수에 나서 작업을 마무리했다. 표면적으로 차남 조현범 사장이 추진한 인수전이었지만 장남 조현식 사장의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역시 물밑 작업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올해 초 KT렌탈 인수전에서는 실패했다. 때문에 이번 물류회사 2곳의 인수전 결과가 그에 대한 평가를 갈라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M&A의 막강한 경쟁자는 CJ그룹. 하지만 현재 이재현 회장의 부재로 인해 공격적 전략을 펼치지 못하는 양상이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 조현식 사장이 오너일가 그것도 지주사 대표로서의 강한 리더십과 확고한 결정권을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준형 기자 junior@

파라다이스 부산 사업부 통합
전필립 '카지노 No.1' 시동



1202억원에 양수 4곳 통합…주가 쑥
내년 하반기 '제주 롯데' 마지막 작업

전필립〈사진〉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이 카지노 사업 통합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국내 최대 외국인 카지노 사업자로 '입지 굳히기'에 속도가 붙었다.

파라다이스는 지난 11일 파라다이스글로벌이 소유한 '파라다이스 부산 카지노사업부'를 1202억400만원에 양수키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파라다이스 측은 "카지노 사업부문 통합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작업으로 파라다이스는 그룹 내 5개 카지노 사업부 중 4곳을 통합 운영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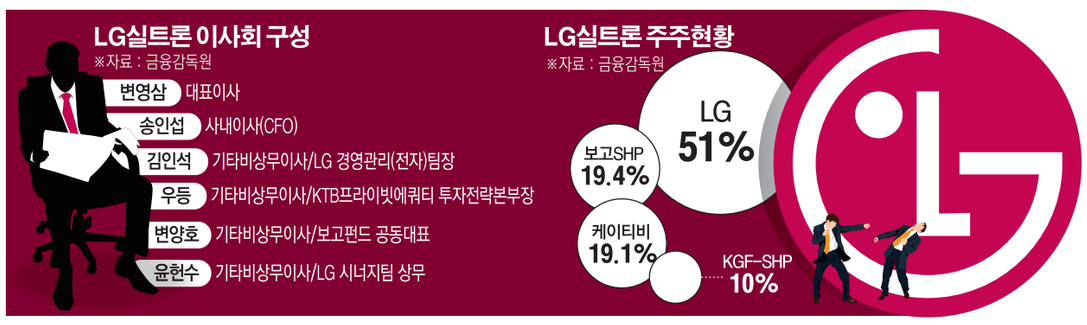
파라다이스는 기존 서울의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지난 2012년 파라다이스제주를 흡수합병하면서 '파라다이스 카지노 제주그랜드'를 통합하게 됐다. 이어 지난 2013년 파라다이스가 지분 55%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파라다이스세가사미가 인천 카지노 라이선스를 파라다이스글로벌로부터 인수한다. '파라다이스 인천 카지노'를 인수한 파라다이스세가사미 실적이 연결재무제표로 파라다이스에 반영되면서 통합효과가 일어났다. 이번에 '파라다이스 카지노 부산'이 네 번째로 통합작업 수순을 밟게 됐다.

앞으로 파라다이스는 마지막 한 곳 '파라다이스 카지노 제주롯데'를 통합하는 작업만이 남았다. '카지노 제주롯데'는 제주도의 대표 관광지인 중문단지 내 롯데호텔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계열사 두성이 운영하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카지노 제주롯데'도 통합할 계획이다.

파라다이스 관계자는 "기존에 발표했던 작업이라 이렇게 주가가 오를 줄 몰랐다"며 "이번 통합 작업을 통해 마케팅 요소에서 시너지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며, 경비 절감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대표 퇴진' 압박… 내홍 휩싸인 LG실트론 이사회

LG와 법적분쟁중인 보고펀드
실적악화 이유로 '해임안' 제출
이사회 6명 가운데 4명 LG측
제스처일 뿐… 통과 어려울 듯



LG그룹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계열사인 LG실트론이 대표이사 해임건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에 휩싸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변영삼 LG실트론 대표이사 해임건이 지난 2월 이사회에 상정됐으나 사내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대표이사 해임을 주도한 것은 19.4% 지분을 보유한 보고펀드(보고SHP투자목적회사) 측으로, 변양호 보고펀드 공동대표가 현재 LG실트론의 이사회 멤버(기타비상무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해임안 사유는 실적악화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책임이다. 2012년만 해도 1088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던 LG실트론은 2013년 18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고, 지난해에는 34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올 1분기도 141억원의 적자를 이어갔다.

업계는 LG와 보고펀드 간의 갈등이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은 현재 실트론 IPO 무산 책임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2007년 LG실트론에 투자했던 보고펀드는 LG실트론 상장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려 했지만 태양광 업황 부진 등의 여파로 무산됐다. 결국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한 보고펀드는 지난해 7월 사상 초유의 사모투자펀드(PEF) 인수금융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냈다.

이후 보고펀드는 LG와 경영진을 상대로 상장 절차 중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LG그룹 측도 보고펀드 등에 대해 배임강요 및 명예훼손으로 맞소송한 상황이다.

업계는 보고펀드가 LG 압박용으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측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이사 인원수가 LG 측이 훨씬 많아 안건 통과가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LG실트론 이사회는 전체 6명의 이사 중 LG 측이 4명이다. 현재 실트론의 이사진은 변영삼 대표이사, 송인섭 사내이사, 김인석 LG 경영관리(전자)팀장, 우등 KTB프라이빗에쿼티 투자전략본부장, 변양호 전 보고펀드 대표, 윤헌수 LG 시너지팀 상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고려신용정보 영업익 사상최대
박종진 '위기탈출 No. 1'



1분기 12억3000만원 359% 껑충
오너 리스크 딛고 '내실경영' 결실

윤의국 전 회장의 횡령 사건과 채권추심업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며 비상경영을 선포했던 고려신용정보가 긴축경영의 결실을 맺고 있다. 지난해 4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 제2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신용정보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억3000만원 증가한 197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58.9% 증가한 12억3000만원을, 당기순이익은 768.5% 급증한 9억700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으로 계절적 변동성, 영업일수 부족 및 치열한 시장 상황 속에서 일궈낸 성과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난해 긴축경영을 통한 내실 강화에 들어간 고려신용정보는 2014년 4분기 영업이익 11억8000만원, 당기순이익 8억8000만원을 기록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윤의국 전 회장 리스크로 주가에 부침을 겪은 바 있는 고려신용정보는 윤 전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며 아들과 자회사 대표에게 힘을 실어 주며 경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 고려신용정보는 기존 박종진·윤태훈 각자대표체제에서 박종진〈사진〉 단독대표체제로 변경됐다.

박 대표는 채권추심업의 위기 속에 수익구조 개선에 힘을 기울였고 상거래채권에 편중된 매출구조를 바꾸고 다각화와 비용절감에 집중했다. 작년 7월 선포한 긴축경영 결과 고려신용정보는 채권추심업계 1위로 부상했다. 그리고 지난해 실적 개선으로 회사의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평가 제고와 더불어 시장에서 주가 반등을 이뤄냈다. 정유현 기자 yhssoo@



K water
대한민국이 마시는 건강한 물

건강한 수돗물이 전하는
우리집 이야기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부터
건강관리가 필요한 엄마와 아빠까지-
온 가족 모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K-water가 만드는 건강한 수돗물입니다

건강한 수돗물
K-water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한 물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넘어 미네랄이 균형있게 포함된 인체에 건강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250 여가지의 수질검사
250여 가지 항목의 꼼꼼한 수질검사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otal Care Service
방문 수질검사 및 옥내배관 내시경 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가 수도꼭지수질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장사 10곳 중 8곳 '맑음'… 시총상위 기업은 다소 '주춤'

2분기 실적 전망

해운·항공, 저유가 효과 톡톡
증권업종도 호조세 이어갈 것
시총상위 10위권 절반 부진
삼성전자 영업이익 1.1% 감소
현대차·포스코·기아차도 줄듯

국내 주요 상장사의 82%가 지난해보다 개선된 2분기 실적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시가총액 상위기업의 경우 작년과 비슷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와 주요 증권사 등에 따르면 주요 상장사 가운데 82.2%의 오는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FN가이드가 증권사 3곳 이상이 추정치를 내놓은 기업 208곳을 분석한 결과 상장사 150곳(82.2%)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개선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 2분기 적자를 기록했던 19곳은 흑자전환, 2곳은 적자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시가총액 상위기업은 사정이 다르다. 이들 가운데 절반은 지난해 2분기 실적에 못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나머지 절반 역시 보합세를 나타내거나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2분기 영업이익 7조1873억원을 냈던 삼성전자는 오는 2분기에 7조108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년보다 1.1%(793억원) 감소한 것으로 계열적 비수기와 신흥시장 경쟁심화 탓에 영업이익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주요 기업 2분기 영업이익 전망 및 증감 추이

단위: 원

기업	2015년 2분기	전년 동기	증감규모	증감률
삼성전자	7조 1080억	7조 1873억	-793	-1.10%
현대차	1조 9600억	2조 0873억	-1273	-6.10%
SK하이닉스	1조 3606억	1조 0839억	2767	25.53%
모비스	7992억	7455억	537	7.20%
POSCO	7830억	8391억	-561	-6.69%
아모레퍼시픽	2025억	1511억	514	34.02%
기아차	6974억	7697억	-723	-9.39%
SK텔레콤	5764억	5366억	398	7.42%
삼성SDS	1685억	1728억	-43	-2.49%
네이버	2264억	1912억	352	18.41%
제일모직	703억	614억	89	14.50%
LG화학	4813억	3596억	1217	33.84%
삼성SDI	520억	7억	513	7328.6%



현대차 역시 전통적인 비수기인 1분기를 지났지만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2조873억원)보다 6.1% 감소한 1조96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의 영업이익 감소는 △내수판매 부진 △수출시장 신차 부재 △환율 영향 △일본 경쟁업체의 약진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포스코(-6.69%)와 기아차(-9.39%), 삼성SDS(-2.49%) 등이 2분기에 전년 대비 줄어든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사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영업이익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점쳐지는 곳은 삼성SDI. 지난해 2분기 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삼성SDI는 이번 2분기에 520억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제일모직과의 흡수합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기저효과로 보인다. 실적 분할을 비롯한 연결기준 탓에 작년 2분기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여기에 중국 시안공장 초기 투자도 저조한 영업이익의 배경이 됐다.

반면 유가 하락에 힘입어 해운과 항공업계는 오는 2분기 실적에 운송비 절감 효과를 톡톡히 담아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증권업종도 호실적을 더해가고 있다. 현대증권과 대우증권이 각각 전년 대비 440.32%와 49.38% 늘어난 영업이익을 기록 중이고,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대신증권도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이 점쳐진다.

김준형 기자 junior@

아모레퍼시픽 2분기 '실적킹'

'아이오페' 中진출 호재…34% 증가한 2025억 전망
LG화학 33.8%·SK하이닉스 25.5% 성장 기대감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아모레퍼시픽의 2분기 실적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1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 업체의 올해 2분기 증권사 추정 실적을 집계한 결과 아모레퍼시픽의 2분기 실적 전망치는 2025억원으로 전년 동기 1511억원 대비 34.02%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233만원이었던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지난달 20일 액면분할을 앞두고 사상 최고치인 400만5000원까지 올랐다. 중국 소비재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이란 전망과 중국 주요 대도시 백화점 5~6군데에 주력 브랜드 중 하나인 아이오페 매장이 설치된다는 소식에 증권사들은 향후 실적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2.4% 증가한 5637억원을 기록하며 기대감이 허상이 아님을 증명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 예정인 올해 1분기 실적과 관련해서도 에프엔가이드는 아모레퍼시픽의 영업익 추정치를 2282억원으로 연초 대비 12.7% 상향 조정했다. 연간 기준 영업이익 추정치도 7272억원으로 연초 대비 6.4%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 LG화학도 2분기 실적 전망치가 4813억원으로 전년 대비 33.8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증권가에서는 LG화학에 대해 화학사업 경쟁력 개선, 편광필름 가동률 상승, 폴리머 전지 증설 효과 등으로 이익 개선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목표주가도 줄상향 중이다. 최근 미래에셋증권은 LG화학 목표주가를 기존 28만원에서 31만원으로 높였고 하나대투증권(25만원→31만원), NH투자증권(28만→32만원), KTB증권(23만원→29만5000원) 등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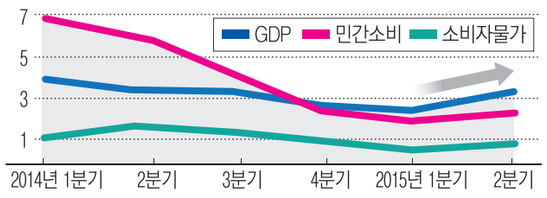
SK하이닉스의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1조3606억원으로 전년비 상승률은 25.53%로 예상됐다. 과점 상태인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원가 경쟁력을 지키고 있는 상태고 경쟁업체인 마이크론의 미세공정 전환 차질에 따른 반사이익도 기대된다는 것이 배경이다.

네이버(18.41%)와 제일모직(14.5%) 등도 양호한 실적 성장이 기대되며 뒤를 따랐다.

한편 삼성SDI는 2분기 실적 전망치가 520억원으로 전년 동기 7억원에 비해 70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집계가 나왔다. 그러나 전년도 2분기까지는 제일모직과 합병 전 실적이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다운 기자 gamja@

주요 경제지표 추이



살아나는 경제지표 2분기 호실적 뒷받침

GDP 등 1분기 저점 찍고 상승세

주요 상장사에 대한 2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가운데 긍정적 전망을 뒷받침할 각종 경제지표와 금융지표가 호전세로 돌아섰다. 이들 지표가 1분기 저점을 찍고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주요 상장사의 2분기 실적 개선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긍정적 전망의 배경에는 국제유가를 비롯해 GDP와 민간소비, 소비자물가, 환율 호전 등 다양한 지표들이 존재한다.

먼저 국제유가는 3월 중순, 저점 수준인 배럴당 47달러를 시작으로 반등세를 시작했다.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기준, 5월 초부터 61달러 수준을 기록 중이다. 국제유가가 반등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저가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당분간 항공과 해운업계의 운송비 절감 효과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경제지표 역시 2분기 실적 전망에 긍정적이다. 지난 1분기 GDP 증감률(+2.4%) 역시 최근 5분기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를 저점으로 다시 상승세를 시작해 2분기에는 3.2%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민간소비지수 역시 지난 1분기를 저점으로 상승세를 시작했다. 1분기 민간소비지수 증가율은 최근 5분기 가운데 가장 낮은 1.9%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2분기부터 2.3% 수준을 회복하면 소비활성화를 비롯해 기업별 소비재와 공산품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디플레이션 우려도 2분기부터 개선 조짐이 보인다. 지난해 1%대를 유지했던 물가상승률은 지난 1분기 0.6%를 저점으로 상승 전환이 예상된다. 2분기 0.8%를 기록하면서 회복세로 전환돼 3분기 1%대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출기업에게 중요한 원달러 환율 역시 지난 1분기가 저점이었다. 주요 증권사 전망치를 종합해보면 원달러 환율은 지난 1분기 1100원 수준을 유지했지만 2분기부터 1909원으로 올라설 것으로 내다보인다. 상승률이 적지만 하락세가 멈췄다는 데 적잖은 의미가 있다. 수출 경기의 점진적 회복을 점칠 수 있는 부분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본격화되기 이전, 석유화학 업계와 항공해운 업종의 실적 개선세가 2분기에 정점을 이룰 것"이라며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2분기를 시작으로 실적 호조는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독립 투자전문그룹, 미래에셋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5-03102호(2015.05.08~2015.07.31)



미래에셋 TIGER차이나A300ETF
1년 수익률 132.82% BM 131.23%

미래에셋 TIGER생활소비재ETF

미래에셋 TIGER 합성-차이나A레버리지ETF

미래에셋 TIGER중국소비테마ETF
1년 수익률 32.99% BM 32.21%

미래에셋 TIGER경기방어ETF
1년 수익률 39.40% BM 37.95%

미래에셋 TIGER나스닥바이오ETF

미래에셋 TIGER S&P500선물ETF
1년 수익률 16.66% BM 14.89%

미래에셋 TIGER ETF로 글로벌 자산배분하세요

고객님의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국가, 다양한 섹터에 분산투자되고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의 미래에셋 ETF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세요.

미래에셋TIGER차이나A300증권상장지수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수익률(세전기준)

	6개월	1년	설정이후
미래에셋TIGER차이나A300	93.06%	132.82%	101.65%
BM	92.94%	131.23%	104.93%

설정일: 2014.01.27 순자산: 827억 BM지수: CSI300(KRW) 총보수: 연 0.70% (운용 0.51, 지정참가 0.10, 신탁 0.05, 사무 0.04)

미래에셋TIGER경기방어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수익률(세전기준)

	1년	3년	설정이후
미래에셋TIGER경기방어	39.40%	83.36%	85.46%
BM	37.95%	75.25%	72.76%

설정일: 2011.04.05 순자산: 1,281억 BM지수: KOSPI200 생활소비재 총보수: 연 0.40% (운용 0.27, 지정참가 0.07, 신탁 0.03, 사무 0.03)

미래에셋TIGERS&P500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수익률(세전기준)

	1년	3년	설정이후
미래에셋TIGERS&P500선물	16.66%	65.75%	79.66%
BM	14.89%	58.43%	70.98%

설정일: 2011.07.15 순자산: 266억 BM지수: S&P 500 Futures Excess Return Index (USD)[D-1] 총보수: 연 0.30% (운용 0.16, 지정참가 0.07, 신탁 0.03, 사무 0.04)

미래에셋TIGER중국소비테마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수익률(세전기준)

	1년	3년	설정이후
미래에셋TIGER중국소비테마	32.99%	66.80%	84.46%
BM	32.21%	63.40%	78.14%

설정일: 2011.12.15 순자산: 1,518억 BM지수: FnGuide 중국내수테마 지수 총보수: 연 0.50% (운용 0.34, 지정참가 0.10, 신탁 0.03, 사무 0.03)

■ 출처: 제로인 / 기준일: 2015.04.30
■ 과거 실적이 미래수익을 보장하지 않음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 귀속됩니다 ■ 외화표시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과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투자 –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

예비군 훈련장 총기사고 현안보고



백승주(오른쪽) 국방부 차관이 14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52사단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 전 육군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원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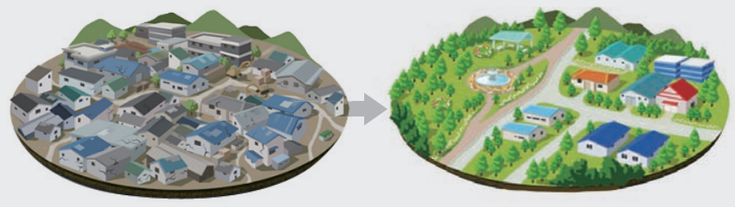
국토부, 난개발 우려 사전협의 안전장치 마련키로…사실상 '신규 규제'

유일호장관 역할 부재론도 고개

난개발 논란을 불러왔던 지자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사실상 정부의 규제 망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됐다. 설익은 규제개선안을 원점 회귀하면서 취임 두 달 째를 앞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역할 부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6일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통해 해제해 온 그린벨트 중 30만㎡ 이하 중·소규모 그린벨트는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해제와 개발절차를 일원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2년 이상 소요되는 해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그린벨트 규제개선 방안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선심성 그린벨트 해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선출직 공무원인 시·도지사가 선거용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난개발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선방안

1. 30만㎡ 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 **해제절차 간소화**
2.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
3.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4.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사업 **지원 강화**

이를 의식한 듯 유 장관은 다음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과정은 있다"며 "난개발 우려가 있다면 국토부가 중도위 심의에 부칠 수 있게 해 뒀다"고 해명했다.

실제 국토부는 14일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넘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 중도위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중도위 직후 그 구성원 그대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사전협의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단순히 관계 부처 사전협의로 언급된 방지책에 성문화된 요건이 만들어진 셈이다.

하지만 이 규제에 대해 말들이 많다.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도위 심의 절차를 제외한 것인데 중도위 위원들이 다시 제약요건을 만든다면 결국 '도루묵' 정책밖에 더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유 장관의 역할론도 도마에 올랐다. 한 관계자는 "지금껏 유 장관이 내놓은 정책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월세 대책을 미세 조정한 것밖에 없다"며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그린벨트 규제개혁안조차 혼선을 빚는다면 그는 역할 부재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퇴진론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준 기자 h9913@

4월 청년실업 최악…정년연장 따른 청년 고용대란 현실화

세대간 '밥그릇 싸움' 본격화되나

'일자리 마련' 정부 고민도 깊어져

정부가 부모 세대의 일자리를 보장하면서 자식 세대의 실업을 지켜보든가, 부모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아서 자식 세대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청년 고용대란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놓고 세대 간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세대 간 '밥그릇 뺏기'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심각한 청년실업 탓이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지난달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2%로 올랐다. 역대 4월만 놓고 보면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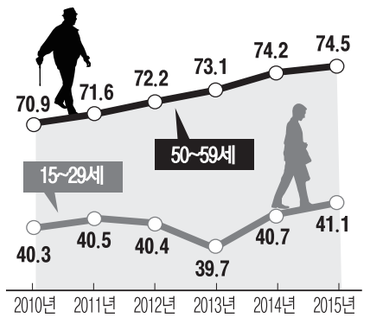
정부의 고민은 청년층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한편, 고령화에 따른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 사이 출생한 세대)의 은퇴 후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령층별 경제활동 상태를 보면 베이비붐 세대는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을 보이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상태별 구성은 취업자가 4월 기준 598만3000명(고용률 74.5%)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 이에 비해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41.1%로 낮고, 실업률은 10.2%로 가장 높아서 청년층 실업의 심각성을 보여 준다. 베이비붐 세대가 속하는 50~59세 실업률은 2.5%로 낮다.

연령층별 고용률

단위: %, 2015년은 4월 기준 ※출처: 통계청



정년 연장과 청년실업이 보완 관계에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대 간 '밥그릇 뺏기'라는 주장은 노동 수요가 고정돼 있다는 전제로, 소위 '노동총량 오류'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주요 12개국의 연도별 자료를 이용해 은퇴와 청년고용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고령자의 고용증가가 청년층의 고용기회를 감소시키거나 청년실업을 증가시킨다는 가설이 입증되지 않았다.

고령층의 고용 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가 과연 청년층의 고용 증대로 전환될 것인가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숙제다.

박엘리 기자 ellee@

복지부 국민연금 신뢰도 '다소 우수' 자평

사각지대 해소 등에 좋은 평가

野·시민단체 '공포마케팅' 비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자체 정책 평가에서 '국민연금 신뢰 기반 구축' 과제에 '다소 우수'라는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관련 논란 과정에서 야권으로부터 '공포 마케팅'을 벌여 연금 합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터라 논란이 예상된다.

14일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4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신뢰기반 구축' 과제는 '흡연예방 및 담배규제 강화를 통한 흡연율 감소' '독거노인 돌봄체계 강화' 등과 함께 '매우 우수' '우수' 다음으로 좋은 평가인 '다소 우수' 등급을 받았다.

'다소 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는 모두 11개로 전체의 14.3%를 차지했다. 여기에 '매우 우수' 평가와 '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는 각각 3개와 12개여서 전체 과제의 33.8%가 '다소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이는 국민연금 신뢰 구축 과제가 상위 3분의 1 수준으로 높은 성과로 평가받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같은 평가 결과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인상 방안을 둘러싸고 야당과 시민단체 일각에서 복지부가 과장된 숫자로 국민을 공포로 모는 '공포 마케팅'을 벌여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받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스스로를 칭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에 좋은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정치개혁 추진할 '깨끗한 총리' 없나요

이완구 사퇴후 총리공백 장기화…국정운영 차질 우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사퇴한 이후 시작된 총리 공백 상태가 어느덧 18일이나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 지연되면서 국정운영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중남미 순방 직후 건강상 문제로 1주일간 휴식을 취하면서도 총리 인선안에 대해선 실무진으로부터 경과 보고를 받고 후보에 대해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업무 복귀 이후엔 더 왕성하게 후보군을 검토하면서 조만간 인선이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가 컸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아직까지 거론되는 인물이 없다.

한때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황 부총리가 내년 총선에 출마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진 데다 '무색무취'하고 '무난한' 성격의 그가 '강력한 개혁'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인물들은 과거 이력 등의 문제로 '검증' 단계에서 탈락했으며, 검증을 통과해 후보 물망에 오른 이들은 본인이 총리직을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유럽유학 설명회 '북적북적'



13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EU대표부와 유럽대사관 주관 '유럽 유학 및 장학 설명회'가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유기준 장관 "내국인 선상 카지노 허용법 국회 제출할 것"

찬반논쟁 격화…성사 불투명

정부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선상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선상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낼 것"이라면서 "법안 제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앞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내 국적 크루즈 선사 출범을 지원하고, 2020년까지 크루즈 관광객 300만명을 유치할 것"이라면서 2016년 상반기 중 띄울 국적 크루즈선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부 구상에 대해선 벌써부터 찬반이 갈린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정부가 나서서 사행산업을 장려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높다.

실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해관계에 따라 찬반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영 기자 bomnal@

기준금리 시그널은? '이주열 코드' 읽어라

경기판단·금리수준 평가 언급 등…내일 금통위 개최

"기준금리를 향후 몇 월에 몇 %포인트 인하 또는 인상하겠습니다."

금리 체계의 기본인 '기준금리'의 키를 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명시적으로 위와 같이 얘기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추가 금리조정 가능성에 대해 이 총재는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는 말로 모호함을 지켜낸다.

그러나 소통과 통화정책의 신뢰라는 명분을 사수하고자 이 총재는 나름 '경기판단'과 '금리수준 평가'라는 두가지 의제를 핵심으로 '이주열 코드'를 구성했다.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른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14일 경제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취임한 이 총재는 작년 8월, 10월, 올 3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씩 하향 조정했다. 15일 열리는 5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하루 앞둔 현재 기준금리는 연 1.75%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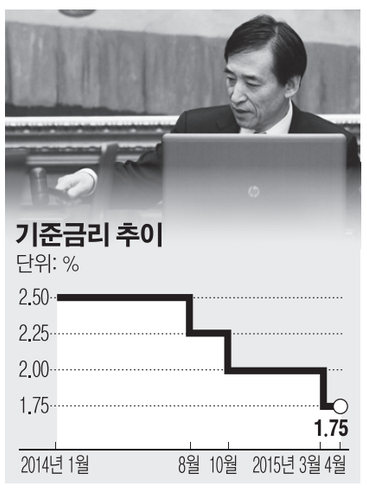
그간 13번 열린 이 총재의 금통위 기자간담회 발언을 분석해 보면 경기판단과 금리 수준 평가에 대한 언급이 통화정책의 향배를 가르는 주요 시그널로 작용했다. 물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포워드 가이던스(선제적 안내)가 구비한 체계성과 일관성 등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상당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이 총재 핵심 시그널은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총재가 통화정책 소통부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시그널을 주려고 항상 노력한다"며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에 대해 발언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총재가 처음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한 지난해 8월에 한 달 앞서 열린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성장 및 물가전망 경로상의 하방 리스크가 다소 크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달했다. 심지어 그날 '하방 리스크'라는 단어는 이 총재의 입에서 무려 9번이나 나왔다.

물론 지난 3월 깜짝 인하를 하기 직전 달인 2월에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경기전망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1월 경제전망 때를 유지한다"고 말하지 않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해 살짝 면피의 여지를 남겼다.

이 총재의 시그널이 혼란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금리 수준에 대한 발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난 2월 이 총재는 다른 나라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금리 수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 통화정책 기조가 실물경기를 제약하는 수준은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기존에 공식처럼 밝혀 온 "금리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다든가 혹은 부족하지 않다"는 발언에서 금리 인하쪽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했다.



또 가계부채 리스크는 금리 인상 및 동결 요인인데 기준금리를 내리기 위해 이 총재는 가계부채 우려를 자제하려고 노력했다. 가령 지난해 10월 금리인하를 단행하기 한 달 전인 9월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동향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는 질문에 주택금융공사의 정책 모기지론 등 특이요인을 언급하며 "가계대출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고 판단을 보류했다. 이후에도 한참 동안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금융안정 리스크를 무시하진 않았지만 금융당국과의 공동 해결 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위험을 부각시키지 않았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되면 이 총재가 가계부채 우려 발언을 인상의 시그널로 적극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밖에 이 총재가 자주 강조하는 구조조정 필요성은 금리 동결 혹은 인상의 시그널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이 총재도 작년 10월 "구조조정 발언은 금리정책의 시그널로 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진영 기자 mint@

론스타 "매각수익 세금부과는 부당" vs 정부 "한·벨기에 협정과는 무관"

투자협정 보호대상 여부도 쟁점

'론스타 소송' 내일 심리 개시

관할권에 따른 과세문제 논쟁 빨라야 내년 소송결과 나올듯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되팔며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당시 론스타는 10년도 채 안 돼 매각 대금 등 4조7000억원을 챙기며 먹튀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5조1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2012년 11월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요청했다. 1차 구두심리는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차 심리는 6월 29일부터 열흘간 소송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최대 쟁점은 우리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지연 부분이다. 론스타는 2003년 10월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06년부터 되팔려고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차례로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넘기며 엄청난 차익을 챙겼다.

그러나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5조9376억원에 매각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더 큰 매각차익을 올리지 못했다며 우리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외환은행, 인수 매각 관련 일지

2003년 8월	론스타, 외환은행 공식 인수, 경영권 양도 본계약
2005년 9월	투기자본감시센터, 외환은행 매각관여 경제관료 등 20명 고발
2006년 1월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추진 발표
2007년 9월	HSBC, 론스타 외환은행 지분 51.02% 인수 합의 발표
2007년 12월	HSBC, 금감위에 외환은행 지분 인수승인 신청
2008년 7월	금융위, 외환은행 매각심사 착수 계획 발표
2008년 9월	HSBC, 외환은행 매매계약 파기 결정
2010년 4월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절차 재개
2010년 11월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체결
2012년 1월	금융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2012년 11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정부 제소
2013년 5월	ICSID, 중재 재판부 구성 완료
2015년 5월	ICSID, 첫 구두심리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론스타의 헐값 외환은행 인수 의혹에 대한 배임 사건과 외환은행-카드 합병 관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매각을 승인해줄 수 없었다며 맞서고 있다.

이어 소송 성립 여부를 다투는 관할권도 논쟁 대상이다. 이 쟁점은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론스타가 소송의 근거로 내세운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이 과세 근거의 적법성 문제다. 당시 론스타는 벨기에에 만든 자회사들(원고)을 통해 외환은행, 강남 스타타워 빌딩, 극동건설 등에 투자했다. 이 때문에 이들 자회사가 투자협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우리 정부는 자회사들이 실체가 없으므로 투자협정으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론스타가 스타타워와 외환은행 등에 대해 투자했다가 매각 차익을 올린 데 대해 과세한 것도 투자협정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구두심리가 끝난 뒤에도 한 차례 정도 서면을 주고받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두심리 후에는 재판부가 오랜 기간에 걸쳐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빨라야 내년은 돼야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안철우 기자 acw@

부처님 자비로 세상을 환하게…… 조계사 연등 점등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13일 오후 연등 점등식이 열린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스님과 동자승이 환하게 웃으며 경내를 걷고 있다. 뉴시스

중앙대 특혜·뇌물 공여 혐의 박용성 前두산회장 15일 소환

구속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가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을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혐의는 뇌물공여 등이다.

13일 관련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15일 박 전 회장 소환으로 의견을 모았다. 박 전 회장은 중앙대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11~2012년 본교와 안성캠퍼스 통합, 교지 단일화,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중앙대 역점 사업을 돕는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다양한 형태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 재직 당시 중앙대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교육부 공무원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 인정돼 8일 구속됐다.

박 전 수석은 2011년 임대분양 시기가 아닌데도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를 3억3000만원에 분양받기도 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받은 이러한 특혜를 교육부에 대한 실력 행사의 대가로 보고 있다.

김준형 기자 junior@

"일반 근로계약서 작성했더라도 임원 재직기간 퇴직금은 못받아"

대법, 퇴직금 지급소송 원심 파기환송

회사 임원이 일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원 취임 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회사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B주식회사 상무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02년 3월 B사에 부장으로 입사했고, 2006년 4월 등기이사로 취임했다. 이씨는 등기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부장 재직 시절과 동일한 업무를 맡아 처리했고, 해마다 작성하던 연봉 근로계약서0도 똑같이 작성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이씨를 '근로자'로 기재했고, 취업 장소나 근로시간, 급여와 휴가 등 근무여건에 대한 조항도 있었다. 이씨는 2012년 4월 등기이사를 퇴임하면서 회사를 퇴사했고, 등기이사 재직기간의 퇴직금 3400여만원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회사에서 등기이사로 재직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일반근로자처럼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는 "이씨가 등기이사로서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1, 2심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가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임원이 되기 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근태 현황도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기록된 점으로 미뤄볼 때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씨는 B사의 상법상 이사로서 이사회 등을 통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가해왔고, 이사회 결의에 기초한 이사로서의 보수를 받는 등 근로자인 일반사원과 확연히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이씨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더라도, 이씨가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데 그쳤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했는데도 형식적으로 임원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는 사례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측에서 악용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좌영길 기자 jyg97@

洪, 증거은닉·증인회유 정황… 영장청구되나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들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사건 증거물을 숨기고, 핵심 증인을 회유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를 홍 지사가 묵인 또는 지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될 경우 홍 지사의 관여도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전날 홍 지사의 보좌관 출신인 나경범 경남도청 서울본부장과 비서관 출신인 강모씨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확보한 압수품들을 분석 중이다.

압수품 중에는 지난 2011년 6월을 전후한 시기에 비공식 일정까지 포함한 홍 지사의 행적을 담은 전산기록 파일과 일정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검찰이 홍 지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절차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이번 압수수색이 나 본부장 등의 증거 은닉은 물론 윤 전 부사장에 대한 회유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2013년 재보선 캠프 실무자 이완구 최측근도 오늘 소환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3일 이완구 전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민수 비서관을 조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3년 4월 이 전 총리의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 캠프에서 주요 실무를 책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김 비서관을 상대로 이 전 총리의 운전기사 윤모씨를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를 독대한 것을 봤다고 언론에 증언했고, 김 비서관은 윤씨에게 전화를 걸어 진술을 바꿔달라고 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 전 총리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좌영길 기자 jyg97@



세계 각국 CSR 법제화 추세…이젠 선택 아닌 '성장의 조건'

"한국기업의 글로벌 CSR"
2015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
2015 CSR INTERNATIONAL CONFERENCE

주제 한국기업의 글로벌 CSR

올해로 6회째인 '2015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기업의 글로벌 사회적 책임(CSR) 트렌드와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적응 및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코스리(한국SR전략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는 2012년부터 매년 CSR 분야에 정통한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 국내외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한국기업의 글로벌 CSR'를 주제로 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펑질라이 중국 신타오 수석연구원이 '중국 진출 외국기업의 사회책임활동 준수 사항과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전진철 CJ그룹 CSV경영실 부실장이 'CJ그룹의 글로벌 CSV경영'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또 이장희 코트라 글로벌 CSR사업단장은 '우리 기업을 위한 코트라의 글로벌 CSR 지원사업'에 대해 심도 깊은 소개를 했다.

"中진출 기업 CSR 성공하려면 규제 정책·트렌드 숙지해야"

펑지라이 중국 신타오 수석연구원

올해부터 신환경보호법 시행
정보공개·소송대비책 등 필요
소통부족 애플 등 실패 사례



"다국적기업이 중국 현지 CSR에 성공하려면 관련 규제를 비롯해 전반적인 트렌드를 숙지해야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책임(CSR)과 사회책임투자(SRI) 분야를 다루는 중국 컨설팅기관인 신타오의 펑지라이〈사진〉 수석연구원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에서 이 같이 말하며 '중국 진출 외국기업의 CSR 준수 사항과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그는 우선 중국의 '2015년 CSR 트렌드'를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정책, 산업, 기업, 자선, 교육 등 5가지 분야별 트렌드를 짚으며 △선부른 CSR 활동(리스크 증가) △정보 공개 △이해관계자 참여 등 3가지 CSR 키워드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정책'은 펑지라이 연구원이 가장 강조하는 분야다. 중국이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도래한 만큼, 부패 방지를 통한 가치 창출은 필수적인 상황이 됐다. 그는 "기업들이 CSR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신환경보호법 등 중국 CSR 관련 정책을 꼭 체크해야 한다"며 "특히 기업들은 이 같은 각종 규제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 보건, 재해 구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신환경보호법은 일일 벌금제, 환경 피해를 입힌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이 가능한 공익 소송이 허용되는 만큼 기업들은 환경 이슈에 주목하고 관련 정보 요구 및 공개, 소송 대비책 등이 필요하다는 것.

펑지라이 연구원은 "이 같은 규제와 환경 정보 공개 덕분에 대중들의 인식도 변화되고 있다"며 "기업들은 사회, 환경 이슈에 대해 NGO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환경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면 관련 정보 공개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의 CSR 규제 정책도 눈여겨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타오에 따르면 SASAC는 2008년 CSR 촉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이후 4년 만에 모든 국유기업이 CSR 보고서를 발행했다. 여기에는 CSR 전략, 경영,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펑지라이 연구원은 금전적 자선, CSR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등 자선, 교육 분야에서도 CSR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부연했다.

펑지라이 연구원은 다국적 기업의 현지 CSR 실패 및 성공 사례도 공유했다.

그는 기부에 인색한 기업(노키아, 코카콜라, 맥도날드, KFC), NGO와의 소통이 부족한 애플, 무차별적 직원 해고 등 인권 문제 해결 능력이 문제가 된 구글 등을 CSR 실패 사례로 꼽았다. 그는 이들 기업에게 "중국 상황에 맞게, 적시에 대응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명확한 CSR 전략과 로드맵을 설정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라"고 조언했다.

반면 그가 중국에서 CSR에 성공했다고 인정한 기업들은 어린이 안전에 집중한 폭스바겐, 학생들의 영양상태를 개선한 암웨이 등이었다. 그는 성공적인 CSR 프로그램들의 공통 핵심 요소로 △정부 정책과 트렌드 숙지 및 실천 △기업의 전략 및 제품에 접목 △높은 소셜 임팩트 △적극적 파트너십 지원 등을 꼽았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자본주의 5.0시대…사회적 책임 넘어 공유가치 창출할 때"

전진철 CJ그룹 CSV경영실 부실장

문화와 연계 다양한 활동 전개
세계 곳곳서 '글로벌 CSV' 실현
더불어 사는 산업 생태계 조성



"지금의 기업 환경은 사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임받는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CJ그룹 공유가치창출(CSV) 경영실 전진철〈사진〉 상무는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하며 'CJ그룹의 글로벌 온리 원(Only One) CSV 경영'을 발표했다.

이날 컨퍼런스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전 상무는 최근의 기업 환경이 변화하면서 CSR를 넘어 공유가치창출(CSV)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주의 3.0' 시대에서의 CSR가 준법과 고용창출 등에 국한되는 등 제한적이었다면, '자본주의 4.0' 시대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상생과 나눔 등의 사회적 책임이 확대되는 시기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는 사업 활동을 통해 기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 역할까지 위임받는 '자본주의 5.0'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CJ그룹은 그동안 CSR 분야에서 나름의 입지를 다져왔다. 지난 1999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사회공헌 전담 부서를 설립한 데 이어 2005년 CJ나눔재단, 2006년 문화재단을 설립했다. 2009년에는 CJ아지트를 출범했으며 2013년에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그룹 내 CSV경영실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CSV 경영'을 선포했다.

전 상무는 "CSV 경영은 '사업보국'의 이념으로 시작한 CJ그룹의 62년 경영 노하우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그룹이 가지고 있는 CSR에 대한 철학과 '온리 원(Only One)'으로 대표되는 경영이념이 맞물려 새로운 가치 창출의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공존과 공감, 공영의 정신으로 더불어 사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이 CJ그룹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CSV 경영을 통해 조금 더 체계화된 사회 공헌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CJ그룹은 '계획(Plan)→실행(Do)→점검(Check)→평가(Act)'라는 'PDCA' CSV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프로그램에 CSV 내용을 포함하는 등 CSV 문화를 그룹 내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 상무는 이렇게 만들어진 CJ의 문화를 전 세계 곳곳에 전파하는 '글로벌 CSV'를 실현하고 있다며 해외 사업 사례와 전략을 공유했다.

현재 CJ그룹은 중국과 일본, 홍콩, 베트남 등 23개국에 진출한 181개의 해외법인을 통해 글로벌 CSR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문화사업에 강한 CJ그룹의 이미지를 살려 각종 문화와 연계된 활동을 하고 있다.

전 상무는 대표적인 해외 CSR 활동으로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진행한 '푸드빌 제빵학교', 'CGV 아트하우스', '케이팝(K-Pop) 음악교실' 등을 꼽았다.

또 지난해에는 CJ그룹과 중국 대외인민우호협회 공동으로 주최한 '한중청년꿈나눔단편영화제'와 베트남 낙후지역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 중앙정부와 협력했던 '베트남 새마을 CSV'를 성공적인 CSV 사례로 소개했다.

유지만 기자 redpill@

"소비자·투자가·NGO 등 CSR 요구…기업 이미지에 큰 영향"

이장희 코트라 글로벌 CSR사업단장

印 3년 평균순익 2%이상 투자 의무
제품·서비스 기부, 기술학교 운영
中·신흥국 등 16개국서 기업 지원



이장희〈사진〉 코트라 글로벌 CSR사업단 단장은 일부 국가의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법제화를 언급하며 글로벌 CSR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기업을 위한 코트라의 글로벌 CSR 지원사업'을 주제로 세 번째 강연자로 나선 이장희 단장은 "인도는 2014년 기업법 개정을 통해 CSR 의무 법제화를 했다"며 "3개년 평균 순익의 최소 2%를 CSR 활동에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도는 자산규모 50억 루피(약 1000억원) 이상이거나 연매출 100억 루피(약 2000억원) 이상, 순이익 5000만 루피(약 1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CSR 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단장은 "인도뿐 아니라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대부분 신흥국이 CSR 의무 법제화나 사회적 책임 관련 조항을 만들어 외자기업의 CSR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트라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CSR 사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단장은 "코트라의 글로벌 CSR 추진 방향은 민간개발원조(PDA)로서 중소기업의 CSR를 지원하고 공적개발원조(ODA)로서 신흥국에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하는 형태"라며 "우리기업 진출이 많은 신흥국과 중국 등 16개국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트라가 주력하는 CSR 지원사업은 △자사제품·서비스 제공 △해외 기술학교 운영 △유휴장비 신흥국 이전사업 △한류스타 CSR △국내외 CSR 포상·포럼 개최 △국내외 CSR 협의체 및 상생협력플라자 운영 등이다.

이 단장은 "자사제품·서비스 제공 사업의 경우 국내 기업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부해 현지 사회문제 해결을 돕는 사업으로, 현지 기관, 바이어, 발주처 등과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지난해에 36개국에서 206개사와 83개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기업 IZ FOG는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수인성 전염병 지역에 방역연무기를 기부하는 CSR 활동을 펼쳐 현지 바이어들에게 제품 인지도를 높였고, 그 결과 미얀마, 오만, 알제리, 방글라데시에서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단장은 "코트라는 해외 기술학교 운영도 지원하고 있다"며 "국내 기관·기업들이 보유한 기술 경험을 신흥국과 공유해 현지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발주처와 유대를 강화해 국내기업의 프로젝트 수주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트라는 지난해에만 27개국에서 76개사 46개 기술학교 운영 사업을 추진했다. 한국전력공사와 K-Water,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은 라오스, 캄보디아 등의 지역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송배전 기술, 상수도 운영기법, 건설기술 등을 공유하는 기술학교를 운영했다.

이 단장은 "소비자, 투자가, NGO(비정부기구) 등 이해관계자들의 CSR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며 "CSR 활동이 기업의 매출과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CSR 활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조언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저성장·저물가·저금리 '뉴노멀' 새로운 환경 CSR가 성장동력이다"

고대권 코스리 부소장



'26개 기업에 벌금 200만 달러, 527개 기업에 속한 공장들 폐쇄, 207건의 생산중지, 147개 기업 관계자의 행정구금.' 이는 지난 4월 11일 중국 환경부가 밝힌 신환경보호법(중화인민공화국환경보호법) 시행 2달 만에 이룬 성과들이다.

고대권〈사진〉 한국SR전략연구소(코스리) 부소장은 14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CSR 국제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신환경보호법을 소개하며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흐름을 집중 조명했다. CSR 물결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지나 이제 중국에 상륙했으며 중국 정부의 강한 CSR 실천 의지가 엿보인다는 이유에서다.

고 부소장은 "신환경보호법의 성과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곧 중국 산업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25년 만에 개정된 신환경보호법은 하루에 부과할 수 있는 벌금의 상한선을 없앴고 정부 민정부서에 등록된 시민단체가 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법과 시민사회, 당국이 함께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규제하겠다는 것.

그는 또 인도네시아, 인도의 CSR도 언급했다. 인도네시아는 2007년, 인도는 2014년에 기업법을 개정했다. CSR를 의무화한 이들 국가는 모두 한국 기업들의 중요한 시장이기도 하다.

고 부소장은 "이들 국가는 CSR를 단순한 '규제'로 인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기관리'나 '명성관리' 차원으로도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사회와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CSR 안에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경영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유가치창출(CSV)도 이러한 관점과 궤를 같이한다"며 "과거의 기업 경영에서 간과됐던 '사회적 가치'가 기업의 핵심역량 및 경영전략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세계 곳곳에서 힘을 받고 있는 것도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문제"라며 "2015 대한민국 CSR 글로벌 컨퍼런스를 통해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의 자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사회적 기업은 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면서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 행복을 나누는
SK의 새로운 생각입니다

사회적 기업 **[행복도시락]**
연예계 미식가 정준하씨도
함께 합니다

영양만점의 도시락을 제공하고
도시락 만드는 일자리와 함께
어려운 이웃들에겐 따뜻한 마음까지 전합니다

이것이 행복을 나누는 SK의 새로운 생각입니다

OK! SK

맛과 영양이 모두 뛰어난 **[행복도시락]**
저 정준하도 추천합니다
단체주문 및 문의전화:1670-6100



KDB생명, 부실대기업 우량 계열사에 투자

산은 2000억 규모 5년만기 PEF
20~30% 경영프리미엄 얹어 인수
5년뒤 매각 수익 투자자에 돌려줘
"저평가 기업에…높은 수익률 기대"

KDB생명이 부실 대기업들이 매각하는 우량 계열회사에 투자하는 사모투자펀드(PEF) 투자에 나선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자산운용 수익률 확보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은 최근 이사회를 통해 산업은행에서 조성하는 KDB기업재무안정 PEF 20호에 투자하기 위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KDB생명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안건이 통과됐지만 아직 투자할 곳이 정해지지 않아 어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할 지는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하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현재 2000억원 규모의 5년만기 KDB기업재무안정 PEF 20호를 조성하기 위해 투자자(LP)를 모집하고 있다. 산은은 이번달까지 LP 모집을 완료하고 6월 초 설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KDB기업재무안정 PEF는 이미 부실해져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하거나 유동성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대기업의 우량 계열사에 투자한다. 기업재무안정 PEF는 대기업들로 부터 20~30%의 경영프리미엄을 얹어 계열사를 인수한 뒤 5년 후 경영 여건이 호전되면 우선매수권을 통해 다시 매입할 수 있게 한다.

만약 대기업에서 계열사 인수를 거부할 경우 시장에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해 거둔 수익을 LP에게 돌려주게 된다.

산은측은 KDB기업재무안정 PEF 20호의 투자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50% 가량 부실기업에 투자한 뒤 나머지 자금은 일반 기업에 분산해 투자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산은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기업재무안정 PEF는 50% 이상 부실징후 기업이나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며"나머지는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를 위해 분산해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하나은행, 은행권 첫 中리스사업 진출

하나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중국 리스 사업에 진출한다. 하나은행은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민간투자회사인 중국민생투자 유한공사와 리스사를 공동 설립한다고 14일 밝혔다. 하나은행과 중국민생투자 유한공사가 공동 설립한 중민국제융자리스는 금융리스업을 영위하는 리스사로서 등록 자본금 30억 위안(약 5280억원)의 금융리스사다. 하나은행은 중민국제융자리스의 지분 25%(약 1320억원) 취득과 이사회 이사 1명, 부사장 1명을 파견하는 등 중민국제융자리스의 경영에 참여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하나은행





'휴대폰보험' 손해율 100% 손보사 울상

작년말 60%…올 1분기 급등
손익분기점 적정수준은 70%
수리비 높은 '아이폰6' 직격탄
'갤S6' 골드 품귀현상도 한몫
중고로 팔고 분실신고 악용

손보사들이 휴대폰보험 손해율 급등으로 울상을 짓고 있다. 올 들어 휴대폰보험 손해율이 급증하면서 손익분기점을 훨씬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월 이동통신(KT·SKT·LGU+) 3사의 휴대폰보험 손해율이 10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익분기점에 적정 손해율인 70%를 훨씬 웃돈 수치다.

실제로 SK텔레콤은 휴대폰보험 손해율이 100%를 넘어섰다. KT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KT는 11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평균 휴대폰보험 손해율은 60%를 기록했지만, 올해 1분기 80%로 급증하더니 4월에는 급기야 100%를 넘어섰다.

이 같이 높은 손해율을 기록한 데는 고가 상품으로 분류되는 아이폰 수리비와 분실에 따른 것이라는 게 손보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아이폰은 다른 스마트폰과 달리 액정 등 부분 수리 및 교체 대신에 휴대폰 전체를 수리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 비용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이폰은 휴대폰보험 손해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아이폰을 적극적으로 파는 KT의 경우 손해율이 더 높다"며"지난해 10월 아이폰6가 흥행에 성공하며 이용자가 많고 출시 이후 7개월이 지나면서 고장 등 수리가 늘어나 손해율이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4월 출시된 '갤럭시S6·엣지 골드' 제품의 품귀 현상까지 더해져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다.

갤럭시S6·엣지는 화이트 펄, 블랙 사파이어, 골드 플래티넘, 블루 토파즈, 그린 에메랄드 등 5가지 모델로 구성돼 있으나 갤럭시S6·엣지를 찾은 고객 중 절반이 골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S6 골드 품귀현상이 분실보험 악용으로 이어진 것이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갤럭시S6·엣지 골드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중고 시장에 팔고 허위로 분실 신고를 해 보험료를 받는 등 '모럴해저드'가 나타나 손해율이 높아졌고 앞으로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정 기자 lmj@

"외환銀 노조, 계획적으로 여론몰이"

하나銀 통합 가처분 심리 앞두고 논란
법원, 양측 대화 판결에 참작 방침
"노조 가입여부·은행출입·임직원 건강
운영상 필수정보… 과도한 수집 아냐"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하나·외환은행 합병과 관련한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 기일을 앞두고 외환은행의 임직원 정보제공 동의 문제가 불거졌다. 외환은행은 회사 운영상 필수적인 수집 정보라고 주장하는데 반해 노조는 직원 감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논란이 빚어진데 대해 외환은행 노조가 법원 심리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는 법원이 노사 양측의 대화하는 것을 보고 판결에 참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외환은행은 13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과도한 정보제공 동의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전일 일부 언론에서 외환은행이 임직원의 건강 정보와 노동조합 가입·탈퇴여부, CCTV 촬영 정보와 은행 출입 정보 등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을 보도한 데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외환 노조는 은행이 지난 2월 개정한 개인정보동의서와 관련해 정보 제공을 필수적으로 동의를 요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인터넷진흥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항목을 요구한 것일 뿐 과도하게 수집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정보 제공 동의를 받고 있고, 사전에 법률적 자문도 받았다고 설명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통합을 위해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오면서 외환은행 노조는 계획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노조는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상의 의지가 없으며, 조기 통합을 원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kkk@

예보 차기 사장에 곽범국·정지원·유광열 등 거론

공모 서류접수 오늘 마감

이달 말 김주현 현 사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신임 사장 공모 서류 접수가 14일 마감된다.

예보는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 전형을 실시해 이달 말께 3배수를 추려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다. 예보 사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신임 사장 후보로 곽범국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정지원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유광열 새누리당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등도 하마평이 오르고 있다.

예보 설립법 제정에 관여한 곽 수석전문위원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사총괄과장으로 예보와 자산관리공사를 담당했었다. 정지원 상임위원은 27회 행정고시를 거쳐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재무부와 금감원, 금융위를 거쳤다.

유광열 수석전문위원은 기재부 국제금융협력국장을 거쳐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기본적인 일정 외의 모든 세부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우람 기자 hura@

현대카드 '이마트 e카드' 출시
모든 가맹점서 신세계포인트 적립

현대카드는 이마트와의 제휴를 통해'이마트 e카드' 5종을 출시했다.

이마트 e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금액에 따라 적립 받아 이마트, 신세계 백화점, 스타벅스 등 신세계포인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신세계 포인트'의 적립 서비스다.

포인트 서비스 외에도 이마트 e카드는 현대카드 슈퍼콘서트, 컬처프로젝트 등 컬처 이벤트 할인 및 현대카드 라이브러리 무료입장 등 현대카드만의 특화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며, 플래티넘 카드는 커피, 영화, 아울렛 할인 및 주말 무료주차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 카드는 2종의 이마트 신용카드, 이마트 Platinum카드, 이마트 MY BUSINESS카드 등 4종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총 5종이 출시되며, 전국 이마트 매장을 비롯해 전용 콜센터, 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윤곽 드러나는 삼성 '모바일 헬스케어'

'스마트 리스닝 디바이스' 준비
보청기 증폭기 사용 소음 제거
무선사업부 맡아 전사적 개발
하반기 해외시장 진출 계획도

삼성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현황
1. '스마트 리스닝 디바이스' 올 하반기 해외 시장 출시
2. 삼성전자 DMC 연구소-미국 '파트너스 헬스케어' 모바일 헬스솔루션 공동개발
3. 삼성전자 SSIC-이스라엘 IoT 스타트업 마이비트앳 모바일 원격 의료 프로그램 공동 개발



삼성전자의 헬스케어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IT와 의료, 바이오 간 융합을 삼성의 신성장동력으로 꼽은 만큼 전사적으로 헬스케어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등 모바일 기기와 연동할 수 있는 '스마트 리스닝 디바이스'를 준비 중이다. 외부 소음을 제거해 보다 나은 리스닝 환경을 제공하는 웨어러블 음향 기기로, 기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헤드폰에 없는 소리를 키워주는 증폭기가 탑재됐다.

보청기에 사용되는 증폭기가 적용됐지만 스마트 리스닝 디바이스는 의료기기 개념보다 모바일 기기와 연결해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타깃 고객도 고령층과 난청 환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다. 하반기 스마트 리스닝 디바이스를 해외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듣는 환경을 개선해 주는 모바일 헬스케어 기기"라며 "제품 준비도 CE(소비자가전)부문 내 의료기기사업부가 아닌 IM(IT·모바일)부문의 무선사업부가 맡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삼성전자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윤곽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핵심 자산인 IT 기술과 향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헬스케어 기능을 결합해 스마트 기기의 활용성을 넓히려는 움직임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미국 '파트너스 헬스케어'와 함께 디지털·모바일 헬스솔루션을 공동 연구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하는 DMC(디지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와 파트너스 헬스케어는 만성적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자신의 몸상태를 IT 기기에 기록하고 이를 병원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 의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양측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임상 연구 등에서 협업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에는 이스라엘의 사물인터넷(IoT) 스타트업 마이비트앳과 고령층의 건강 이상신호 등을 보호자에게 원격으로 전달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합의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삼성전략혁신센터(SSIC)가 개발을 총괄한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서비스와 제품 특성에 맞게 사업부, 연구소, SSIC 등 전사적으로 헬스케어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SSIC는 앞선 3월 중국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선보였다. 손영권 SSIC 사장은 "삼성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은 자기 건강관리의 혁신적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gutjy@

하루 5만 배럴·40년간 8억 배럴 원유 확보

GS에너지, 유전 개발 '잭팟'

국내 유전사업 사상 최대규모
UAE 생산광구 지분 3% 취득
처분권 부여… 7월 국내 직도입

GS에너지가 국내 유전 개발 사업 역사상 단일사업 기준 최대 규모의 원유 매장량 확보에 성공했다.

GS에너지는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생산광구인 '아부다비육상석유운영회사(ADCO)' 생산유전의 조광권 지분 3%를 취득하고 지분에 대한 권리를 40년간 보장받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ADCO는 ADNOC가 지분 60%, 국제 석유회사들이 지분 40%를 보유하며 공동 운영하게 된다. 이번 조광권 국제입찰에서는 GS에너지 외에 프랑스 토탈(10%), 일본 인펙스(5%)가 낙찰됐고, 현재 추가 선정 중이다. ADCO는 UAE 전체 생산량의 절반가량인 하루 약 160만 배럴을 생산 중인 초대형 유전으로 과거 75년간 엑손모빌, 토탈, 쉘 등 글로벌 석유 메이저 회사들만 참여해온 광구다.

GS에너지는 ADCO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 유전개발 사업 역사상 단일사업 기준 최대 규모인 하루 약 5만 배럴, 40년간 약 8억 배럴의 원유 생산량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해당 원유에 대한 처분권도 부여받아 오는 7월부터 국내 직도입이 이뤄져 국가 에너지수급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미 원유가 생산 중인 생산광구로서 탐사 및 개발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 GS에너지는 향후 40년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S에너지는 ADCO 외에도 '아부다비 3개 광구'와 미국 오클라호마 육상 '네마하 광구' 등 기존의 해외 광구사업도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이다. GS에너지는 이와 같은 자원개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GS에너지 나완배 부회장은 "글로벌 석유메이저들만이 참여할 수 있었던 광구에 GS에너지가 참여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정부와 석유공사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가 큰 역할을 했다"며 "GS에너지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 회사의 안정적 수익창출뿐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안보에 기여하는 등 국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신세계百 본점 본관 전체 시내면세점 후보지 선정

신세계는 본점 본관을 면세점 후보지로 낙점한 이유에 대해 수요에 비해 면세점 공급이 절대 부족한 명동 상권의 현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명동에 설치해야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한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재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품격 면세점을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자신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정부 지원에… '임금피크제' 확산되나

'청년 고용+임금피크제' 도입
中企 월 90만·대기업 45만원
현대차 제외 대부분 기업 시행

주요 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 LG전자: 만 55세에서 58세로 연장, 2008년 도입
- GS칼텍스: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 2011년 도입
- 포스코: 만 56세에서 58세로 연장, 2011년 도입
- 제일모직(여수 사업장 일부): 만 55세에서 57세로 연장, 2012년 도입
- 대우조선해양: 만 59세에서 60세로 연장, 2013년 도입
- 삼성전자: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 2014년 도입
- 현대자동차: 2012년 노조 측에 제안 후 답보 상태

정년 연장법 주요 내용
1. 정년 60세 의무 조항으로 변경
2. 300인 이상 대기업 · 공공기관 2016년 1월부터 적용
3. 300인 이하 중소기업 2017년 1월부터 적용

정년 연장의 해법으로 떠오른 임금피크제가 재계에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경기활성화와 재정건전성 강화를 함께 겨냥한 재정개혁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는 데 따른 '청년 고용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임금의 일부로 한 쌍당(임금피크제 대상+청년고용) 최대 월 90만원(중견·중소기업 기준)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최대 월 45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정확한 지원 금액과 기간은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경제단체를 비롯한 재계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위 관계자는 "기업 노사 간 최대 현안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인 만큼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재계는 지난해부터 근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매년 일정 비율로 전년대비 임금을 줄이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왔다. 국내 10대 그룹 중 현대자동차를 제외하고 삼성, SK, LG,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이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삼성은 지난해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생명, 제일모직 등 전 계열사가 만 55세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줄이기로 했다.

LG그룹은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화학 등이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2008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LG전자의 경우 정년을 만 55세에서 58세로 연장하는 대신 53세에서 55세까지 호봉을 동결한다. 이어 56세는 연봉의 90%, 57세는 80%, 58세는 70%를 각각 지급한다. LG디스플레이는 만 53~55세까지는 임금 동결, 56세부터는 매년 10%씩 임금이 줄어든다. LG화학은 만57세를 기점으로 10%씩 임금을 삭감한다.

SK그룹은 SK이노베이션, SK네트웍스 등 주요 계열사가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대신 연봉을 10%씩 매년 줄이고, GS그룹은 GS칼텍스, GS에너지가 만 58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직전 연봉의 80%를 지급한다.

포스코는 57세는 이전 임금의 90%, 58세부터 80%를 지급하고, 현대중공업은 정년 퇴직을 1년 앞둔 59세에 임금 수준이 조정된다. 장효진 기자 js62@

SK이노 18년만에 특별퇴직 정철길 사장 구조조정 속도

정철길(사진) SK이노베이션 사장이 사업구조 재편에 이어 18년 만에 특별퇴직을 시행하는 등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13일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특별퇴직 시행을 임직원들에게 알렸다. 불확실한 경영 환경 아래서 회사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제로 위기를 관리하고자 특별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는 것.

대상은 만 44세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만 44세 미만 가운데 10년 이상 근무자다. 특별퇴직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대 60개월분의 기본급이 퇴직지원금으로 지급되고 5000만원 이내의 자녀학자금 외에 전직·창업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신청은 이번 달 22일까지다.

SK이노베이션 측은 특별퇴직 대상이나 목표 인원 등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구성원들의 자율적 의사에 따르는 만큼 인위적이거나 일방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추가적 인력 구조조정 역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임직원 대상 특별퇴직을 단행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이던 1997년 이후 18년 만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매출 65조8757억원, 영업손실 2241억원을 기록해 1977년 이후 37년 만에 적자를 냈다.

이에 SK그룹 내에서도 손꼽히는 구조조정 전문가로 평가받는 정철길 사장이 구원투수로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에 선임됐고 이때부터 구조조정 가능성이 거론됐다. "'사즉생'의 각오로 구조혁신을 완수하겠다"는 것이 정 사장의 취임일성으로, 사업구조·수익구조·재무구조 혁신을 생존조건의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편, 정유업계는 SK이노베이션의 인력구조조정에 대해 "올 것이 왔다"는 평가다. 한 관계자는 "작년에 다른 정유사들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중에도 SK이노베이션은 변화가 없었다"며 "지난해 단순히 설에 그쳤던 구조조정을 이번에 시행하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KT 이어 LGU+ 데이터 요금제 출시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전격 출시했다. 이 요금제는 음성과 문자가 무제한 제공되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요금 구간을 선택하면 되는 상품이다.

LG유플러스는 음성과 문자를 주로 사용하는'데이터 중심 LTE음성자유' 요금제와 동영상 시청 등으로 인해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고객의 이용패턴에 특화된 'LTE 데이터 중심 비디오(Video)' 요금제 등 모두 13종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14일 내놨다. 가입은 15일부터 가능하다.

'데이터 중심 LTE음성자유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에 따라 월정액 2만9900원부터 4만9900원까지 중저가 요금제 4종과 데이터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5만원대 이상 3종으로 나뉜다.

특히 고가 구간인 5만9900원, 6만9900원, 9만9900원 요금제는 각각 10GB, 15GB, 30GB의 데이터가 기본으로 주어진다. 데이터를 모두 소진할 경우 매일 2GB의 데이터를 속도 제한 없이 제공한다. 이 마저 다 썼을 때에는 3~5Mbps의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한다.

4만9900원 이상 요금제를 선택하는 고객은 5000원 상당의 모바일 IPTV인 'U+HDTV'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동영상 사용량이 많은 고객에 특화된 'LTE 데이터 중심 Video 요금제' 6종도 선보였다. 박성제 기자 psj@

다음카카오 1분기 영업익 404억 20% ↓

다음카카오가 실적 개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 광고와 게임 분야 약세가 실적 하락세를 이끈 반면, 커머스 분야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다음카카오는 1분기 영업이익이 40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줄었다고 14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234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9%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308억원으로 23% 감소했다.

플랫폼별로 보면 광고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0% 증가한 1418억원, 게임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한 700억원, 커머스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167% 증가한 155억원이다. 기타 매출은 7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9% 성장했다. 반면 전분기와 비교하면 광고는 14% 하락했고, 게임은 겨우 2% 성장하는 데 그쳤다.

다만 1418억원의 광고 매출 중 34%가 카카오 플랫폼을 통한 광고와 모바일 검색 광고, 아담(Ad@m), 쇼핑하우 모바일 등 모바일 광고 영역에서 발생했다.

박성제 기자 psj@

'코드제로' 청소기 흡입력 좋아요



LG전자는 전국 주요 LG베스트샵 매장에서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코드제로' 체험존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LG전자는 코드제로의 흡입력과 편리함을 고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LG베스트샵에서 체험존을 운영하고 있다. LG전자 모델이 13일 서울 동교동에 위치한 LG베스트샵 매장의 '코드제로' 체험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창립 10주년 이노션 "글로벌 톱 티어 매진"

해외 네트워크 강화 매년 10% 성장

이노션 월드와이드가 이달 17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2025 글로벌 톱 티어'를 선언했다.

이노션은 14일 현대자동차그룹 인재개발원 마북캠퍼스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갖고, 2025 글로벌 톱 티어 마케팅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안건희 이노션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이노션의 눈부신 성장을 이끈 주역은 다름 아닌 우리 직원들, 즉 사람"이라며 "사람의 혁신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노션만의 차별화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창조적 커뮤니케이션을 선도하는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회사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두바이에 17번째 해외 법인을 설립해 '전 세계 글로벌 거점 확보'라는 1단계 목표를 달성했으며 2025년까지 글로벌 탑 티어라는 2단계 목표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노션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해외사업 확대와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2025년까지 매년 10%의 성장을 이룬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노션의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7447억원 규모다.

이노션은 최근 두바이 미디어 시티에 아중동법인을 설립했다. 아중동법인은 향후 사우디아라비아, 아프리카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허브 역할을 할 방침이다.

한편, 이노션은 창립 기념일에 맞춰 기존 5개 시스템(조직운영 시스템, 보상 시스템, 교육 시스템, 복지 시스템, 환경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은퇴 시스템을 새롭게 선보인다. 김범근 기자 nova@



프로즌부케의 포도복숭아 빙수.

팥빙수? 핫빙수!

예쁘게… 맛있게… 고급스럽게… 제과·호텔업계 신제품 출시 봇물 다양한 토핑·테이크아웃도 가능 금가루 뿌린 호텔빙수까지 다양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오기도 전에 빙수 전쟁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더욱 더 색다르고 예쁜 빙수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살린 '이색 빙수'가 쏟아지고 있는 것. 여기에 특급 호텔들은 경쟁하듯 값 비싼 빙수를 선보이면서 '작은 사치' 열풍까지 불고 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상 5월 중순 경에 시작되는 빙수 신제품 출시가 올해는 4월부터 봇물을 이루고 있다. 올해 더위가 일찍 찾아온 데다가, 업체들이 해마다 성장하는 빙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앞다퉈 출시 시기를 앞당겼기 때문이다. 여름 시즌 빙수는 매출의 평균 30%를 차지하는 일등 효자상품이다. 수익 극대화 효과를 좀 더 길게 누리겠다는 업체들의 계산이 깔려있는 것은 당연하다.

올해 프랜차이즈 전문점에서 쏟아져 나온 빙수는 시각적으로 더욱 예뻐졌고, 맛도 다양해졌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파스쿠찌에서는 최근 부케 빙수 2종을 출시했다. '프로즌 부케' 2종은 전용 테이크아웃 용기에 색색의 눈꽃 얼음과 다양한 토핑을 올려 꽃다발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롯데리아의 엔제리너스는 재료의 다양화를 추구하며 수정과와 콩 등 전통 식재료를 활용했다. 엔제리너스가 최근 선보인 전통 빙수 2종은 쌀시럽과 팥, 콩가루를 함유한 '순수 콩빙수'와 수정과와 달콤한 홍시시럽에 버무린 쫄깃한 감 말랭이가 특징인 '수정과 빙수'다.

카페베네는 눈꽃 빙수를 선보였다. 눈꽃 빙수 8종은 우유 얼음을 바탕으로 메뉴별 특성에 맞는 다채로운 토핑을 올려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눈꽃 빙수 위에는 브라운, 코니 등 라인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초코판을 올려 먹는 재미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빙수전문점 설빙은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컵빙수 '설빙고'를 내놓으며 틈새시장 공략에 나섰다. 티라미스, 치즈케이크 등 조각케이크가 토핑으로 얹어져 있어 푸짐하고 1인용 사이즈로 제작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 우유얼음 위에 카라멜 팝콘, 치즈케이크를 올린 '카라멜치즈 설빙고' 등 다채로운 빙수 메뉴를 갖췄다.

특급호텔들은 고가의 빙수를 선보이고 있다. 디저트에 돈을 아끼지 않은 '작은 사치' 트렌드를 빙수로 옮겨와 고가 빙수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 국내 특급호텔에서 판매되는 최고가 빙수는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의 '돔 페리뇽' 빙수로, 가격은 8만원이다. 럭셔리 샴페인 '돔 페리뇽 2004'로 만든 셔벗과 솜사탕을 올리고, 식용 장미잎과 금가루 등으로 꾸몄다.

롯데호텔 서울은 애플망고 빙수(3만9000원)와 전통 팥빙수(3만2000원)를, 켄싱턴 제주 호텔은 눈 덮인 한라산을 형상화한 제주 한라산 빙수(3만9000원)를 판매하고 있다. 이선애 기자 lsa@



더위 탈출 '옷이 날개'

아웃도어 브랜드 기능성 티셔츠 인기



K2 쿨 360 티셔츠.

여름을 앞두고 아웃도어나 캐주얼 패션 브랜드들이 내놓은 티셔츠 상품들이 돌풍을 일으키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아웃도어 브랜드 K2가 내놓은 '쿨360 티셔츠'가 출시 2주 만에 7000여장이 팔려나갔다. K2는 아웃도어의 비수기인 여름시즌에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더위에 맞춰 발 빠르게 여름 티셔츠 제품을 내놔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3주 만에 1만장을 넘어설 것으로 업체 측은 추산하고 있다.

이 제품은 열을 흡수하고 저장, 방출하는 상변환물질(PCM)로 이루어진 '마이크로 캡슐'이 내장되어 있어 온도가 올라가면 열을 흡수, 시원하고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또 등판에는 각기 다른 크기의 통기 구성을 지닌 메시 소재를 사용, 땀을 빠르게 흡수해 배출하는 기능을 더욱 향상시켰다. 특히 다양한 스포츠 활동과 일상에서도 착용할 수 있도록 긴팔형, 반팔형, 짚티형, 폴로형, 라운드형 등 다양한 스타일로 출시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K2 관계자는 "올 여름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일상이나 운동할 때에도 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 기능성을 더한 것이 고객들에게 어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 제일모직이 출시한 티셔츠 '빈폴 딜라이트 리넨'은 3주 만에 1만장이 넘게 팔렸다. 제일모직은 "지난달 17일 출시한 빈폴 딜라이트 리넨 판매량이 역대 제일모직 패션 상품 중 가장 짧은 시간에 1만장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1990년대 중후반 출시 3주 만에 5000장이 팔렸던 빈폴 더플코트의 기록을 20년 만에 경신한 것.

제일모직이 18개월 동안 연구·개발 끝에 출시한 빈폴 딜라이트 리넨 제품은 리넨(linen·마소재 직물)에 화학섬유인 폴리에스테르를 섞어 리넨의 단점인 구김을 크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소비자들은 고급스러움과 캐주얼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도 편안하고 혁신적인 소재를 적용한 이 제품에 열광했다.

삼성패션연구소 최영진 책임연구원은 "올해도 소비자들이 부드럽고 편안한 무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캐주얼은 물론 남성복, 골프 등의 다양한 복종에서 리넨과 같은 천연 소재들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윤철규 기자 yoonck@

삐약삐약… "히요코만주 맛보세요"



현대백화점은 15일부터 19일까지 '병아리빵'으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일본 수제 만주 '히요코만주'를 압구정본점, 무역센터점, 킨텍스점에서 처음 선보인다. 5대에 걸쳐 100년이 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히요코만주는 일본 대표 전통 베이커리 전문점으로 이 회사가 해외 판매를 진행하는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모델들이 히요코만주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백화점, 내일부터 해외명품 시즌오프

198개 수입브랜드 최대 50% 할인

국내 백화점업계가 일제히 해외명품 브랜드 시즌오프 행사에 돌입한다. 작년보다 물량은 최소 20% 이상 늘었다.

롯데백화점은 15일부터 다음 달까지 순차적으로 198개 해외명품 브랜드의 시즌오프(계절마감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봄 행사 때보다 참여 브랜드가 43개 늘었다.

15일 마이클코어스·모스키노·레베카밍코프 등 3개 브랜드를 시작으로 22일 코치·에트로·멀버리·투미·비비안웨스트우드 등이 참여한다. 29일에는 토즈·마크 제이콥스·에스티듀퐁·끌로에·랑방 등이 시즌오프 상품을 선보인다. 소비자는 지난 시즌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

김지은 롯데백화점 해외패션 부문장은 "이번 행사에서 원피스와 샌들 등 여름철 물량을 작년보다 20% 이상 늘렸기 때문에 고객들이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브랜드 별로 행사 일정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고 행사 시작일에 매장을 방문하면 합리적 가격에 명품을 구매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도 지난해보다 30개 늘어난 148개 브랜드의 시즌오프 행사를 열고 정상가보다 10~30%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판매한다. 15일 마이클코어스 등 3개 브랜드를 시작으로 22일 멀버리·비비안웨스트우드, 29일에는 끌로에·랑방·토즈 등이 행사에 참여한다. 현대백화점은 브랜드별 재고 소진을 위해 행사 물량을 지난해보다 20% 늘리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이번 시즌오프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패션 브랜드의 이월상품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무역센터점은 18~21일 '질샌더 그룹 패밀리 세일'을 열어 브랜드 제품을 50~70% 저렴하게 선보이고, 압구정본점은 19~21일 '수입의류 특집전을 통해 지앤알모다·존스메들리 등 8개 브랜드 이월상품을 30~50% 할인 판매한다.

신세계백화점도 15일 레오나드·파비아나필리피·오일릴리 등의 브랜드를 시작으로 해외 브랜드 시즌오프에 돌입한다. 22일부터는 프리마클라쎄와 막스마라·가이거가, 29일부터는 랄프로렌블랙과 센존·질샌더·아크리스가 올해 봄·여름 시즌 제품을 30% 저렴하게 내놓는 등, 51개 브랜드가 6월 초까지 차례로 시즌오프 행사를 벌인다. 이선애 기자 lsa@

'뉴스테이' 수도권 4곳 5529가구 첫 공급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주택 '뉴스테이' 공급 계획 (올해 착공, 2017년 입주 예정)

※괄호는 발코니 확장(사업자 부담) 등을 포함한 실사용 면적 ※자료 : 국토교통부



인천 도화동

전용면적	가구수	임대료(주변시세)
59㎡	548	보증금 5000만원, 월 43만원(5천/48만)
72㎡	621	보증금 6000만원, 월 48만원(6천/49만)
84㎡	938	보증금 6500만원, 월 55만원(6.5천/57만)



서울 신당동

전용면적	가구수	임대료(주변시세)
25(32)㎡	359	보증금 1000만원, 월 65만원(1천/63만)
31(43)㎡	330	보증금 4000만원, 월 75만원(4천/77만)
59(77)㎡	40	보증금 1억원, 월 100만원(1억/111만)



서울 대림동

전용면적	가구수	임대료(주변시세)
29(35)㎡	76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1천/63만)
35(54)㎡	111	보증금 1000만원, 월 100만원(1천/100만)
37(57)㎡	104	보증금 1000만원, 월 106만원(1천/106만)
44(68)㎡	2	보증금 1000만원, 월 110만원



수원 권선동

전용면적	가구수	임대료(주변시세)
59㎡	158	보증금 3000만원, 월 70만원(3천/69만)
74㎡	926	보증금 5000만원, 월 75만원(5천/75만)
85㎡	1,316	보증금 6000만원, 월 80만원(6천/80만)

'서울' 신당·대림, '수원' 권선, '인천' 도화
민간제안 리츠로… 7월부터 모집 시작
月 최고 110만원… 시세보다 약간 비싸
정부 "각종 서비스·2년 후 입주… 싼 편"
초기 임대료 규제없어 '기업특혜' 논란도

정부는 올해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수도권에 55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 도화동, 서울 신당동·대림동, 수원 권선동 등 4개 지역에 공급되며, 올해 안에 착공할 예정이며, 입주자는 오는 7월부터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대한주택보증 여의도 사옥에서 열린 뉴스테이 정책 설명회에서 서울 신당동에 729가구, 대림동에 293가구, 인천 도화동에 2107가구, 수원 권선동에 2400가구 등 5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이 구상하고 국민주택기금에 공동 투자를 제안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국민주택기금이 4개 사업장의 총 사업비인 1조8000억원의 20% 수준인 3000억원 규모로 출자한다. 대림산업을 비롯해 한화건설, 반도건설 등도 참여한다.

이 사업지들의 임대료는 시세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게 책정됐다. 인천 도화지구 임대주택은 72㎡형이 보증금 6000만원에 48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약 1만원 저렴하며 수원 권선지구 59㎡형은 보증금 3000만원에 70만원으로 주변 임대주택 월임대료 69만원보다 비싸다. 서울 신당동 59㎡형의 경우 보증금 1억원에 월 100만원으로 책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경우 각종 서비스 혜택이 많은 데다 2년 후 입주시점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제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가사 도우미, 아이돌봄 외에 컨시어지(택배·구매대행, 심부름 등 서비스) 등의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금액은 임대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가 이번 임대리츠로 뉴스테이 정책이 본격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테이법이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지적과 함께 국토부가 임대주택리츠 초기 임대료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초기 임대료 규제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민간 사업인 만큼 사업성 확보가 중요해 임대료 규제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임대주택특별법 추진이 오히려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도 적지 않다. 이번에 공급되는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현행법에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들 4개 사업지의 경우 사업성이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기금의 일부 출자만으로도 사업성이 나오지만 이처럼 사업성이 있는 사업지는 법 개정 없이는 나오기가 어려워 임대주택특별법을 통해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경진 기자 jungkj@

'통영 한양수자인' 844가구 분양

황리지구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3000가구 대단지 계획… 1차분



'통영 한양수자인' 조감도.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과 함께 빠른 사업 추진이 실수요자들의 구미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공급이 증가한 한편 조합원 모집에 성공하는 사례도 많아졌다.

이에 경남 통영 황리지구 내 광도면 황리 1365번지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통영 한양수자인'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관심을 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황리지구 내 최고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3000가구 대단지로 이달 말 모델하우스 오픈을 시작으로 1차 844가구가 분양 예정이며 2차, 3차는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다.

조선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통영시는 그 동안 개발이 지연된 산업단지개발이 대기업(포스코, 삼성, 현대산업개발)의 참여로 본격화되고 있다.

시행사인 세방에스비 최정식 부사장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황리지구는 통영 미니신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되고 있다"면서 "분양 예정인 '통영 한양수자인'은 황리지구에서도 최고의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지 인근에 통영산업단지, 고성산업단지, 죽림신도시 등이 있고 안정국가산업단지, 성동조선해양, 가야중공업, 한국가스공사가 위치해 있어 향후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 모델하우스 오픈을 시작으로 분양 예정인 '통영 한양수자인'은 지하 1층~지상 20층 14개동으로 1차분 844가구가 공급된다. 입주 가구 수와 수용 인구를 감안해 단지 내 초등학교가 신축 예정이며 대형마트, 스포츠센터, 은행, 학원, 병원, 찜질방 등 생활 문화 편의시설 또한 계획돼 있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신혼부부들 내집 마련 "다세대·연립으로"

분양시장 회복세… '아파트 전세 살바엔'
서울 1~4월 6526건 2009년이후 최고치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서울에서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연립주택의 매매거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전세 수요가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빌라 분양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별로는 △1월 2922건 △2월 3005건 △3월 5431건 △4월 6526건을 기록했다. 5월은 지난 13일 기준 2055건을 기록 중이다.

이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1~4월 거래건수를 넘어선 수치다. 부동산 호황기였던 2007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최고치였던 2014년의 거래량을 뛰어넘었다. 작년 거래량은 1월 2024건, 2월 2887건, 3월 3762건, 4월 3757건, 5월 3526건으로 집계됐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아파트와 함께 다세대·연립주택 시장도 분위기를 타고 있다"며 "아파트 전세 수요층이 물량을 구하기 쉽지 않자 저금리에 대출받아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PB센터 팀장은 "전세난에 지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저렴한 빌라를 사려고 하는 다세대·연립주택 수요자 고착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여기에 단독주택을 매입해 연립주택으로 새로 지어 공급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특히 신규 빌라를 분양하는 주택업자들의 왕성한 활동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진 기자 tjpippo@

수원 호매실 등 단지내 상가
LH, 수도권 5곳 18개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원호매실, 화성남양뉴타운, 미사강변도시 등 수도권 5개 지구에서 단지내 상가 총 18개 점포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LH 단지내 상가는 주로 택지개발지구 내 대규모 단지를 배후에 두고 있고 배후 아파트 규모에 비해 점포수가 적어 상권이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최근 초저금리 바람을 타고 수익형 상가로 뭉칫돈이 몰리고 있어 경쟁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신규 공급하는 수원호매실 A-8블록, 화성남양뉴타운 A-3블록, 하남미사 A5블록, A16블록 단지내 상가는 접근성이 뛰어난 단지 주출입구에 건축돼 유동 고객층 확보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 외 재분양 공급되는 화성향남2, 오산세교지구 2개 점포도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고 현재 입점이 가능해 분양과 동시에 수익을 올릴 수 있어 빠른 투자 회수가 가능한 만큼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LH 5월 수도권 분양 단지내 상가 목록

대상	호수	전용면적(㎡)	예정가격(천원)	입점(예정)시기
수원호매실 A-8블록	101	28.78	171,090	2016.02
	102	28.78	170,350	
	103	28.78	174,250	
남양뉴타운 A-3블록	101	31.2	145,840	2016.06
	102	31.2	153,160	
오산세교 C-3블록	102	53.29	139,080	현재가능
화성향남2 A-2블록	104	39.69	159,000	
하남미사 A5블록	101	33.6	특별공급	2015.1
	102	33.6	331,000	
	103	33.6	331,000	
	104	33.6	331,000	
	105	33.6	특별공급	
	201	33.6	156,000	
	202	33.6	149,000	
	203	33.6	149,000	
	204	33.6	152,000	
하남미사 A16블록	101	37.8	351,000	2015.1
	102	37.8	351,000	
	103	37.8	351,000	
	104	46.2	446,000	

한편 공급일정을 살펴보면 입찰 5월 18~19일, 개찰 19일, 재입찰 20일 실시 예정으로 LH분양임대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을 통한 전자입찰로 참여 가능하다.

구성헌 기자 carlove@



"지방부채 해소·경기부양" 中의 승부수

재정부·인민銀·은감위 은행 지방채 담보 대출 이번주 '공동지침' 내려

"지방정부 채무부담 덜고 개인·기업들 자금 숨통"



중국이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과 경기 부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팔을 걷어붙였다.

중국 재정부와 인민은행,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위)는 이번 주 초 지방정부 채무 상환 부담을 덜고 시중은행의 대출을 독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지침'을 내렸다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새 지침은 시중은행들이 지방채를 사고 나서 이를 담보로 인민은행으로부터 저리의 장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지방채 투자를 유인하고자 새로 발행하는 지방채 금리를 비슷한 만기의 국채 금리보다 낮게 설정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방정부는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채무를 새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상환할 수 있게 하고 시중은행들이 기업과 개인에게 더 많이 대출하도록 독려하려는 의도다.

이날 발표된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고정자산 투자 등 경제지표가 일제히 부진하고 시중 유동성 공급도 시원찮은 상황이어서 경기둔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미 인민은행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3차례, 은행 지급준비율(지준율)을 두 차례 각각 인하했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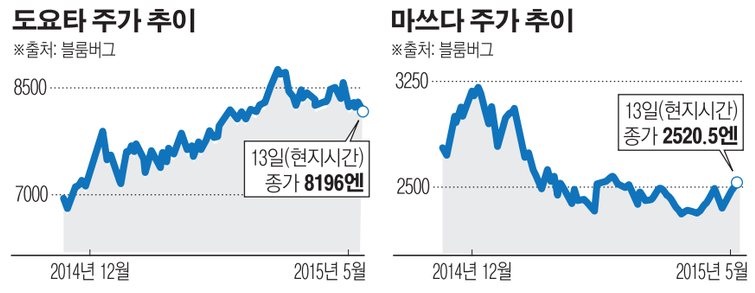
중국의 지난달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6.2%, 소매판매는 10.0% 각각 증가해 시장 전망인 6.3%와 10.4%를 모두 밑돌았다. 지난 1~4월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로 15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을 나타냈다.

지난달 신규 위안화 대출은 7079억 위안(약 125조2300억원)으로, 전월의 1조1800억 위안에서 감소했고 광의통화(M2) 증가율은 10.1%로, 11.9% 증가할 것이라던 기대에 못 미쳤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0%로, 2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잡았으나 이마저도 지키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관계 부처들이 모두 나서 경기둔화를 막기 위한 비상대책을 펼치고 있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리커창 총리가 수장인 국무원이 재정부와 인민은행, 은감위에 지방정부 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공동지침에는 '매우 시급함(extra urgent)'이라는 표현이 붙어있어 정부가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는지 시사했다고 WSJ는 강조했다.

UOB케이히언홀딩스의 주차오핑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시중은행에 낮은 비용의 자금조달 창구를 제공하는 한편 대출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이는 양적완화와 비슷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평가했다.

선젠광 미즈호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부가 전면적인 금융완화정책을 펼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는 지난 2008년 펼쳤던 4조 위안 규모 경기부양책과 맞먹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도요타·마쓰다 '적과의 동침'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한뜻 친환경 기술 포괄적 협력

일본 자동차제조업체 도요타와 마쓰다가 적과의 동침을 시작했다.

13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자동차판매 세계 1위인 도요타자동차와 마쓰다가 점차 강화되는 선진국의 환경규제와 신흥국에서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기술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력하는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이번 제휴를 통해 도요타와 마쓰다는 변속기와 엔진을 공동 개발하게 된다. 양사는 도요타의 연료전지차와 가정에서 충전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기술과 마쓰다의 고출력, 저연비를 실현하는 '스카이액티브' 기술을 공유해 세계 시장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마쓰다는 도요타의 하이브리드차 기술을 이전받아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이 드는 개발 프로젝트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마쓰다는 1250억 엔(약 1조1568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고연비 엔진기술 개발만으로도 어려움을 겪어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힘든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도요타 역시 연간 수조 엔을 기술개발 비용에 투자하고 있으나 하이브리드 등 미래 차종에 국한돼 신흥국 시장에 대비하기 위한 저가 엔진 개발 등에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환경 문제와 관련해 자동차 업체에 전기자동차나 연료전지차 판매 대수를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중국 등 신흥시장에서도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하는 추세다.

한편, 이번 도요타와 마쓰다의 제휴가 엔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양사는 지난해 엔저 현상에 힘입어 기록적인 실적으로 달성했다. 특히 도요타는 2년 연속 사상 최대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달성했다. 2014 회계연도의 매출은 27조2340억 엔, 영업이익은 2조7500억 엔이었다. 순이익은 2조1730억 엔으로 일본 기업 중에선 최초로 순이익 2조 엔을 돌파했다.

일각에선 양사가 제휴를 통해 시장을 개척하려면 업계의 '치열한 경쟁'이라는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3일 일본 주식시장에서 도요타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06% 빠진 8196엔으로 마감했다. 반면 마쓰다는 0.46% 오른 2520.5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세계 인터넷 IP주소 고갈 임박

현재 'IPv4' 규격 43억개 한계 기업들 'IPv6' 업그레이드 시급

세계의 인터넷 주소가 바닥날 위기에 직면했다.

미국은 올 여름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IP 주소)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아시아는 이미 실질적으로 지난 2011년 IP 주소가 떨어졌고 유럽은 1년 뒤 그 뒤를 따랐다. 이제 미국도 주소가 고갈되기 일보 직전인 셈이다.

인터넷 시대의 여명기인 1981년 엔지니어들이 자발적으로 43억개의 주소를 창출할 수 있는 'IPv4' 규격을 만들었으나 이 버전의 주소가 이제 떨어져가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남아있는 주소는 약 340만개에 불과하다.

IP 주소 고갈은 통신업체들이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전화번호가 다 떨어졌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라고 WSJ는 설명했다. IP 주소는 전화번호처럼 숫자로 돼 있으며 도메인 주소와는 다르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www.facebook.com이라고 치면 실제로는 66.220.149.32라는 IP 주소에 접속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에 인스타그램 사진을 올리거나 사물인터넷 기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할 때도 IP 주소가 쓰인다고 WSJ는 덧붙였다.

특히 많은 IT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는 지금 IP 주소 고갈은 예기치 못한 비용 증가나 새 고객 확보 실패 등의 리스크를 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고갈에 대비해 미리 IP 주소를 사들였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 2011년 당시 파산한 네트워크업체 노르텔로부터 66만6624개의 IP 주소를 750만 달러(약 82억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11월 세일즈포스닷컴도 26만2144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이 이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IT 컨설팅업체 Dyn의 제임스 코위 수석 사이언티스트는 "기업들이 IP 주소가 고갈됐을 때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IP 주소 고갈에 대비해 1998년 'IPv6'가 승인됐다. 이는 지구 상의 모든 원자 하나하나에 주소를 붙일 정도의 시스템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IPv6'로 업그레이드하려면 새 네트워크 장비를 사들여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이다. 리서치업체 가트너는 업그레이드 비용이 기업 연간 IT 예산의 약 7%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전 세계 IP 주소 가운데 'IPv6'로 업그레이드한 것은 약 9%에 불과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배준호 기자 baejh94@

텐센트, 글로벌 모바일게임 넘본다

美 '포켓젬스' 지분 20% 인수 앞서 韓·日 게임사 지분 투자

중국 인터넷서비스 기업인 텐센트홀딩스(텐센트)가 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을 넘보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13일(현지시간) 텐센트가 미국 모바일게임 스타트업인 '포켓젬스'의 지분 20%를 6000만 달러(약 658억6800만원)에 인수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텐센트가 세계 모바일 게임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텐센트는 미국 모바일 게임회사 '글루모바일'에 1억2600만 달러를 투자해 지분 14.6%를 매입했다. 또 한국 CJ게임즈의 지분 28%를 5억 달러에 매입하며 3대 주주에 등극했고 일본 게임사 에이밍에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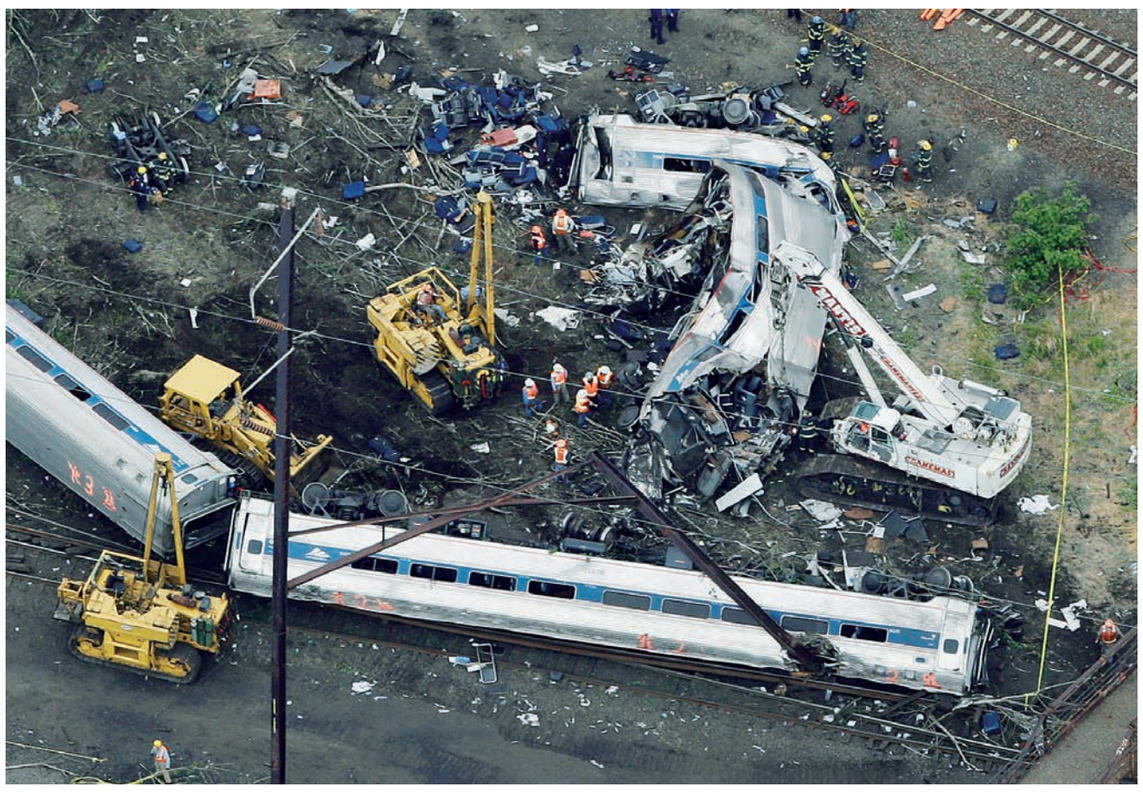
지난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설립된 포켓젬스는 미국 벤처캐피탈 회사인 세콰이어캐피탈의 지원을 받고 있다. 회사의 모바일게임은 주로 캐주얼게임이었다.

포켓젬스가 최근 발표한 게임인 '워드래곤(War Dragons)'은 3D그래픽 기술을 바탕으로 일반 캐주얼게임 이용자들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는 마니아층을 형성하게 했다.

텐센트의 글로벌 파트너인 포켓젬스와 글루모바일 등은 중국에서 모바일 게임에 대한 지배적인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텐센트의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발표된 텐센트의 1분기 순이익은 사상 최대를 달성했다. 지난 1분기 텐센트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68억8000만 위안(약 1조2080억원)으로 시장의 전망치인 67억 위안을 웃돌았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종잇장처럼 구겨진 열차

미국 필라델피아 시 리치먼드의 철로변에 13일(현지시간) 미국 유일의 철도회사인 암트랙(Amtrak) 열차가 종잇장처럼 구겨진 채 널브러져 있다. 전날 밤 워싱턴을 출발해 뉴욕으로 향하던 이 열차는 승객 238명과 승무원 5명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커브가 심한 프랭크포드 교차점에서 규정 속도를 어기고 달리다가 탈선해 최소 6명의 사망자와 200여 명의 부상자를 냈다. 암트랙을 운영하는 전미여객철도공사는 알래스카, 하와이,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주를 제외한 46개 주 500여 개의 도시를 연결하는 2만2000여 개의 선로를 보유하고 있다. 필라델피아/AP연합뉴스

페이스북도 최저임금 올렸다

경비·음식·청소 등 서비스 하청직원 최저 시급 15달러로 인상하기로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페이스북이 최저임금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페이스북은 경비와 음식, 청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청업체 직원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저 시급을 15달러(약 1만6500원)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1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지 포춘이 보도했다.

셰릴 샌드버그 페이스북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전날 블로그를 통해 회사의 이런 방침을 밝혔다. 회사는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복지혜택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하청업체 직원들도 최소한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나 병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페이스북은 이미 캘리포니아주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이달 1일부터 새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이 공공 영역에서 최근 자주 등장하는 이 이슈(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이후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연방정부 최저임금 7.25달러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인 공화당의 반대에 발이 묶인 상태다.

페이스북 최저임금은 연방정부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은 물론 미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다고 포춘은 분석했다. 포춘에 따르면 미국에서 수위 평균 시급은 현재 10.73달러, 경비원은 11.55달러, 식당 서빙 종업원 8.84달러, 요리 보조는 9.28달러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월마트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이 올들어 직원 최저임금을 인상하거나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유급병가를 허용하는 등 복지를 강화하는 추세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애플 기업가치 1453억 달러 '세계 1위'

포브스 발표, 삼성전자는 7위

애플이 세계에서 최고의 가치를 보유한 기업으로 선정됐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13일(현지시간) '기업가치가 높은 세계 100대 기업' 순위를 발표했다. 해당 순위에서 애플은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오른 7위로 한국 기업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애플의 기업가치는 1453억 달러(약 159조5103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4년 대비 17% 증가한 것이다. 삼성의 기업가치는 379억 달러로 집계됐다.

포브스는 지난해 4분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이 7048만대를 팔아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삼성의 판매량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애플의 2014 회계연도 4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180억 달러에 달했다.

애플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기업은 평가가치가 전년 대비 10%가량 늘어난 693억 달러로 집계된 마이크로소프트(MS)다. 3위는 656억 달러인 구글이며 그 뒤를 이어 코카콜라(560억 달러), IBM(498억 달러) 등이 차지하며 상위 5위권에 들었다.

삼성보다 한 계단 높은 6위는 맥도날드(395억 달러)가 차지했고 도요타(378억 달러), 제너럴일렉트릭(375억 달러), 페이스북(365억 달러)이 10위권에 포함됐다.

삼성 외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100위 안에 들었다. 현대차의 기업가치는 84억 달러로 64위, 기아차(62억 달러)는 97위를 각각 기록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신장섭 싱가포르국립大 교수, 삼성 수요사장단회의 강연서

"제2 삼성 만들기, 싱가포르에 답 있다"

해외 고급인력 유입 '이민 정책'
글로벌기업 유치 '세제 혜택' 등
자국 기업 이탈방지 노력 설명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에서 제2의 삼성을 만들기 위해 싱가포르의 경제 정책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13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수요 사장단 회의에서 '싱가포르와 한국-다른 모델, 비슷한 성공,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날 신 교수는 경제성장을 위해 싱가포르 정부가 펼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신 교수는 "싱가포르는 제조업 기반 상실이 국가 안보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제조업 성장률(7% 이상)과 국내총생산(GDP) 제조업 비중(25%) 유지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통화 당국(MAS)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올해 2~4%의 완만한 경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싱가포르는 올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1%를 기록하면서 0.2%에 불과했던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아울러 1분기 중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도 2.1%로 정부 전망치에 부합했다.

더불어 신 교수는 "싱가포르 정부가 해외 고급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세제 혜택 등을 설명했다.

신 교수는 싱가포르 정부의 이러한 지원 정책이 값 싼 노동력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는 인접국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경쟁하기 위한 조처로 해석했다.

아울러 '제조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동남아시아 등지로의 자국 기업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했다.

신 교수는 국내 산업이 제조업 공동화 현상으로 위기를 맞을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도 각종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교수는 삼성의 제조 기술을 높게 평가하고, 이 같은 기업이 또 만들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신 교수는 싱가포르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 중 하나로 강력한 부패 방지 활동을 꼽았다.

신 교수는 지난해 8월 대우그룹 기획 해체설을 담은 '김우중과의 대화: 아직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를 출간해 화제가 됐다. 그는 김우중 전 회장의 입을 빌려 1999년 대우그룹 파산이 고위 관료들에 의한 의도적인 해체라고 주장했다.

장효진 기자 js62@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에 참석한 양국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 회장, 벳쇼 코로 주한일본대사, 사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렌 회장, 소마 히로히사 일본경제공사. 신태현 기자 holjjak@

"垈 넘어 세계 경제 견인 새로운 50년 열어 가자"

韓日경제인회의
양국 재계 인사 300여명 참석
경제협력 통한 공동번영 다짐

한국과 일본의 재계 주요인사 300여명이 모여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논의하는 한일경제인회의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개막했다.

1969년부터 시작해 올해 47회째를 맞은 한일경제인회의는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는 대표적인 한·일간 민간 경제회의다.

이날 개막 행사에는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삼양홀딩스 회장),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일본경제단체연합회장 등 한·일 경제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은 개회인사에서 "양국이 협력해 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측 대표인 사사키 미키오 일한경제협회장은 한·일 국교정상화 50년을 강조하며 "새로운 50년을 위한 협력을 통해 양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경제를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양국 경제협력을 다원화하고 동아시아 공동경제권 등 경제통합 논의에서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저성장 시대를 맞아 양국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일 양국의 젊은 경제인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만 기자 redpill@

"구직자도 구인기업도… 취업 길잡이 역할 감사"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개막 전부터 취준생 인산인해

"졸업은 다가오는데 불안하죠. 구직 정보를 얻기 위해 박람회를 찾았습니다."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KB굿잡을 찾은 대학 졸업예정자 김민정(24)씨의 얘기다. KB국민은행 주관으로 14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는 개막 전부터 일자리를 구하려는 구직자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일찍부터 진로를 결정하는 특성화고 학생부터 구직을 위해 졸업까지 미루는 'NG(No graduation)족', 제대를 앞둔 군인, 실버 취업을 꿈꾸는 은퇴자들이 저마다의 꿈을 안고 박람회장을 찾았다. 4월 청년실업률 10.2%. 통계로만 보던 15년 만의 청년 실업률이 실감나는 현장이었다.



KB국민은행 주관으로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 졸업예정자, 제대를 앞둔 군인, 은퇴자 등 취업 희망자들이 대거 몰려 성황을 이뤘다. 박람회는 14일까지 열린다. 사진제공 KB국민은행

직무 수행과 관련된 언어력과 수리력·추리력·공간지각력 등을 검사하는 직무적성검사와 자신에게 어떤 직업이 적합한지를 상담받을 수 있는 진로컨설팅관 등은 개막 시작과 함께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취업 후 대학교 진학을 계획하는 특성화고 3학년 홍현정(19) 학생은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고 싶어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박람회장을 찾았다"며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에 대한 학업상담과 현장감 있는 구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KB굿잡을 통해 의료기기 전문 제조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 취업에 성공한 김푸름(25)씨는 "다양한 분야의 구인기업이 참여해 선택의 폭이 넓었다"며 "특히 취업 준비에서부터 박람회 참여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까지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해줬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그러나 입사지원서를 받는 형식적인 접수창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불만도 곳곳에서 나왔다. 너무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하다 보니 취업 상담의 질이 낮다는 지적이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영원한 2인자' JP 일대기 사진화보집 출판기념회

오늘 세종문화회관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일대기 사진을 담은 화보집과 만화가 잇따라 출간된다.

김 전 총리는 두 번의 국무총리와 9선 국회의원, 자유민주연합 총재를 지냈다. 풍부한 경험과 노련함으로 '정치 9단'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또 오랜 기간 요직을 거치며 정권의 2인자 자리에 있으면서도 대통령의 꿈은 끝내 이루지 못해 '영원한 2인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김 전 총리의 아호를 딴 운정기념사업회(가칭)는 14일 오후 2시 30분 세종문화회관에서 김 전 총리의 유년시절부터 정계를 은퇴할 때까지의 사진을 모은 '운정 김종필-한국 현대사의 증인 JP 화보집' 출판기념회를 연다.

600여쪽의 분량에 700여장의 사진이 들어간 화보집에는 다섯 살배기 시절의 '어린 JP'에서 두 번의 총리 역임, 자민련 창당을 통해 왕성한 정치 활동을 벌였던 노정객의 일대기가 고스란히 담겼다.

박근혜 대통령의 영애 시절 고 박정희 전 대통령, 고 육영수 여사와 같이 촬영한 사진도 선보인다.

오는 27일에는 JP의 일대기를 담은 만화 '불꽃'의 출판기념회가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다. 비영리사업가인 황선우씨가 기획한 '불꽃'은 부여 출신의 유명 만화작가 김형태씨가 집필한 300쪽 분량의 전기물이다. '불꽃'에는 김 전 총리의 군 복무 시절과 자유민주연합 총재, 국무총리 시절까지 40여년의 정치 역정이 만화로 담긴다.

김의중 기자 zerg@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국무조정실장실 비서관 박상철 △기획총괄정책관실 정책관리과장 손진욱 △〃 국정상황총괄과장 방진아 △일반행정정책관실 의정과장 박영두 △개발협력정책관실 개발협력기획과장 정은영 △주한미군기지이전지원단 정책조정팀장 최영진 △국정과제관리관실 평가총괄과장 정일황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정책과장 김희순 △공직복무관리관실 기획총괄과장 한경필 △〃 점검팀장 나관주 △재정금융기후정책관실 경제총괄과장 장영현 △제주특별자치도정책관실 총괄기획과장 정병규 △사회복지정책관실 사회정책총괄과장 윤순희 △〃 저출산고령사회과장 이병우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여성가족아동과장 양찬희 △안전환경정책관실 안전관리팀장 신강민 △민정민원비서관실 민정기획행정관 이장호 △시민사회비서관실 민관협력행정관 서문수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 파견 김진남

◆벤츠 코리아 △신임 대표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유리치투자자문 ◇임원 선임 △회장 전오종 △대표이사 이수창 △경영기획본부장 조승관

◆동양건설산업 〈승진〉 △건설사업본부장 부사장 김정회 〈선임〉 △토목담당 이사대우 홍성태 △개발담당 이사대우 박춘서 △토목영업담당 이사대우 이지환 △경영관리담당 이사대우 신기호

부음

▲정태구씨(대우상사 회장)별세, 정진양(주식회사 이제 대표이사)·재훈(하이투자증권 부장)·연우씨 부친상, 최진우(C&I 마케팅솔루션 대표이사)씨 장인상, 곽은영·김나연(IBK기업은행 대리)씨 시부상 = 12일, 고대안암병원, 발인 15일 오전 9시, 02-923-4442

▲김은묵(전 뉴서울상사 회장)씨 별세, 김주현(신의정 대표이사 사장)·재욱(회계사)·기환(뉴욕총영사)씨 부친상 = 1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7일 오전 9시, 02-3410-3151

▲이걸성(성현세무회계사무소 대표)씨 부인상, 이기일(한전병원 이비인후과 주임과장)·기현(한국가스공사 서울지사 대리)씨 모친상, 이선민(헤븐리병원 신경과 과장)·원종선(김앤장법률사무소 근무)씨 시모상 = 1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 오전 9시, 02-3410-6914

▲심선진(가천대 길병원 혈액종양내과 부교수)·선종(삼휘축산 대표)·선호(현대로템 선임연구원)씨 모친상 = 13일, 전남 목포 효사랑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10시, 061-242-7000

▲백인옥(전 한국외대 독일어학과 박사)씨 별세, 백형기(한성교회 담임목사)·영기(경기취업센터장)·명기(신화디앤엠 전무이사)씨 누님상, 백인화(서울시 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장)씨 언니상 = 1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5일 오전 10시, 02-3010-2233



신한은행, 부서장 배우자 초청 뮤지컬 '드림걸즈' 관람

신한은행은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샤롯데씨어터에서 부서장 배우자 900여명을 초청해 뮤지컬 '드림걸즈'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조용병 행장은 "가족의 밝은 미래와 은행의 발전을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부서장들께서 리더로서 솔선수범하며 직원들을 훌륭히 이끌어 주고 있다"며 "신한의 발전을 이끌어낸 그들의 노력은 곁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내조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kkk@

나폴레옹 조카의 '핑크 다이아' 174억원에 낙찰



나폴레옹의 조카 마틸드 보나파르트 공주가 한때 소유했던 8.72캐럿 핑크 다이아 반지가 12일 제네바 소더비 경매장에서 1590만 달러(약 174억3600만원)에 팔렸다. 제네바/뉴시스

포스코1%나눔재단, 네팔 구호 성금 10만 달러



포스코1%나눔재단은 네팔 지진 피해 구호를 위한 성금 10만 달러를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고 14일 밝혔다.

네팔은 지난 4월 25일 진도 7.8 규모의 강진에 이어 지난 12일 진도 7.3의 지진이 발생해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네팔의 재해지역 복구 및 재난민 긴급 구호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주형 노경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인 네팔이 조속한 복구를 통해 하루 속히 희망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강호권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실의에 빠진 네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게 도움을 주신 포스코1%나눔재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가스공사, 사회공헌성금 5억9000만원 기부



한국가스공사가 13일 사회공헌 성금으로 5억9100만원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전달된 성금은 올 한해 동안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조성, 취약계층 문화지원, 교복지원, 다문화 가족 고향방문 지원,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구지역의 나눔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시 등 5개 대구지역 민·관기관과 '몸튼튼 꿈튼튼' 지원사업과 관련한 사회공헌 협약을 맺고 2억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그 사업 규모를 6억원 가까이 대폭 확대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기고

김덕중
한국정치문화원 회장·전 가천대 객원교수

기업인 사면, 역차별 안 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법령상 가석방이나 사면 요건을 갖춘 기업인이 오로지 성완종 스캔들에 막혀 역차별당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는 게 필자의 견해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의 하나로 '무전 비사면, 유전 사면'이란 종래의 적폐를 일소할 것임을 약속했던 당초의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 역대 정권마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재벌 총수 또는 대기업 CEO들에게 가석방·사면 등의 은전을 남발해 온 게 사실이다. 그때마다 그 명분이란 게 천편일률적이었다.

가뜩이나 국내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데 그들이 장기간 구금돼 있을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돼 거시적으로 봐 오히려 국민에게 해악이 될 것이란 설명이 정부 경제부처들로부터 나오곤 했다. 그러나 이런 명분도 한두 번이지 너무 자주 되풀이되다 보니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흐름에 따라 대기업 관련 인사들이 횡령·배임 등의 위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아예 실형을 살지 않는 것은 물론 사면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아직 추론 단계에 있긴 하지만 희대의 불법 로비스트 성완종씨가 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씩이나 사면된 건 종전의 관행보다 한 술 더 뜬 것이어서 그 배경에 뇌물 수수 등의 비리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는 별도로 그의 사면 미스터리를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걸 놓고 야당 측이 말하듯 물타기 운운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

다만 성완종 사면 수사와 기업인 사면이란 명제 자체를 뒤섞어, 가령 야당 측 공세의 예봉을 꺾으려 한다면 박 대통령이 옹색하기 짝이 없는 정치를 한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리란 게 필자의 판단이다.

이렇듯 좋지 않은 정치공방 와중에 예컨대 가석방 요건을 갖춘 최태원 같은 기업인들의 '광복절 특사' 꿈이 무산된다면 대통령이든 야당 측이든 3류 정치를 한다는 조소를 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문제들이 얽혀 있을 때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최선의 방책이다. 정치인, 기업인, 혹은 제3의 직업인을 막론하고 법령과 원칙에 따라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시행하면 될 터이다. 괜스레 정치가 춤을 춰 도리어 기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3류 국가에서 자주 일어난다. 한국이 3류 국가인가?

이야기의 전개가 좀 튀는 걸 독자 제위가 양해한다면, 재벌과 대기업의 공과를 새삼 되짚어 보기로 한다. 누가 뭐라 해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국경제 도약 공로를 간과할 수 없듯이 여기에 적극 협력한 대기업 집단의 은공도 역사에서 배제돼선 안 된다.

대기업을 옹호하는 일부 신문의 사설 칼럼에서 아유(阿諛)의 냄새가 간혹 풍기기도 한다. 이런 추세는 도리어 대기업 집단에 해독이 됨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공(過恭)이 비례(非禮)의 함정으로 떨어지는 걸 모르는 소치다. 기업인의 위법행위도 누구의 불법행위 못지않게 비판받아야 한다.

동시에 가석방이나 사면의 혜택에서 기업인이 배척돼야 할 까닭도 없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한국의 정치란 게 여야를 막론하고 진흙탕에 빠져 있다. 어느 쪽이든 고고(孤高)한 척할 계제가 못 된다. 기업인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외부 필진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배국남의 직격탄



문화경제국장 겸 문화부장

누가 부산국제영화제를 흔드는가

칸 국제영화제다. 올해로 68회를 맞은 칸 영화제(13~24일)에선 영화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수많은 사람의 눈이 칸영화제 개막작 엠마누엘 베르코 감독의 '라 테트 오트(La Tete Haute)'를 비롯한 다양한 영화와 스타로 향한다. 거리에선 영화와 연기자에 관해 토론과 평가를 하는 영화팬과 전문가들의 모습이 보인다. 세계 언론은 칸 영화제에 대한 상황을 시시각각 보도한다. 칸 영화제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칸 영화제는 그 자체로 영향력 있는 문화요, 가치 있는 문화 브랜드다. 칸 영화제가 브랜드 위력을 발휘하며 세계인의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선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기적이라고 말한다. 불과 20년 만에 이룬 성과라고는 믿기 어렵다고들 한다. 우리의 영화 토양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와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기우였다. 부산으로 향하는 수많은 영화팬의 발걸음 앞에서 영화제에 대한 회의는 어느 사이 성공의 확신으로 변했다. 젊은 대학생들이 돈이 없어 숙박시설을 잡지 못해 노숙을 하면서도 영화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는 모습에서 영화제의 도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성기를 비롯한 수많은 영화인의 열정적인 참여는 영화제에 대한 국내외 무관심을 관심으로 전환시켰다. 영화제의 존재조차 몰랐던 세계 영화인들도 속속 부산에서 펼쳐지는 영화의 바다에 빠져들었다. 세계적인 영화감독과 평론가, 스타들은 부산을 찾아 영화제에 대한 한국 영화팬과 영화인의 뜨거운 사랑을 체감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1996년 9월 13일 첫선을 보였던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렇게 아시아의 대표적인 영화제로 그리고 세계적인 영화제로 당당히 자리 잡았다. 부산국제영화제 역시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영화 브랜드로 떠올랐고 한국영화산업의 견인차 역할까지 하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라는 기적을 연출한 이는 정부도, 대통령도, 부산시장도 아니다. 불과 20년 만에 부산영화제를 세계적 영화제로 격상시킨 주역은 영화를 사랑하는 수많은 팬과 영화인, 그리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성공적인 영화제를 위해 땀을 쏟았던 김동호 초대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이용관 현 집행위원장, 프로그래머, 조직위 관계자들이다.

그런데 이처럼 수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으로 세계적 영화 브랜드로 성장한 부산영화제가 흔들리고 있다. 그 흔듦의 주체는 다름 아닌 정부와 부산시다. 틈만 나면 부산영화제를 대한민국의 문화적 치적으로 자랑하던 주체들이 이제 부산영화제를 흔들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최근 올해 부산영화제 지원금을 지난해 지원금의 절반에 가까운 6억5000만 원을 삭감한 8억 원으로 결정했다. 20주년 행사 준비를 위해 더 많이 지원해야할 판인데 오히려 삭감한 것이다. 국제영화제의 위상을 갖춘 부산영화제는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군색한 이유를 대면서. 칸 영화제 등 세계 3대 영화제에 정부 지원금을 늘리는 것과 정반대다. 칸 영화제 예산 326억 원 중 정부 지원금은 48억 원으로 14.8%, 베를린 영화제는 예산 265억 원 중 정부 지원금은 78억 원으로 29.5%다. 부산영화제로 인해 아시아 대표 영화제 자리에서 물러난 도쿄 영화제는 99억 원 예산 중 정부 지원금이 46억 원으로 46.4%에 달한다. 반면 부산영화제 정부 지원금은 예산의 불과 6.5%에 그친다.

지원금 삭감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부산시의 이용관 집행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감사원 감사, 부산시의 감사 등이 진행됐다. 부산영화제 흔들기의 뒤에는 지난해 영화제 기간 중에 상영된 세월호 참사를 다룬 '다이빙 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영화계 안팎의 지적이다. 부산시 등이 '다이빙 벨' 상영을 하지 말 것을 종용했지만, 부산영화제는 계획대로 상영했다. 부산영화제를 둘러싼 예산 삭감과 강도 높은 감사 등을 이와 연계해 바라보는 영화계의 시각이 지배적이다. 혹시 그렇다면 부산영화제를 흔드는 주체들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예산 삭감이나 감사로 문화와 문화인은 절대 길들지 않는다는 점과 가장 바람직한 문화정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경쟁력 있는 영화 브랜드, 부산영화제의 오늘을 만든 이는 수많은 영화팬과 영화인이라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한다.

knbae@

하루 한 생각 5월 14일

餞春迎夏(전춘영하) 봄을 전별하고 여름을 맞다

천자문에는 뜻밖에 봄 춘(春)자가 없다. "천자문 다 떼고 입춘대길(立春大吉)도 못 쓴다"는 우스갯소리가 그래서 나왔다. 중국 남조 양(梁)의 주흥사(周興嗣)가 하룻밤에 완성했다는 천자문은 한문 교습의 필수교재다. 그런데도 이 글자가 없는 것은 그가 늘 따뜻한 남방 사람이어서 따로 봄을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봄을 보내면서 봄에 관한 말을 한꺼번에 알아보자. 이번 글은 온통 春자투성이가 되겠다. 먼저 개춘(改春) 신춘(新春), 다시 돌아온 봄이니 새해를 말한다. 이어 해춘(解春) 개춘(開春), 눈과 얼음이 풀리고 봄철이 시작된다. 대춘(待春), 봄을 기다리며 송춘(頌春) 영춘(迎春)을 했더니 헌춘(獻春) 첫봄이 오고 당춘(當春), 드디어 봄이 되었다.

바야흐로 방춘(方春) 방춘(芳春), 꽃이 피어 흐드러지니 탐춘(探春) 상춘(賞春), 봄 경치를 찾아다니며 즐겨야지. 그렇게 향춘(享春)을 하다 보면 감춘(酣春), 봄은 더 무르익어 간다. 酣은 흥겹다, 무르익다, 술을 즐기다, 이런 뜻의 글자다.

하지만 봄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는 법. 맹춘(孟春) 중춘(仲春) 계춘(季春), 이렇게 음력 정월~3월의 구십춘광이 이울면 어느덧 송춘(送春)이다. 고춘(古春) 만춘(晩春) 잔춘(殘春) 전춘(殿春)의 늦봄에 석춘(惜春)의 마음으로 아쉬운 전춘(餞春)을 한다. 선인들은 벗들을 불러 전춘연(餞春宴)도 했다. 이제 봄은 갔다. 꽃구경의 기억은 거춘(去春) 전춘(前春), 다 지난봄의 일이다. 그러나 아쉬워하며 여름과 가을 겨울을 보내면 다시 개춘(改春)이다. 계절의 순환은 어김이 없다.

봄에는 춘사(春思) 춘흥(春興)이 일고 춘정(春情) 춘심(春心)에 상춘(傷春) 춘한(春恨)으로 심신이 상할 수도 있다. 봄은 가더라도 세상은 언제나 춘만(春滿), 봄기운이 가득해 평화롭기를!

임철순 주필 겸 미래설계연구원장 fusedtree@

오늘의 BAE 배국남 .com

www.baekn.com

여진구, 뱀파이어와의 사랑

배국남닷컴은 12일 여진구를 인터뷰했다. 여진구는 15일 첫 방송되는 KBS 2TV 금요 미니시리즈 '오렌지 마말레이드'에서 엄친아 고등학생 정재민 역을 맡는다. 극중 정재민은 뱀파이어를 증오하는 18세 소년으로, 인간의 진심을 믿지 않는 뱀파이어 소녀 백마리(AOA 설현)와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를 펼친다. 여진구는 "오글거리는 대사가 사실 많이 힘들다. 실제로 장난치는 건 좋아하지만, 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이라면서 "벨로 라인을 돋보이기 위해 잘 해야 되다 보니 연습을 많이 했다. 대사가 입에 붙도록 노력했다. 파트너 마리가 잘 받아줘서 충분히 잘 했다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여진구는 1997년생으로 올해 18세다. 그럼에도 성숙한 매력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에 여진구는 "(많은 분들이) '오빠'라고 불러주시는 것을 저 역시 좋아한다. 오히려 저는 고맙다. 마냥 어린아이로 본 게 아니라, 충분히 감정을 몰입해 주신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진구는 함께 호흡 맞추는 설현에 대해 "첫인상이 매우 순수했다. 연기할 때 눈빛이 좋아 깜짝 놀란 적이 있다"고 치켜세웠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온라인 와글와글



서울 대중교통요금 또 들썩, 서민 상대로 돈 벌려 하나

서울시가 다음 달 말부터 추진하는 대중교통료 인상안을 두고 시민 대다수의 반응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7.4%는 현행 대중교통요금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온라인상에는 "이용객 대부분이 서민인 대중교통을 수익창출 사업으로 보나요? 올리겠다는 서울시 입장이 참 후진적으로 보입니다", "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세금 보전해야 하는 게 마땅한데", "올린다고 했으면 공청회를 열어서 시민 의견도 좀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무조건 밀어붙이네", "올린 지 5년이 됐어? 10년이 됐어? 너무 자주 오르잖아", "5년 동안 임금만 동결되고 오를 것은 다 오르네. 150~200원 인상이라지만, 이곳저곳에서 조금씩 오른 비용 합치면 가계 부담 엄청나게 늘어" 등 냉소적 의견이 많았다.

송형근 기자 x12xsado@

비거리로 고민 많은 골퍼님들, 대망의 희소식!!

"헤드가 크다"와 "비거리" 상관관계

스윗스폿에서 1cm 벗어나면 20yard 손해 | 헤드가크면 스윗스폿이 커져서 거리와 방향유리 | 큰 헤드가 유리하므로 계속 커지고 있는 것 | 프로골퍼에게 헤드크기를 제한하는 이유도 크면 유리하기 때문.

"드라이버가 가볍다"의 의미

드라이버가 가벼우면 스윙스피드가 증가 | 몸에 무리가 안가며 부상을 방지 | 가벼워도 헤드쪽 원심력을 느끼도록 스윙웨이트를 준다 | 드라이버 무게도 계속 가벼워 지고있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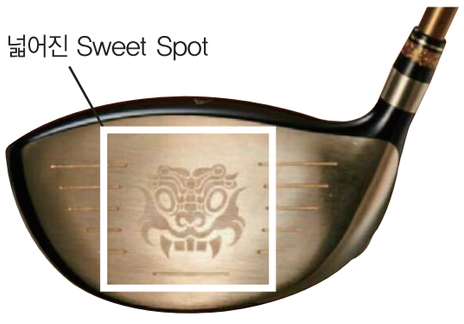
"고반발"의 의미

비거리 증가 | 짜릿한 손맛 | 런 발생 증가

"어드레스가 편하고, 믿음이 간다"의 의미

가볍고, 헤드크고, 짧게 만들어 편하다 | 자신감이 생겨 든든한다.

두배로 넓어진 스윗스팟(sweet spot)면적





신제품 론칭기념 20만원 할인 판매중

"코스가 길게 느껴진다.
드라이버 비거리가 확 줄었다..."
짤순이골퍼의 아픔을 한방에 날려 드립니다.
243g 초초경량, 500cc 초대형헤드,
CT310의 초반발력의 도깨비방망이가
당신의 10년전 비거리를 찾아 드립니다.

시타하신 열분 중 아홉 분 이상이
20m이상 차이나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방향성은 물론이구요.

2015 신제품
도깨비드라이버
DGB-500
※국제특허 비틀림 방지샤프트 ※충격흡수 Winn 특수그립







유쾌, 상쾌, 통쾌한 도깨비드라이버!

힘을 주지않고 부드럽게 치는데도 비거리가 예전대비 10~20Mm는 늘어났고 왼발이 불편한 관계로 주로 손과 어깨를 사용한 스윙이라 고질적인 왼쪽 훅이 심했는데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시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어드레스부터 백스윙, 그리고 다운스윙을 하는 것은 상당한 집중력과 감각을 총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편한 드라이버를 만난 저의 기쁨은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큽니다. 〈최규일〉

골프 20년, 가장 맘에드는 드라이버!

과거에 T, C, X, N, K 등등 많은 드라이버를 사용해 봤는데 도깨비는 타 기종 대비 가볍고 다루기가 편하며 최소 20m이상 비거리가 증대되더군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그동안 고질적으로 발생하던 악성훅과 스라이스가 완벽하게 없어졌습니다. 라운드당 두세개의 OB 때문에 90대에 머물던 스코아가 요즘은 80대중반으로 도깨비드라이버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왕꼬마〉

너무나 개운하고 자랑하고 싶은 라운딩!

Golf is life! 맞는 이야기. 인생의 희노애락이 모두 숨어있는 골프. 슬럼프를 이기고저 도깨비 드라이버와 인연을 시작. 설렘과 슬럼프의 두려움으로 가득. 결과는 100점 만점에 99점. 수년만에 아우디장식(파 연속4개)거의 파온에 나도 놀람의 연속. 동료들 추카추카. 슬럼프 탈출~. 도깨비덕분. 드라이버가 멀리가니 골프가 이리 쉬운걸 ^.^ 올해는 도깨비와 함께 춤을... 필드에서.... 〈이쁜이 골퍼〉

www.도깨비골프.com
문의 1899-9030

데스크 칼럼

한국 전자산업의 진짜 위기는…



한 지 운
산업부장

국내 전자업계의 위기론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시장 트렌드의 흐름이 워낙 빠르고 기술의 속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어제의 승자가 오늘의 패배자가 되는 것은 다반사다. 이미 우리는 끝없는 성공 가도를 걸을 것만 같았던 핀란드 노키아, 일본 소니의 추락을 생생하게 목격한 바 있다.

현재 전자업계의 선발 주자는 미국과 한국이다. 미국은 애플을 중심으로, 한국은 삼성전자가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도전자는 누구나 잘 알다시피 중국이다. 막강한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업체들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 급부상했다.

백색가전의 경우 전 세계 시장은 중국 하이얼이 왕좌를 차지했다.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연속 하이얼을 글로벌 가전업체 1위로 선정한 바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업체들은 저가 제품을 다량으로 공급하는 만큼, 매출은 크지만 이익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었으나 최근 들어 사정은 달라졌다.

칭다오하이얼은 지난해 888억 위안의 매출과 50억 위안의 순이익을 거뒀다. 매출은 전년 대비 2.5% 늘었지만, 순익은 19.6% 늘었다. 하이얼전기도 매출 671억 위안, 순이익 24억 위안의 실적을 거뒀다. 매출 7.8% 상승에 순이익은 20.1% 상승이다.

하이얼이 다는 아니다. 현지 가전 2, 3위 업체인 메이디와 TCL의 부상은 위협적이다. 지난해 이 회사는 매출 1423억 위안에 순이익 105억 위안을 기록했다. 매출은 17.2% 늘었지만 순이익은 44.5% 증가했다. TCL 역시 매출 1010억 위안(18.4% 증가), 순이익 42억 위안(46.7% 증가)이라는 놀라운 실적을 거뒀다.

가전이 아닌 모바일 기기에서도 중국 업체들에게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중국 현지에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현지업체의 성장에 밀려 4위권으로 떨어졌다. 1위는 샤오미, 2위는 애플, 3위는 화웨이가 차지했다.

TV 역시 삼성전자가 9년 연속 글로벌 시장 1위를 이어가고 있으나 하이얼, 하이센스(하이신), TCL의 추격이 매섭고, 스마트폰 업체인 샤오미까지 뛰어들면서 향후 시장 전개는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이미 적신호는 켜졌다. 올 1분기 삼성전자 CE(소비자가전) 사업부는 14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TV 사업을 담당하는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의 손실이 1000억원 후반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TV가 주력인 LG전자 HE(홈엔터테인먼트)사업부도 영업적자 62억원을 기록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시장이 성숙되고 제품의 평준화가 이뤄지면 중국 업체들이 득세를 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후발업체의 추격이 빨라질수록 선발업체들은 물량 위주 전략을 포기하고 적은 판매량에도 수익을 최대한 지켜낼 수 있는 프리미엄 시장에 전력투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 역시 한시적이다. 시장에 또 다른 성장 아이템이 등장하는 것은 필연이며, 이는 기업의 흥망을 다시금 결정짓는 잣대가 된다. 위기이자 기회이며, 기회이자 위기의 변곡점이다.

전자산업에서 최근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아이템인 3D프린터나 드론(무인기) 등에서 한국 업체들은 특별한 두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 아이템은 벤처나 중기가 대기업으로, 다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토양이다. 대-중-소 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은 물론이다.

반면 중국은 새로운 아이템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차세대 글로벌 기업들이 속속 부상하고 있다.

일례로 세계 1위 드론 제조업체인 SZ DJI 테크놀로지는 이달 초 7500만 달러(약 811억원)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DJI의 기업가치는 약 80억 달러로 치솟았고, 추가 투자를 통해 1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국 선전 소재의 DJI는 올해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3년 매출이 1억3000만 달러에 불과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불과 2년 만에 10배 성장이다.

한국 전자산업의 진짜 위기는 삼성이나 LG 등 대형 업체들이 실적이 떨어질 때가 아니다. 진짜 위기는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업체로 부상하는 '스타 기업'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다. 이는 산업 구성원들의 생태계 선순환이 멈춰버렸다는 것을 뜻한다.

한 기업의 장악력과 힘은 영원하지 않다. 애플도 언젠가는 수명이 다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미 애플도 절벽 끝에서 구사일생으로 회생한 기업 아닌가.

goguma@

객석

김 승 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본부장

사물인터넷, 출발점은 보안



올 여름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5번째 이야기가 개봉된다. 터미네이터는 인간과 기계의 전쟁을 다룬 흥미진진한 영화지만, 인간이 기계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때의 무서움을 역설하는 영화이기도 하다.

이런 일이 실제로 없으리란 법이 없다. 이미 우리는 모 포털 사이트와 주요 카드회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다가오는 사물인터넷 시대에는 보다 많은 산업이 ICT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것이므로, 보안이 뚫리면 훨씬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자율주행 시스템을 장착한 커넥티드카가 해킹되면, 운전자는 차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채 강제로 목숨을 내건 질주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미래 청사진과 보안 체계를 갖추는 것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네트워크와 플랫폼 관련 기기는 물론 ICT 융합과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정밀한 예측과 겹겹의 대비책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ICT 보안 수준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달 28일부터 개최되는 '월드IT쇼(WIS) 2015'는 매우 중요하다. 국내외 ICT 융합산업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음은 물론, 보안산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정부에 공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기업의 아이디어와 활약도 중요하지만 ICT 융합 보안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프레임을 짜는 역할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몫이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안전한 ICT 융합 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융합보안 시범사업'을 공모하기로 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월드IT쇼와 융합보안 시범사업 등을 계기로, ICT 보안에 관한 정부와 국내 기업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기대해본다.

기자수첩

이 꽃 들 문화부/flowerslee@

연극의 힘, 연극계의 현실



"매너리즘에 빠졌었습니다. 연극 덕분에 해답을 얻었지요." 최근 KBS드라마 '프로듀사' 제작발표회서 공효진에게 전작 연극 '리타' 출연 후 달라진 점을 물었다. 연기 메서드(Method)를 환기하게 됐다며 밝은 기색을 감추지 않는다. 연극은 TV스타도 연기를 농익게 하는 중요한 마당이다.

"소리를 콱 내질렀다가, 때로는 속삭였다가. 연기의 강약 중간약을 모두 연극을 통해 훈련했지요. 여전히 그곳에 다시 서고 싶습니다." 스크린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내뿜는 배우 김성균이 털어놓는다. 무대는 연기의 참맛을 아는 배우를 태동하게 하는 현장이다.

그리고 국민배우 김혜자가 말한다. "연극 '오스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연기의 눈을 돌렸습니다. 연극을 하면서 '과연 배우로서 내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경지에 오른 이에게 깨우침을 준다. 더 나아가 배우로서 대중에게 끼칠 영향력을 고민하게 한다. 그곳이 바로 연극 무대다.

이처럼 연기자를 진화시키는 문화의 산실인 연극의 현실은 열악하기만 하다. 최근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발표한 '2014년 하반기 경기동향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학로(50%)와 민간(42.1%) 공연시설에서 전년 동기 대비 관객 수가 하락했다. 또, 대학로의 62.5%, 기타 민간시설의 36.8%는 순이익이 감소했다. 관객 감소와 더불어 행정 파행도 문제다. 서울연극제가 단적인 사례다. 36년 전통을 지켜온 서울연극제 주최측은 지난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극장으로부터 대관 탈락 위기를 맞았다. 이를 겨우 봉합하더니, 이번 연극제 개막을 하루 앞두고 극장 폐쇄를 통보받았다.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극계 현실이다. 생명력을 불어넣게 할 하드웨어 점검이 시급하다. 주먹구구식 문화 행정에서 벗어나 단단한 연극계 풍토를 만들어야 할 때다.

차상엽의 시선

온라인뉴스부 차장

비디오 판독, 그래도 필요하다



지난 12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 이글스 간의 경기에서는 심판 판정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한화 강경택이 5-4로 리드하던 상황에서 9회초 김회성의 내야 땅볼 때 홈을 파고 들었지만 아웃으로 판정됐고 한화는 이에 합의판정을 요구했지만 결국 아웃으로 선언된 것.

당시 경기는 한화가 9회에 한 점을 보태 경기를 5-4로 뒤집은 상황이었다. 강경택이 홈에서 세이프됐다면 2점차로 달아나 좀 더 여유로운 9회말 수비가 가능할 수 있었다. 강경택의 홈 쇄도는 타이밍상으로는 분명 아웃이었다. 하지만 홈송구를 받은 진갑용 포수가 공을 잡고 태그하기 위해 글러브를 내리는 사이 접전이 이뤄졌다.

한화 김성근 감독으로서는 당연히 합의 판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리플레이 장면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판독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당시 강하게 내린 비로 인해 홈플레이트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 판독은 더욱 어려웠다.

문제는 당시 주심이 박근영 심판이었다는 점이다. 이미 수차례 오심으로 팬들의 뇌리에 각인된 박근영 심판이었기에 한화 팬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이번 판정을 놓고 수많은 비난이 따랐다. 비디오 판독을 통한 판정이었음에도 비난의 수위가 높았다.

결과적으로 이날 강경택의 홈 쇄도는 아웃으로 판정됐다. 비디오 판독을 통한 결과였던 만큼 더 이상 논란의 여지도 있을 수 없었다. 사실 합의 판정은 비디오로도 판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심판 최초의 판정을 최종 결정으로 한다는 모호한 규정이 있다. 실제로 이날 경기에서 비디오 판독으로 최종 결정이 난 것인지, 혹은 최초 판정이 기준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심판 합의 판정은 지난 시즌 중반 도입됐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명쾌하게 판정되진 않는다. 국내 프로야구는 미국 메이저리그처럼 구장별 별도의 카메라로 판독하는 것이 아닌 방송 카메라의 리플레이 장면을 활용한다. 이 때문에 시청자들 역시 TV를 통해 동일한 화면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화면을 통해서도 확실한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다.

올시즌은 아직 초반인 만큼 비디오 판독을 통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를 논하기는 이르다.

지난 4월까지 총 53회의 심판합의 판정 요청이 있었고 번복된 경우는 20번이었다. 40%를 조금 밑도는 번복률이다. 지난 시즌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도입된 합의 판정은 지난해 총 115회 중 47번이 번복됐다. 40.8%의 번복률이었던 셈이다. 올시즌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의 번복률로 볼 수 있는 셈이다.

40%의 번복률은 경우에 따라 높게 볼 수도, 낮게 볼 수도 있는 수치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보다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그 가치가 있다. 때문에 심판 판정에 대한 팬들의 불만도 크게 줄었다. 리플레이를 통해서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비판하기보다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 높이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sycha@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이종재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강 혁

논설실 (02)799-2657 온라인뉴스부 (02)799-2640 사진팀 (02)799-2634
정치경제부 (02)799-2650 자본시장부 (02)799-2658 금융시장부 (02)799-2665
산업부 (02)799-2664 미래산업부 (02)799-2663 부동산시장부 (02)799-2661
문화부 (02)799-2669 사회팀 (02)799-2656 국제팀 (02)799-2654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www.hainaim.com 전화 02-326-1600 팩스 02-326-1624 해냄

"만일 마더 테레사께서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이 그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였을 것인가" —정호승

가난을 고발하려 인도로 떠난 사진가, 마더의 사랑에 물들다

마더 테레사, 넘치는 사랑

시인 정호승과 그 아버지의 손길로 태어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녀의 깊고 큰 사랑!
인도 콜카타, 마더 테레사의 곁에서 보낸 사진작가의 7년





"우리는 모두 사랑하고 또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마더 테레사

조광호(신부, 화가) '신이 어디 계시며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은 분과, 사람은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참사랑과 행복과 기쁨, 보람과 희망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은 분에게' 나는 이 책을 진심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이해인(수녀, 시인) 생생한 사랑의 기록인 이 책 속의 사진과 글을 보는 것 자체가 훌륭한 기도이고 묵상이며 우리가 두고두고 본받아야 할 이웃사랑의 지침서입니다.

김혜자(배우)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희생이라는 실천을 통해 사랑을 완성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가르치신 넘치는 사랑뿐입니다.



오키 모리히로 찍고 쓰다
장청현 정호승 옮기고 다듬다
양장본 | 272쪽 | 값 14,500원

“나영석이 뭐?” 리얼 예능국의 모든 것

KBS 금토드라마 ‘프로듀사’

KBS 예능국 제작 드라마 1호
차태현·공효진·김수현·아이유
실제 방송 프로그램 소재로
예능PD들의 좌충우돌 성장기



KBS ‘프로듀사’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15일 첫 방송을 앞두고 11일 열린 제작발표회에는 5개국 120여개 매체 취재진이 참석해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차태현, 공효진, 김수현, 아이유 등 톱스타들이 대거 출연하는 것은 물론, 스타 예능 PD 서수민 CP가 기획해 박지은 작가, 표민수 PD와 의기투합한 작품이어서 더욱 그렇다. ‘프로듀사’는 KBS 예능국이 제작하는 첫 드라마로,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박중민 KBS 예능국장은 “새로운 시도가 많이 부각될 것”이라며 “젊은 세대에 소구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효진 역시 “드라마 극본이 손에 꼽을 정도로 매우 재밌었다. 박지은 작가의 대사톤이나 개그가 정말 웃겨서 작품에 호감이 갔다”고 치켜세웠다.

제작진뿐 아니라 드라마 속 배경 역시 예능국이다. 차태현, 공효진, 김수현은 각각 폐지 위기의 ‘1박2일’ PD, 8년차 쌈닭 PD, 어리바리한 신입 PD로 분한다. 차태현은 “얼마나 예능국 PD들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실까 혹은 어떻게 보여질까 걱정도 된다”고 털어놨다. 고된 업무 환경에 시달리는 방송사 예능 PD들이 맞닥뜨리는 에피소드를 유쾌하게 풀어낼 계획이다.

신입사원으로서 허당기를 드러내는 백승찬 PD 역의 김수현 또한 PD로서 힘겨운 사회생활을 겪어내며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 공감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실감나는 리얼리티를 표방하는 ‘프로듀사’에는 CJ E&M으로 적을 옮긴 뒤, tvN ‘꽃보다’ 시리즈, ‘삼시세끼’ 등을 히트시킨 나영석 PD 등도 실명이 거론돼 재미를 유도한다.

“허당 신입PD,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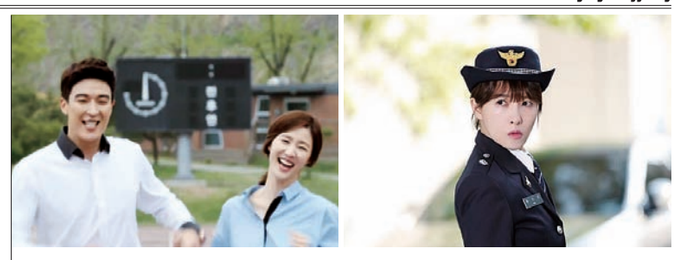
‘프로듀사’로 돌아온 배우 김수현

‘별에서 온 그대’로 드라마 한류를 재점화시킨 주역 김수현이 안방극장에 돌아왔다. 바로 ‘프로듀사’를 통해서다. 전작에서 도민준 교수 역을 맡았던 김수현이 이번에는 융통성 부족한 FM 스타일의 신입 PD로 변신한다. 고시공부를 하다 첫사랑 때문에 KBS 예능국에 입사한 백승찬 PD 역이다.

“힘을 쓰고, 힘을 소모하는 연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나 봅니다. 눈빛이나 몸짓으로 에너지를 분출하는 것이죠. 반면 이번에는 힘을 뺀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심지어 극중에서 맹구와 영구를 비교 분석하며 직접 따라해 보기도 하는 김수현이다. 반면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통해 선보였던 어딘가 모자란 듯한 캐릭터와는 분명한 차별점을 둔다. 그는 “(영화에서는) 이면에 숨어 있는 모습을 극대화하기 위해 힘이 들어간 캐릭터였다. (드라마에서는) 예능국의 모든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내 선풍적 인기몰이로 각광받고 있는 김수현은 이 작품을 통해 이미지 변신을 시도한다. 김수현은 이에 대한 부담감에 선을 그었다. “여느 때와 똑같이 열심히 연습해 만들고 있습니다. 캐릭터에 힘을 뺐다고 해서 ‘프로듀사’가 결코 가벼운 작품은 아니니까요.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글/이꽃들·사진/노진환 기자 flowerslee@



MBC 새 일일극 ‘딱 너같은 딸’(왼쪽)과 KBS 2TV 새 수목극 ‘복면검사’.

삼부자의 ‘가족을 지켜라’
세 집안이 사돈 ‘딱 너같은 딸’
⋮
5월 안방극장 새단장

5월에는 다양한 새 드라마들이 방송을 속속 시작해 시청자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KBS 2TV 일일드라마 ‘당신만이 내사랑’ 후속으로 11일부터 방송된 ‘가족을 지켜라’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가장이고 싶은 할아버지(변희봉)와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나 명예퇴직이라는 무거운 현실을 마주한 뒤 이제 자신의 삶을 찾고 싶은 아버지(최일화), 장남도 아니면서 장남의 짐을 지고 있는 막냇아들(재희) 등 삼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장과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드라마다.

MBC도 ‘압구정 백야’ 후속으로 일일드라마 ‘딱 너같은 딸’을 18일부터 방송한다. 딸 셋을 최고의 알파걸로 키운 홈쇼핑 호스트 홍애자(김혜옥)와 말끝마다 해병대 정신을 자랑하지만 현실은 주부습진에 시달리는 홀아비 소관석(정보석), 그리고 금수저 물고 태어난 스펙을 가졌지만 어딘지 어수룩한 허은숙(박해미) 여사네 등 세 집안이 사돈으로 엮이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MBC 새 수목극 ‘맨도롱 또똣’.

MBC는 아침 일일드라마도 새롭게 방송된다. ‘폭풍의 여자’ 후속 ‘이브의 사랑’은 친구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빼앗긴 한 여자가 역경을 이겨내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고난 운명 극복기다.

MBC는 ‘앵그리 맘’ 후속으로 강소라와 유연석이 주연을 맡은 ‘맨도롱 또똣’이 14일 첫 방송됐다. 홧병에 걸린 개미와 애정결핍 베짱이의 사랑이라는 기발한 발상에서 시작하는 로맨틱 코미디로 박홍균 PD는 “지친 현대인들에게 힐링과 위로,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착하지 않은 여자들’ 후속으로 20일부터 ‘복면검사’를 방송한다. 속물 검사 하대철과 정의는 본능, 감정 수사관 유민희의 활약을 유쾌하게 그린 드라마로 주상욱, 김선아, 엄기준, 전광렬 등이 출연한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랭킹 엔터테인먼트

영화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주간관객 236만5566명을 모으며 왕좌의 자리를 지켰다. 배우 김혜수와 김고은 주연의 영화 ‘차이나 타운’은 주간관객 59만9214명을 모으며 2위를 이어갔다. 영화 ‘위험한 상견례2’는 주간관객 20만6622명을 모아 3위에 이름을 올렸다. TV는 KBS 1TV 일일드라마 ‘당신만이 내사랑’이 시청률 27.7%(닐슨코리아 제공, 이하 동일)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KBS 2TV 주말드라마 ‘파랑새의 집’은 시청률 22.8%로 2위, KBS 1TV ‘KBS 9시뉴스’가 시청률 17.4%를 기록해 3위에 안착했다. 음악은 빅뱅의 ‘LOSER’와 ‘BAE BAE’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SBS 드라마 ‘냄새를 보는 소녀’의 OST인 로꼬, 유주의 ‘우연히 봄’은 4계단 상승해 7위에 이름을 올렸고, 보아의 선공개곡 ‘Who Are You’는 진입 첫 주 8위를 기록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영화 박스오피스

순위	영화	주간관객	누적관객
1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236만 5566명	937만 6766명
2	차이나타운	59만 9214명	122만 3446명
3	위험한 상견례2	20만 6622명	41만 7766명
4	다이노 타임	16만 0934명	23만 8914명
5	언프렌디드: 친구삭제	14만 5795명	14만 6009명
6	노아의 방주: 남겨진 녀석들	12만 9831명	20만 5397명
7	연애의 맛	12만 3793명	12만 6178명
8	짱구는 못말려 극장판: 천하무적! 로봇아빠의 역습	6만 0702명	14만 6812명
9	장수상회	5만 9643명	114만 0532명
10	빌리와 용감한 녀석들3	5만 3466명	9만 2949명

TV 시청률

순위	프로그램	시청률	방송사
1	당신만이 내사랑	27.7	KBS 1TV
2	파랑새의 집	22.8	KBS 2TV
2	KBS 9시뉴스	17.4	KBS 1TV
4	여자를 울려	16.4	MBC
5	압구정백야	14.8	MBC
6	여왕의 꽃	14.1	MBC
7	폭풍의 여자	13.8	MBC
8	오늘부터 사랑해	13.2	KBS 2TV
9	개그콘서트	12.6	KBS 2TV
10	해피선데이	12.4	KBS 2TV

온라인 음원차트

순위	곡명	아티스트	전주비교
1	LOSER	빅뱅	2
2	BAE BAE	빅뱅	4
3	Me You	산이	-2
4	어머님이 누구니	박진영	-2
5	아예	EXID	-1
6	다른 남자 말고 너	미쓰에이	-1
7	우연히 봄	로꼬, 유주	4
8	Who Are You	보아	진입
9	Puss	지민, 아이언	-2
10	연예할래	박보람	3



안도미키 | 엘레나 라디오노바 | 가와구치유코&알렉산더 스미르노브 | 드미트리 드미트렌코

ISU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1위 ISU 세계피겨스케이팅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1위 ISU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 싱글 1위

세계 최정상 피겨스타들의 환상의 무대!

볼쇼이 온 아이스



the Dream

2015.4.28~5.24 목동아이스링크

주최/제작 | (주)공연타임스 후원 | THE MVL HOTEL 협찬 | 맛찬들 마리짱

예매 | 인터파크 1544-1555 예스24 1544-6399 (주)랑 1666-8662 단체문의 | 1588-0786



이 혜 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집값만 올려놓은 부동산 대책 금리인하, 내수침체 해결 못해 '초이노믹스' 이대로는 안된다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은 12일 서울 장교동 유관순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단기 경기 부양책뿐인 초이노믹스는 효과가 없다"며 "집값 올리기가 아닌 '서민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대책 등 경제정책 변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은 여권에서 '으뜸'으로 인정받는 여성 경제전문가이다. 원조 친박(친박근혜계)임에도 박근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이 전 최고위원은 14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구조적 위기'로 진단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단기 경기부양책뿐인 초이노믹스는 효과가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집값 올리기'여서는 안되고, 금리를 내려도 투자가 늘기보다는 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내수침체를 더 가속화시킨다"며 정책 방향 전환을 주문했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서 촉발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두고는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시작하는 게 맞다"면서 "청와대가 논의를 차단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증세 문제에 있어선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상향조정 및 세율 인상, 주식양도차액 과세 강화 및 대규모 임대수익 과세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저성장 시대 도래
부동산 띄운다고 경기 안 살아나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초점 맞춰야

공무원연금 개혁 차질 안타까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
청와대가 논의 차단할 필요는 없다

법인세율 올리기 전에
대기업 쏠린 감면혜택부터 없애야
주식양도·임대수익 소득세도 손질

△한국경제가 2011년 이후 연속 2~3% 저성장에 머물고 '저성장-저생산-저투자-저소비' 패턴을 보이면서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를 무엇으로 보나.

"현재 한국경제는 단순히 경기 변동 사항에 따른 침체가 아닌 구조적 위기다. 정부는 지금 경기침체로 생기는 디플레이션일 때 쓰는 부양책을 쓰는데, 그러한 부양책으론 구조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경제가 그간 압축 성장과정에서 생긴 여러 불균형을 미처 해소하기 전에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우리 성장이 꺾여버리는 불행이 와버렸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을 활성화시켜서 경기부양해 보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건 베이비붐과 고도성장이 맞아떨어졌을 때 효과가 있었던 방식이다. 베이비붐과 고도성장이 함께 왔던 과거엔 부동산을 띄우면 집값이 오르고 경기도 살아나는 선순환이 이뤄졌지만 저출산과 저성장이 같이 온 지금은 아무리 부동산을 띄워도 뭐하나 먹히지 않는다. 부동산 신화가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된 것이다. 더 이상 그 방법으로는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다.

돈을 풀어도 효과가 없고, 경기가 안 살아나고 있잖나. 대신 가계부채만 늘고 오히려 전셋값만 오르고 소비 여력은 줄어들어 내수가 위축되고 침체되는 원치 않은 상황이 온 것 아닌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저금리 기조, 전세가격 급등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부동산3법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평가해 달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값 올리기'인 건 처음 봤다. 너무 놀랐다. 집 없는 서민이 이렇게 많은 대한민국에서 정부 정책의 초점은 집 있는 상위계층이 아니라 집이 없어 정부의 손길이 필요한 서민, 중산층에 맞춰져야 한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다는 근거는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2006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거래량이 늘었다는 것인데, 뜯어보면 두 가지 이유로 거래량이 늘었다. 전세는 구하기 어려운데 금리도 싸고 주택 마련 대출도 쉽게 해준다고 하니 형편이 어려운데도 빚내서 집산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고, 워낙 초저금리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면서 월세 가구 비중이 55%를 넘어서는 등 이동이 많아졌다. 둘 모두 서민들에겐 고통스러운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주택경기가 좋아졌다고 박수치고 환영하기는 어려운 일 아닌가. 정부의 주택정책 초점은 집값 올리기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말씀대로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문제도 한국경제의 골칫거리다. 이 문제에 있어선 정부의 저금리 기조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시중에선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가계부채는 한번 발생하면 백약이 무효다. 그래서 아예 발생하지 않게 미연에 막아야 하고, 금리정책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금리를 내리도록 해 경기를 띄우려는 유혹은 어느 정권이나 받는다. 그렇게 금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 관련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한은의 독립성을 못박아놨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6개월 이상 버티다가 지난번에 어쩔 수 없이 내렸지만, 또 내리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금리를 내린다고 투자가 늘진 않는다. 그것도 환상일 수 있다. 90년대를 보면 금리가 10% 정도 됐고, 연평균 투자율은 20%대였다. 2000년대엔 금리가 7~8%였는데, 당시 연평균 투자율은 7% 수준이었다. 2013~14년 금리가 2%일 때 연평균 투자율도 2%대다.

지금 투자가 안되는 게 금리 때문은 아니다. 그렇다면 금리를 내릴 경우 투자가 막 일어나야 하는데 왜 기업들은 500조~600조원씩 갖고 있으면서 투자를 않겠나. 상상을 초월하는 초저금리인데 왜 돈을 들고만 있나. 설명이 안 된다.

> 지금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투자 활성화의 효과는 미미한 반면 저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전월세 급증 등 부작용은 뚜렷하게 보인다. 1분기만 지표만 봐도 전년 동기 대비 경제지표가 안 좋아졌는데, 제일 큰 게 소비심리 위축이다. 빚이 느니 구매력이 안 좋아진 것이다.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우리경제의 아킬레스건인 내수침체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옛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시절부터 연금 전문가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의 인상 문제에 대해선 어떤 견해인가.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건 너무나 안타깝다. 여야의 당초 합의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자고 못박은 것이 아니라, 8월까지 안을 만들자는 합의였다.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소득대체율 50% 안을 논의해보는 게 차선의 대안은 됐을 것이라 본다.

공무원연금 개혁안만 놓고 봐도, 왜 불만이 없겠나. 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내리지 않고 더 받느냐 불만도 있을 수 있지만 수천년 동안 피 흘린 혁명에도 만점짜리는 없었다. 그런데 개혁이 만점짜리가 있겠나. 만점까지 못가면 70점짜리라도 가야지, 만점이 아니라고 팽개치면 빵점짜리로 가는 것이다. 0점보단 70점짜리가 낫잖나.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법을 먼저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국민들과 함께 논의를 시작하는 게 맞았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50%로 올리는 데 동의하지 않지만, 국민들 가운데선 동의하는 분도 있고 동의 않는 분들도 있으니 논의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도 국회도 이 논의를 싫어하는 것 같다. 특히 청와대가 논의를 차단할 필요는 없다. 국민은 논의할 자유도, 권리도 있다.

나는 국회에 오기 전부터 '소득대체율 40%' 안을 지지했다. 1988년 60%로 시작했지만 이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을 한 것이었다. 공적연금은 최소한을 보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40%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12일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 소급입법됐다. 담뱃세 인상 논란이나 연말정산 대란에서 보듯 정부 조세정책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다소 불만도 사고 있다. 또 언젠가는 정부가 복지 재정 확충을 위해 증세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세금 문제에 관한 입장은.

"연말정산과 관련해선, 소급입법 전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극히 유감이다. 이번 소급입법에서 보듯 정부의 조세정책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다자녀공제, 연금공제를 축소했던 것 자체가 장기적인 정책 방향에도 역행해 다시 환원한 것 아닌가. 정책의 일관성 없음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으니, 약속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지하경제 양성화 부분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 와서라도 꼭 필요한 복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 복지부터 선정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본다.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복지는 무엇인지, 줄일 수 있는 지출은 무엇인지 선별하는 게 먼저다. 그후 필요해서 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부분이 생기면 우리 경제 주체들, 기업이든 근로자든 중소기업이든 자영업자든 적정하게 복지 재원을 위한 세금 분담을 해야 한다고 본다.

작년 같은 경우엔 월급생활자가 세금 부담을 거의 떠안은 형국이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3조4000억원이나 늘었지만 법인세는 1조2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경기가 안 좋아서 기업 매출이 줄어 법인세가 안 걷혔다고 하지만, 매출이 줄고 형편이 안 좋아서 법인세도 못내는 기업 근로자들은 무슨 돈이 있어서 근로소득세를 3조4000억원이나 더 냈겠나. 이건 공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증세 문제와 관련해선, 법인세를 놓고 얘기하자면 세율을 올리기 전 대기업에 몰린 감면 해택들을 폐지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 예컨대 기업의 대표적인 세액감면 항목인 R&D(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들이 거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재벌만 받는 감면부터 폐지하는 게 우선순위이고, 중소기업은 해당되지 않는 최고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과세표준을 먼저 올리는 게 중요하다. 현재는 과표 200억원 초과에 최고세율 22%가 적용되고 있는데, 예컨대 이를 500억원으로 올리면서 세율도 올리는 식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는 자꾸 근로소득세를 올릴 게 아니라, 주식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을 올리고 대규모 임대수익에 과세하는 것부터 손대야 한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3년간 청년 고용 대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고,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독려하기도 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청년 일자리 문제는 쉬운 이야기가 아니다. 일단 내년부터 60세로 정년이 연장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런데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되지 않았나. 어쨌든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가 책임감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노사정에서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정년 연장 시계가 재깍재깍 시한폭탄처럼 오고 있는데 임금피크제든 임금체계 개편이든 하지 못하면 청년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되는 상황이다. 경제 수장이 하루라도 빨리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이게 가장 급선무인데 이걸 해내지 못하면 청년 일자리 대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해외로 나가라고만 할 일은 아니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 무작정 나가라고 하면 낭떠러지로 갈 수도 있다."

김미영 기자 bomnal@

약력

△서울대 경제학 학사, 동 대학원 경제학 석사 △미국 UCLA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국무총리 의료제도발전특위 전문위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 △UCLA 경제학과 초빙교수 △제17대 국회의원(서울 서초갑),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원내부대표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제18대 국회의원(서초갑), 한나라당 최고위원 △제18대 대선 박근혜후보선대위 부위원장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새누리 대표 경제통… '경제민주화' 등 박 대통령 대표공약 주도



새누리당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실력과 패기를 갖춘 여성 정치인이다.

미국 UCLA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경제전문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이 전 최고위원은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개발연구원과 각종 정부 부처를 두루 거치면서 금융, 재정, 연금 등 각종 경제 분야에서 실력을 발휘했다.

그는 17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후 18대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 역할을 맡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2002년 '차떼기 정국'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대표로 구원등판하면서부터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보좌했다. 17대 대선 목전인 2006년엔 박 대통령이 내놓은 '대국민 약속 실천 백서'를 주도했고, 18대 대선을 앞두고는 역시 박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정책을 구체화했다.

미국 UCLA 박사 출신 여성 경제전문가
17대 총선 서울 서초갑서 당선 정치 첫발
'텃밭 3선' 포기하고 대선캠프서 승리 도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서초갑 3선 연임이 예상됐던 그는 '텃밭에서의 3번 연속 공천은 관례에 어긋나고 대선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당 권유에 따라 공천을 포기했지만, 정치적 역할은 톡톡히 해냈다. 19대 총선에서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으로 과반 의석 확보에 공을 쌓았고, 박 대통령 대선캠프에선 부위원장으로 뛰며 승리를 도왔다.

개인적인 정치 행보에 있어서도 그는 거침이 없었다. 2012년 전당대회에 나서 여성으로서는 이례적으로 2등을 차지했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당 서울시장 후보에도 도전장을 냈다. 박근혜 정부의 개국공신 격이지만 그는 정부 경제정책에 관해선 가감 없는 비판도 이어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월엔 3년 임기의 (사)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회장에 취임, 유관순 열사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내년 총선에선 이 전 최고위원이 다시 서초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당 안팎에서 나온다.

김미영 기자 bomnal@

‘규제 강화’ 유통법안 27건 계류… 경제 발목 잡을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이케아 방지법 등〉

상임위 톺아보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3개의 정부기관과 12개 공기업, 18개 준정부기관, 22개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국회 최대 상임위 중 한 곳이다. 산업과 에너지 등 국민 생활경제와 밀접한 민감한 문제를 주로 다루며,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통상도 총괄하고 있다. 최근 심사 중인 법안 중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다. 명칭과 달리 대부분은 규제 법안이다.

의무휴업 과태료 2억원으로 상향
영업정지 위반 땐 등록 취소까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심 집중

소상공인 보호 취지 법안이라지만
대형점포 규제 중소 납품사도 피해
규제 필요성·적정성 종합분석 필요



산업위에 계류 중인 주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새정치연합 백재현 의원 (발의 날짜: 2015년 4월 22일)	–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 삭제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 (2015년 2월 16일)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33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점포를 개설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받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2015년 1월 14일)	– 전문점(특정 품목에 특화된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
새정치연합 이종걸 의원 (2014년 12월 11일)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1킬로미터 이내에서 2킬로미터 이내로 확대
정의당 김제남 의원 (2014년 3월 4일)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위반 과태료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록 취소

백화점을 비롯해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들어서면서 골목상권이 위협받고 있는 데 따른 시대적 흐름이다.

하지만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등 대형유통업체에 규제가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이 훼손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 대신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조치다. 또 지역구 표심을 얻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포퓰리즘도 숨어 있다.

한 언론이 19대 국회 시작 때부터 올 초까지 산업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583건의 경제법안을 분석한 결과 무려 172건이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분류됐다. 경제민주화 법안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대기업을 규제함으로써 경제의 균형을 이루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반면 기업친화적 법안은 82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329건은 중립 성향을 나타냈다.

산업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선출직인 의원들 입장에선 지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어 여당임에도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 **계류 중인 27개 유통법, 대부분이 규제법** = 산업통상자원위에 따르면 14일 현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총 27개다. 상당수가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게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법과 가구전문점을 규제하는 이른바 ‘이케아 방지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1km 이내에서 2k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최근 백화점의 성장세가 꺾이고 해외 명품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유통 대기업들이 대형 아웃렛이나 상설할인 매장을 경쟁적으로 개설하기 시작,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된 ‘이케아’ 등에 대해서도 대형마트나 준대규모 점포와 같이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전문점이라도 특정 품목에 특화된 정도가 낮고 생활물품이나 잡화 등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주위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대형마트와 별반 차이가 없어 함께 규제하고 변칙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게 발의 배경이다. 이외에도 △준대규모 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 삭제(백재현 의원)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위반 과태료를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업정지 명령 위반 시 등록 취소(김제남 의원) 등의 법안이 심사 중이다.

계류 중인 규제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해당 유통업체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규모 점포에 납품하는 업체들 또한 대부분 중소업체다. 대규모 점포를 규제하려다 보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산업위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와 관련,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의 자유, 중소유통업자 보호, 소비자의 선택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확대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규제의 필요성과 목적의 실현 가능성, 수단의 적정성, 시행에 따른 비용편익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이케아 방지법에 대해선 “소비자 선택권 및 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우려하는 견해도 있으므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법률·정책 감시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지난 3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심의 모의국회’를 열어 이들 법안을 규탄하기도 했다.

컨슈머워치 측은 이 자리에서 “정치권은 중소상인 보호라는 이름 아래 유통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소비자 선택권’ 제한에 대한 우려 목소리는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2km까지 확대할 경우 대형마트가 신규로 오픈할 수 있는 입지는 ‘북한산 자락’이나 ‘한강 마포대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마트에 가기 위해 한강을 건너고 산에 오르는 진풍경이 연출될 것”이라고 정치권의 입법안을 비판했다.

김의중 기자 zerg@

머릿수는 與, 전투력은 野

위원장에 새정치 김동철 등 강성 포진
새누리는 이정현, 대표적 친기업 행보



김동철 위원장 | 이진복 與 간사 | 홍영표 野 간사 | 이정현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해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담당하던 통상기능을 이관해 오면서 공룡 상임위로 떠올랐다.

주요 업무는 상업·무역·공업·통상,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에너지·지하자원 등을 총괄하는 역할이다.

특히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에 가장 많은 당근을 주는 동시에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다루는 등 경제민주화의 본거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야당에서 강성 의원들이 총집합하면서 경제 활성화보다는 경제민주화에 무게추가 쏠려있다.

위원 구성은 새누리당에서 16명, 새정치민주연합 13명, 정의당 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전반기 국회 때는 총원이 28명이었지만, 통상업무를 가져오면서 2명 늘었다.

이처럼 산업위는 외견상 ‘여대야소’로 형성됐지만, 실상은 다르다.

우선 위원회 운영과 사회권을 쥔 위원장을 새정치연합 김동철 의원이 맡고 있어 시작부터 여당이 불리한 구조다. 여당 간사는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이, 야당 간사는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이다.

홍 의원의 경우 대표적 친노(친노무현)계 인사로,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강성 의원으로 꼽힌다. 대우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과 참여연대 정책위원, 개혁국민정당 중앙당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 그의 이력이 성향을 대변해 준다.

최근 이명박 정부를 겨냥해 활동했던 자원외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도 그가 맡았다.

산업위에 소속된 야당 의원 중 강성 의원들로만 배치됐다는 평가를 받은 국조특위에서 활동한 인사들만 해도 홍 의원을 제외하고 5명이 더 있다. 새정치연합 노영민·박완주·부좌현·이원욱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다.

김제남 의원의 경우 비교단체인 정의당 소속이지만, 反대기업 관련 법안 처리의 선두에 서 있는 인물이다.

반면 새누리당에선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정현 의원 정도를 제외하면 강경보수 성향을 드러내는 인물이 많지 않다. 대부분이 점잔은 성격이고, 이현재 의원 등이 친기업 법안을 많이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정도다.

산업위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 보좌관은 “일하는 스타일이 여야가 완전히 다르다”며 “절대비교는 불가능하지만, 머릿수는 여당이 많아도 전투력은 야당이 훨씬 높다는 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의중 기자 zerg@



대타협 깨지자 난타전… 개혁안 무용론까지 제기

정국 강타한 공무원·국민연금 개혁

정치권이 '연금' 정국에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일 여야 대표들까지 나서서 타협을 성사시키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야당과 공무원노조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의 법률 명시 연계안을 요구하고, 이에 청와대와 정부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미궁에 빠졌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정을 놓고 여야는 물론 청와대와 정부까지 끼어들어 진실게임 양상을 보이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은퇴 전에 벌었던 평균 월수익 가운데 국민연금이 보전해 주는 비율을 말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부담에 대한 주장들



새정치 "국민연금소득대체율 50% 인상땐 보험요율 1.01%P 올려도 충분"
복지부 "향후 65년간 1702조 세금 들어… 미래 세대에 부담" 적극 반발
새누리 진통 끝에 '50% 불가'로… 합의안 반대한 청와대엔 불편한 심기

◇소득대체율 진실 공방전… "은폐 마케팅" vs "공포 마케팅"=소득대체율 진실 공방전에서 정부와 야당은 상대방의 주장이 틀렸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서로 틀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수치를 끌어오기 위해 전제를 달리하면서 나오는 차이라는 분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처음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을 들고 나오면서 보험요율을 1.01%포인트만 올려도 충분하다는 주장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경우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인 2060년을 유지하는 가운데 필요한 보험요율 인상안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40%를 유지하더라도 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경우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은 고갈되는 당해 21.4%로 오르고 2070년 22.6%, 2083년 22.9%로 오른다는 것이다.

이 같은 야당의 주장에 정부는 보험요율 2배 인상론을 꺼내들어 맞섰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보험요율을 16.69%에서 최대 18.8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행 9%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이는 야당이 전제한 2060년 기금 고갈과 달리 2100년 이후까지 기금의 유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야당과 복지부가 대립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지난 10일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향후 65년간 미래 세대가 부담할 세금 부담이 1702조원, 연평균 26조원에 이른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키웠다. 특히 내년 한 해에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야당은 1702조원은 보험요율을 현행 9%로 유지한 채 2016년부터 2080년까지 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누적해 계산한 극단적인 가정이라며 "뻥튀기 자료와 세금 폭탄론을 꺼내 국민을 협박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비판했다. 내년에 필요한 보험료 역시 기금이 2100년에도 유지되도록 보험요율을 16.69%로 올린 것을 가정한 추계치라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 참여했던 김연명 중앙대학교 교수는 "정와대의 주장은 소득대체율 50% 인상 시 추가로 지급되는 연금액을 보험료로 충당하지 않고 전액 세금으로 지원할 경우 세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추정한 금액"이라며 "소득대체율의 인상 시 들어가는 연금비용을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전제이기 때문에 세금폭탄론을 퍼트리려는 그야말로 '악의적'인 것이며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같은 대립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복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격화됐다. 야당은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공포 마케팅"이라고 질타하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야당이 "은폐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늦춰져…국민 부담 최소화가 중요=여야는 지난 2일 체결된 합의안을 놓고 또 다른 진실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실무기구 합의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여부'를 놓고 서로 상대방이 합의안을 깼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지난 4월 27일 공무원 3개 단체가 가져온 합의문에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라는 숫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야당이 갑자기 50%라는 숫자를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지난 5월 2일 합의서는 공무원연금법, 인사정책, 국민연금 관련 등 세 가지를 한 세트로 합의한 것"이라며 "어느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다른 것도 모두 무효"라고 반박했다.

문제는 이 같은 대립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치권이 '50% 명시' 공방전에 갇히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전망은 어두워지고 있다. 개혁안의 처리가 늦어질수록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공무원연금 적자보전금은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지난 2001년 599억원에서 지난해 2조5000억원으로 40배 이상 오른 것이다. 지난해까지 정부 재정에서 보전한 공무원 연금 누적 적자액은 14조7000억원에 달한다. 개혁이 지연될 경우 매일 80억원씩 보전금이 투입돼야 하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져야 한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무용론'을 주장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정부와 언론을 향해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며 "내용을 잘 모르면서 무책임하게 잘못된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주장은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물론 국민연금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쟁의 영역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 때문에 여야 모두 당초 목표가 무엇인지 되짚어 봐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실무자 기자회견에서 조원진 간사가 합의문을 보여주며 개혁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가 지난 7일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연금 개혁안' 여론은

"개혁 수준 미흡" 42%가 반대… 60세 이상은 찬성이 압도적

고통부담 신규 공무원에 쏠려있어
국민연금 보험료는 현행 유지 54%
'매월 더 내고 연금 더 받겠다' 32%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공무원연금과 이와 연계된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둘러싼 사회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조정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에선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조정'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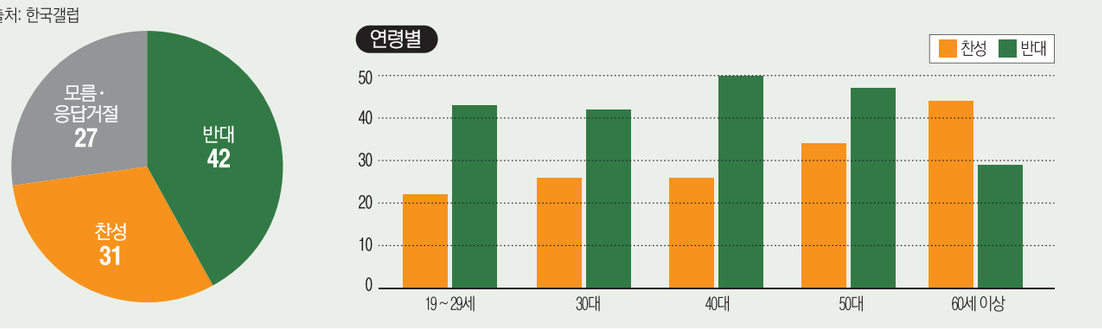
그렇다면 여론의 반응은 어떨까.

우선 여야가 마련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경우 한국갤럽이 지난 6~7일 전국 만 19세 이상 8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대가 42%로, 찬성(31%)보다 10%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났다(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4%포인트, 응답률 16%).

특히 세대별로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는 반대가 찬성보다 많게는 20%포인트 이상 높은 반면, 60세 이상에서만 찬성(44%)이 반대(29%)를 앞섰다.

여야 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론 조사 결과 단위: %(6~7일 전국 성인 남녀 807명 대상 휴대전화 조사, 신뢰수준 95%±3.4%P)

※ 출처: 한국갤럽





이유로는 공무원연금 개혁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37%로 가장 높았다. '과도'하다는 의견도 12%였다. '적정'하다는 의견은 28%에 그쳤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고통 부담이 기존 수급자보다는 재직자와 신규 공무원에게 더 쏠린다는 평가 속에 좀 더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셈이다.

이러한 여론은 한국갤럽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28~30일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5.0%)에서도 드러난다. 당시 '더 내고 덜 받는' 형태의 공무원연금제 변경에 대해 찬성은 57%로, 반대(2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세대별로 짚어보면 20대의 찬성률이 37%로 가장 낮았고, 30대 53%, 40대 60%, 50대 68%로 점차 높아졌다. 한국갤럽 측은 "극심한 취업난과 직장 안정성 추구 경향 등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매년 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대체로 재직기간이 짧은 공무원일수록 불리해 상대적으로 취업준비자가 많은 젊은층의 반감과 우려가 더 큰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월등히 높았다.

한국갤럽의 지난 6~7일 조사 결과에선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이 54%로 나왔다. '매월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는 답변은 32%였다.

앞서 MBN이 지난 4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포인트, 응답률 6.0%)에서는 반대와 찬성의 격차가 더 컸다. 보험료를 추가로 낼 용의가 없다는 응답은 53%로 절반을 넘은 반면, 추가로 낼 용의가 있다는 응답은 29.7%에 불과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합의문에 포함키로 했다가 여당에서 파기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상 국민의 절반이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대다수 국민이 국민연금 수령액이 올라가더라도 보험료 추가 납부는 부담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여론이 이렇게 흘러감에 따라 야당도 '소득대체율 50%'안을 고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4·29 재보선 참패 후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11일 리얼미터 발표에 따르면, 새누리당 지지율은 41.3%로 상승세인 반면 새정치연합 지지율은 27.0%를 기록해 문재인 대표 체제 출범 후 최대 격차로 벌어졌다.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데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점도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으로 꼽혀, 이러한 여론 추이가 향후 국민연금 문제를 둘러싼 여야 협상 과정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김미영 기자 bomnal@

피아 구분없이 독설…사면초가 빠진 '저격수'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최근 최고조로 치솟은 당 내분에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저격'하는 그의 타깃 범위에는 여당은 물론 고 김근태 상임고문, 유시민 전 통일부 장관 등 같은 야권 내 선배 정치인들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야성이 사라졌다는 야당에서 더없이 필요한 '강경파 투사'지만, 최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을 향해 '공갈 발언' 등 독설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주승용 최고위원을 겨냥한 '공갈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 작은 사진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정 최고위원(왼쪽)이 '공갈 발언'의 상대방이었던 주 최고위원(오른쪽)에게 대화를 청하고 있는 모습. 주 최고위원은 정 최고위원의 발언에 격분해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17대 초선부터 비범했던 '저격수'=충남 금산 출신인 그는 대전 보문고와 건국대 산업공학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북한통일정책학과(정치학 석사)를 졸업했다. 대 학 재학 중 학생운동에 발을 들여 전국대학생대표협의회(전대협) 활동을 했고, 1989년 미 대사관 점거 농성에 참여한 일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노 단체인 노사모 활동을 시작했다. 친노 외곽 조직이었던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초대 대표를 지내는 등 친노계 중심에서 활동했다.

지난 2004년 4월 15일 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처음 배지를 달았다.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마포을에 출마해 당선된 그는 당시 친노계 의원으로 분류됐다.

노사모 출신 17대 국회 입성… 국보법 폐지·신문법 개정 주도
文대표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묘 참배하자 '히틀러 묘역' 비유
주승용 의원에 '공갈 발언'으로 최고위원회의 출석정지 당해

이후 국회에서 정 의원의 활약이 이어졌다. 젊은 초선 정치인으로서 정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신문법 개정을 주도했고 여야 가릴 것 없이 거침없는 쓴소리를 던졌다. 정 의원은 당시 열린우리당의 개혁성향 초·재선 당선자 30여명을 아우르는 소장파 모임에 가세했다. 이는 민주당 시절 출범한 소장파 모임 '젊은 희망'이 확대·개편된 것이다.

하지만 독설로 적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정 의원은 결국 2008년 18대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나선 강용석 전 의원에게 패배했다.

그를 포함해 노 전 대통령의 탄핵에 힘입어 당선돼 '탄돌이'라 불렸던 17대 '386' 국회의원들은 대거 낙선했다. 17대 의정활동 내내 보수언론과 전쟁을 치른 정 의원은 "신문법을 대표 발의했다는 이유로 보수 언론들로부터 보복을 당해 낙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18대 총선에서 '교감 폭언' 보도와 관련해 제보자와의 재판 끝에 2009년 법원으로부터 허위 제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절치부심하던 그는 19대 총선에서 강 전 의원과의 복수전에 성공하며 재선의원이 됐다. 이 시기 동안 친노와 차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대선 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서 목소리를 내며 국정조사특위 간사를 지냈다. 세월호 참사 정국에서 단식 투쟁에 동참하는 등 주요 사안마다 강경파로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연이은 독설, '독'으로 돌아오다=피아식별 없는 정 의원의 저격은 논란의 불씨가 되곤 했다. 여야 당 대표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2월 14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자 자신의 트위터에 "진정성 결핍증을 앓고 있는 양심불량자는 현직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2·8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직후에는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자 "독일이 유대인 학살에 대해 사과했다고 해서 유대인이 학살 현장이나 히틀러 묘소에 가서 참배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4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연루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거취와 관련해 "다녀와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 의원은 "다녀와서 결정할 거면 다녀와서 만나지. 온 국민 귀 쫑긋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뭡니까? 장난칩니까?"라고 응수했다.

거침없던 그의 화술이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스스로의 입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29 재보선 패배에 대한 친노 진영의 책임론을 지적하는 최고위원인 주승용 의원을 향해 "최고위원직 사퇴도 안 하면서 공갈을 친다"고 독설을 내뱉었다. 이에 격분한 주 의원은 사퇴를 선언하면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당내 갈등은 폭발직전까지 도달했다. 김동철 의원은 12일 지도부에 정 의원의 출당조치를 요구하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결단하겠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였던 김한길 의원은 문 대표를 향해 "오로지 친노의 좌장으로 버티면서 끝까지 가볼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야권을 대표하는 주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결단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며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비판이 거세지자 정 의원은 주 의원의 지역구인 여수를 방문했지만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통화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주 의원은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였다"면서도 최고위원직 사퇴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당 안팎의 비난여론이 높아진 데 대해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정 의원의 '최고위원직 직무정지' 조치를 취할 것을 정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 같은 자숙요청에 정 의원은 직무정지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가급적 공개발언을 자제하고 침묵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윤필호 기자 beetlebum@

말말말

"기죽지 않고 최전방 공격수로서 소임을 다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11일 트위터에 주승용 최고위원 '공갈' 발언 이후 내부 비판에 직면한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에 대한 격려가 많다며.



"하…,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
박근혜 대통령,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유승민 대표 그러면 안 되죠. 시정배도 하지 않는 비겁한 일 아니에요."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법사위원장,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은 3건이었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도 자신을 찾아와 3건만이라도 처리해 달라고 사정해놓고 다른 얘기를 한다며.



"법인세에 관해서 지금부터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12일 100일을 맞아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논의를 당내에서 시작할 예정이라며.



"워낙 한심해서 할 말이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12일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연루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회대책비' '공천헌금' 등을 거론한 데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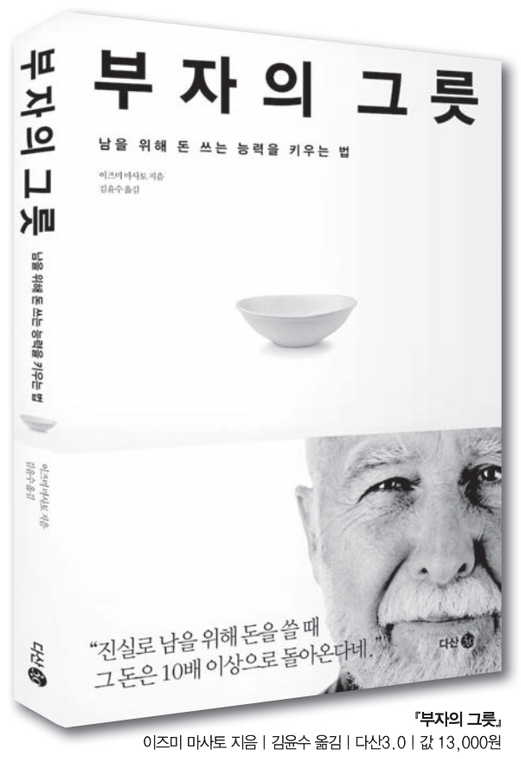
"친노(친노무현) 수장이라는 말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11일 비노(비노무현)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퇴의사를 밝히는 등 당내 계파갈등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친노의 패권 프레임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평론가처럼 행동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11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논란과 관련해 공론화를 막고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며.



"합의를 헌신짝처럼 던져 버리더라. 협상 파트너로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여야 3개 법안만 통과시키기로 한 합의를 뒤집고 추가 법안상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친노의 좌장으로 버티면서 끝까지 가 볼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야권을 대표하는 주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결단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표를 겨냥해 4·29재보선A과 당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부자의 그릇』
이즈미 마사토 지음 | 김윤수 옮김 | 다산3.0 | 값 13,000원

▶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나?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인데,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모여든다네. 1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억 원이 모이게 돼."

"나는 평생 부자가 되지 못할 줄 알았다!"

25만 명의 삶을 기적적으로 변화시킨 최고의 부자수업, 『부자의 그릇』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자신의 그릇만큼만 담는다

"나는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걸까?" 월급이 적어서? 재테크를 못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이런 기술적이거나 방법론적인 문제로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질문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질문을 바꿔보면 보다 근본적인 돈의 본질을 볼 수 있다. 부자가 되려 하기 이전에 돈을 다루는 능력. 즉,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누군가 아무리 많은 돈과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자신의 그릇만큼만 담을 수 있다.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는 것과 같다.

『부자의 그릇』(다산3.0)의 저자 이즈미 마사토는 일생을 '돈의 교양과 본질'을 전파하는 데 바쳐온 일본 최고의 경제금융교육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돈의 본질과 인간관계에 관한 명쾌한 통찰을 한 권에 담아냈다. 이 책은 그의 실제 사업 실패담을 바탕으로 집필한 교양 소설로, 한때 12억 연매출의 주먹밥 가게 오너에서 3억 원의 빚을 지고 나락으로 떨어진 한 사업가가, 우연히 만난 부자 노인과 7시간 동안 나눈 돈과 인생의 비밀에 관한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젊었을 땐 돈을 버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돈이 와서 담기는 것이더라'며 이야기를 시작한 부자는 부자의 1, 2단계, 즉 남을 위해 돈을 벌거나, 나를 위해 돈을 버는 단계를 뛰어넘어 3단계인 '남이 나를 위해 돈을 벌어주는 단계'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7시간 동안 나눈 노인과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선택, 경험, 신용, 리스크 등 부자들이 돈에 대해 생각하는 그릇의 크기를 깨우치고,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돈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실제로 일본에도 이러한 '돈의 본질과 관점'에 대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문화가 없었다. 이러한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저자는 파이낸셜 아카데미의 부자수업을 통해 25만 명이 넘는 수강생들의 돈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저자는 늘 말한다. "돈이 만능은 아니지만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면 인생도 바꿀 수 있다"라고. '나는 언제쯤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평생 부자가 될 순 없을 거 같아'라며 걱정과 고민에만 빠져 있다면, 『부자의 그릇』을 통해 돈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뜨고,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워보길 바란다.

문의 070-7606-7445

글로벌 채권금리 요동 국내 채권시장도 들썩

유로화 강세·유가 상승에 독일 국채 매도세 확대
"변동성 높아질 듯…신규 채권펀드 투자 신중해야"

최근 주요국 채권금리가 급등하면서 국내 채권시장도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14일 하나대투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지난 12일 미국 국채 10년 금리는 13bp 급등한 2.28%, 독일 10년 금리는 7bp 오른 0.62%를 기록했다. 그리스가 IMF의 채무를 상환했다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선 하나대투증권 채권분석 연구원은 "최근 유로화 강세에 따른 유로 캐리 트레이드의 일부 청산과 유가 상승에 따른 디플레 우려 감소 등으로 독일 국채에 대한 매도세가 확대됐다"며 "글로벌 금리가 재상승 조짐을 보이는 만큼, 국내 채권시장도 당분간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채권 금리도 선진국 금리 상승에 발맞춰 지난달 중순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2일 마감가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942%로 전일 대비 6.6bp오르고,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3.7bp 상승한 2.597%을 기록했다. 이는 올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국내 채권시장도 주요국 채권시장의 급등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당분간 신중히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러스 코에스테리치 블랙록 글로벌 최고투자전략가는 "최근 채권금리 상승은 변동성을 높였고, 이는 모멘텀에 기반한 주식 종목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글로벌 흐름 측면에선 고용 지표 혼조세로 인해 채권 매도세는 멈췄으나 투자자 측면에서 투자 변동성은 당분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채권시장 혼조세로 그동안 저금리 혜택을 받은 채권형 펀드의 조정도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채권형 펀드 전체 평균 유형의 지난 1개월 기준 수익률은 -0.42%에 달한다(기준일:2015.5.12).

허은한 NH투자증권 채권담당 연구원은 "근래 유럽 위주로 금리 상승이 두드러지면서 국내 채권시장도 영향을 받는 모습이 뚜렷한데, 아직 글로벌 채권금리 상승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값 하락 여지가 남아 있는 모습"이라며 "현재 신규 채권펀드 투자를 고려하는 투자자들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밖에 펀드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금리 변동성이 덜 노출된 채권혼합형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짜 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김경아 기자 kakim@

"獨 국채금리 더 오른다… 당장 팔아라"

신한금투 곽현수 연구원 1%포인트 추가 상승 전망

신한금융투자는 14일 독일 국채금리의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곽현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독일 국채금리는 과도하게 하락해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과거 사례를 참고하면 1% 포인트의 추가적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독일 국채 가격 상승(국채금리 하락)은 수급적인 요인이 크다. 독일은 유로존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이자 경상수지의 대규모 흑자로 총저축이 빠르게 증가했다. 여기에 유럽중앙은행(ECB)이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독일 국채 수요가 늘어난 것.

곽 연구원은 "일본 국채금리는 2002년 이후 2003년 상반기까지 16개월 동안 하락한 뒤 2003년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며 하락분을 모두 되돌렸다"며 "독일 국채도 비슷한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 금리의 경우 주식 수익률과 역의 관계에 있는 패턴을 보여 왔다"며 "9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인상 후 주식시장은 풍부한 유동성 유입으로 길게는 1~2년 돈잔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황윤주 기자 hyj@

내츄럴엔도텍 나간 자리 코미팜·바이로메드 차지

코스닥 시총 10위권 진입

'가짜 백수오' 논란으로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밀려난 내츄럴엔도텍 자리를 바이오주들이 차지하고 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닥 시총 10위권에 코미팜과 바이로메드가 이름을 새로 올렸다.

12일 종가 기준으로 코미팜은 시가총액 1조8133억원으로 8위에 올라섰고, 바이로메드는 1조6725억원으로 9위에 자리했다.

코미팜은 의약품 제조업체로, 동물용 백신과 소독제(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부루셀라 등)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 항암제와 암성통증 치료제인 코미녹스(KML001)를 개발하며 인체의 약품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중이다.

바이로메드도 바이오의약품, 건강기능제품 등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바이로메드가 코스닥 시총 상위권에 오른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 'VM202-DPN'이 미국 FDA 임상 3상 시험 승인을 받자 같은 기간 주가는 7만4200원에서 11만7800원으로 58.76% 상승했다.

배기달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바이오 업체가 많이 포함된 코스닥 제약지수의 올해 수익률은 63.3%(코스닥 지수 수익률 26.9%)로 높다"며 "급등에 따른 조정은 있으나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승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바이오주가 수익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황윤주 기자 hyj@

거래소, 中서 코스닥 상장 외국기업 현지IR

내일까지… 4개사 참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외국기업 투자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2015년 코스닥 상장 외국기업 현지IR'를 15일까지 개최한다.

지난 12일 개막해 15일까지 중국 푸젠성에서 열리는 이번 현지IR에는 완리, 에스앤씨엔진그룹, 차이나그레이트, 씨케이에이치 등 코스닥 상장 중국기업 4개사가 참가한다. 소그룹미팅, 기업설명회, CEO 인터뷰, 생산설비 탐방 등이 진행된다.

거래소는 지리·언어의 문제로 외국기업에 관한 투자정보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8년부터 외국기업 현지IR 및 합동IR를 개최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IR로 외국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상장 외국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NH투자증권 글로벌 종목형 ELS 판매



NH투자증권은 15일까지 글로벌 우량종목에 투자하는 글로벌 종목형 ELS 등 총 6종을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글로벌 종목형 ELS는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높고 우량한 기업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최근 해외 주식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ELS 10867호는 미국 시가총액 1위인 애플과 한국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한다. NH투자증권은 글로벌 종목형 ELS 외에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인 지수형 ELS와 세전 연 13.50%의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ELS 10866호까지 총 6종을 15일 오후 1시까지 모집한다.

코스닥 기업 3곳중 1곳 대주주 지분담보 대출

평균 보유주식 절반 담보로 엠케이전자 회장 100% 설정

코스닥 100대 기업 대주주 일가 주식담보대출 현황 (단위: 십억원)

회사명	이름	보유 주식가치	담보제공 주식가치	지분율 (%)	담보 비율(%)
엠케이전자	차정훈	5.8	5.8	3.9	100.0
엠에스오토텍	이태규, 이양섭	32.1	31.9	46.8	99.3
엔브이에이치 코리아	구본주	2.6	2.3	1.9	89.3
캠시스	권영천	9.2	7.5	11.5	81.9
리드코프	서흥민	47.8	38.8	11.9	81.3
경창산업	손일호, 손기창, 손덕수, 박의경	36.4	26.6	26.8	73.2
비에이치아이	이가현, 이근흥	3.9	2.6	4.7	66.9
합계		1702.2	800.2	16.9	47.0

※ 출처: CEO스코어

코스닥 주요 기업 3곳 중 1곳에서 대주주 지분이 절반가량 담보로 발이 묶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 집계에 따르면 매출 기준 코스닥 100대 기업 중 대기업 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84개 기업에서 대주주 일가가 보유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권 등에 담보 및 질권으로 설정한 경우가 27곳(32.1%)에 달했다.

주식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이들 기업의 대주주 일가는 모두 47명으로 주식평가 총액은 1조7020억원에 달한다. 이 중 8000억원(47.0%)이 담보로 제공됐다. 대주주 일가 한 명이 평균 362억원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절반 가까운 170억원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날 기준 주식담보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엠케이전자다. 차정훈 엠케이전자 회장은 보유 중이던 회사 지분 3.9%(평가액 58억원)를 모두 담보로 제공해 주식담보비율이 100%로 나타났다. 차 회장은 MK전자를 계열사로 둔 오션비홀딩스의 최대주주다.

이어 엠에스오토텍 대주주 일가의 주식담보비율이 99.3%로 높았다. 이 회사 지분 46.8%를 보유한 창업자 이양섭 회장과 2세 이태규 대표의 주식 320억원어치가 담보 및 질권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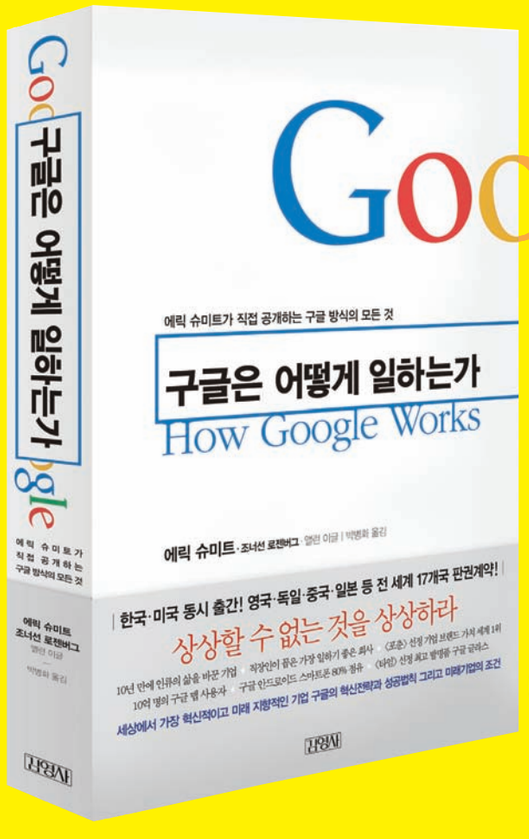
이 밖에도 대주주의 주식담보비율이 50%를 넘는 기업으로 캠시스(81.9%), 리드코프(81.3%), 경창산업(73.2%), 비에이치아이(66.9%), 차이나하오란(64.6%), 서희건설(62.8%), 이랜텍(62.1%), 다우데이타(57.2%), 성도이엔지(57%), 유진기업(55.5%), 동화기업(54.9%)이 있다.

전문가들은 주식담보대출이 대주주 일가의 재산권만 담보로 설정하고 의결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경영권 행사에 지장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주가가 담보권 설정 아래로 폭락할 경우 금융권의 반대매매(대여금 회수)로 주가가 하락해 소액 주주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정다운 기자 gamja@

당신과 조직이 찾는 가장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해법!

김영사

TEL:031)955-3200 www.gimmyoung.com 책은 서점에 있습니다.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

올 가을 전 세계에 구글학습 열풍을 불러온 바로 그 책!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 한국·미국 동시 출간! 17개국 판권계약!



구글은 어떻게 일하는가

구글 회장 에릭 슈미트가 최초로 직접 공개하는 구글의 모든 것 10년 만에 인류의 삶을 바꾼 기업. 직장인이 꼽은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 〈포춘〉 선정 기업 브랜드 가치 세계 1위. 최고의 비즈니스 리더 에릭 슈미트가 최초로 공개하는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기업 구글의 혁신전략과 성공법칙 그리고 미래기업의 조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라!" 지금 구글이 실행하는 방식, 추구하는 전략, 꿈꾸는 비전은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찾고 있는 바로 그 대안이다!

| **에릭 슈미트** | 구글 회장.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구글 CEO 역임. 현재 CEO와 고위 경영진에게 사업과 정책 자문을 해주고 있으며, 대외 협력관계 구축, 기업 간 거래관계 등 외부 문제를 책임지고 있다. | **조너선 로젠버그** | 전 수석 부사장. 현재 구글 CEO 래리 페이지의 고문. | **앨런 이글** | 커뮤니케이션 본부장. 경영진 위한 연설문 작성과 소통활동 지도 중.

How Google Works **에릭 슈미트·조너선 로젠버그**·앨런 이글 | 박병화 옮김 | 15,800원



Stock premium
www.etoday.co.kr/stockpremium

에이디테크놀로지, 삼성發 IoT 매출 날개



작년 102억·137%↑… 삼성전기 ESL태그 부품 공급
시장규모 2017년 5조 급성장 전망 매출 더 늘어날듯

에이디테크놀로지의 IoT(사물인터넷)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두배 넘게 성장했고, 올해도 삼성발 수혜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14일 에이디테크놀로지에 따르면 이 회사의 사물인터넷 관련 매출은 2013년 43억2300만원에서 지난해 102억8500만원으로 137% 증가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사물인터넷 비중도 관련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2년 2.65%에서 2013년 10.19%, 작년에는 15.49%로 늘었다.

올 1분기에는 ESL 태그IC 후속 버전 출시를 앞두고 일시적인 수주 공백 탓에 매출이 다소 줄었지만, 올해 전체로는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는 ESL 태그IC 후속버전 적용에 따른 양산 주문 증가로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디테크놀로지는 삼성전기가 신사업으로 밀고 있는 ESL태그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SL은 유통 매장 상품의 가격과 원산지, 재고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수기로 종이에 가격 정보를 적지 않고 일괄 통제할 수 있어 유통매장에서의 비용절감 효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현재 국내엔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일부 매장에 삼성전기의 ESL이 설치됐다. 세계 시장에는 영국 대형 유통업체 테스코 매장 400여곳과 수많은 리테일 업체에 삼성전기의 ESL이 운영되고 있다.

업계는 ESL 시장 규모가 지난해 1조1000억원서 2017년 5조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전기는 올해 ESL 매출을 전년(1975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4518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이디테크놀로지는 사물인터넷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와 모바일사업에서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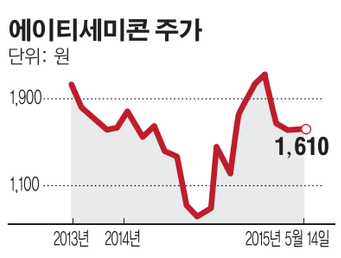
회사 관계자는 "디스플레이의 경우, 통합 인터페이스IC 후속 버전 적용에 따른 양산 주문 증가 및 고객 다변화를 통해 매출 성장을 전망한다"며 "모바일은 OIS 적용 및 양산 주문 증가에 따른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보증권 김갑호 연구원은 "OIS 컨트롤러는 대부분 해외 독점기업 수입제품으로 고객사의 국산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제품 채택은 시기의 문제"라며 "매년 회사의 연초 예상치 대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 이상의 실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에이티세미콘, GaN 전력반도체 패키징 기술 개발

〈갈륨나이트라이드〉

전력반도체 3대역·X대역 개발
전력밀도 최대10배·효율 30% ↑



에이티세미콘이 이동 통신 분야에서 확장 추세에 있는 GaN 전력반도체의 패키징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전문기업 에이티세미콘은 독자적인 매칭 기술과 패키지 기술을 적용해 열 방출이 우수하고 소자 효율과 성능을 향상 시킨 갈륨나이트라이드(GaN) 전력 반도체 S대역(3GHz)과 X대역(9GHz) 패키지를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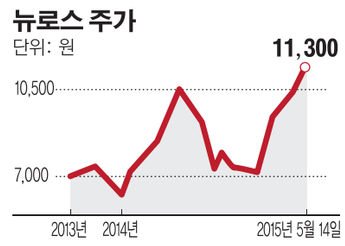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공동연구로 개발 된 이번 패키징 기술은 기존 반도체인 실리콘(Si)이나 갈륨비소(GaAs) 대신 갈륨나이트라이드(GaN)를 사용해 전력밀도를 최대 10배, 전력 효율을 최대 30% 이상 향상시켰다. 또한 GaN 전력반도체의 칩 본딩 시 열전도성이 높은 특수 소재를 사용해 패키지의 방열 기능을 높여 소자의 효율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회사 측은 "현재 이동 통신용 GaN RF(고주파) 전력 소자 패키지와 증폭기 모듈 등도 공동 개발 중에 있다"며 "향후 이동 통신 분야에도 GaN RF 전력 소자 패키지나 증폭기 모듈 등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력증폭기란 미약한 입력신호를 크게 증폭시켜 안테나로 보내 전파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장치이다. GaN 트랜지스터 증폭기는 이동통신 중계기 및 단말기, 위성에 탑재돼 전파를 송출하는 핵심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X대역 전력 증폭기는 선박 및 군수용 단거리 레이더 증폭기로 사용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뉴로스, 국내 첫 무인기 엔진 개발
정부 차원 국산화 대체작업 박차

터보제트·터보샤프트 엔진
개발 완료 후 상품화 나서
수요 많아 수출 전망 밝아



뉴로스가 국내 최초로 무인기 엔진을 개발해 정부 차원 프로젝트를 통해 국산화 대체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뉴로스 관계자는 "국내 최초로 무인기 엔진 개발에 성공했다"며 "정부 차원 프로젝트를 통해 국산화 대체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무인기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은 물론 중국과 세계 각국이 무인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주식시장에서도 퍼스텍, 기산텔레콤, 아스트 등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현재로서는 퍼스텍 자회사 유콘시스템이 무인기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을 뿐 다른 상장사의 경우 실제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다.

최근 무인기 시장 경쟁을 위해 각국 정부와 관련 기업들은 현재 독점적인 무인기 엔진을 자체 개발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뉴로스는 현재 무인기용 터보제트 엔진과 터보샤프트 엔진, 무인항공기용 환경제어장치를 개발했다.

우선 무인기용 터보제트 엔진은 여러 형태의 소형 무인항공기(UAV : Unmaned Aerial Vehicle)용 추진기관으로 사용 가능한 터보제트 엔진으로 시제품을 개발 완료후 상품화를 위한 개발을 진행 중이다.

무인기용 터보샤프트 엔진의 경우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정찰용 무인항공기의 추진기관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무인기용 터보샤프트 엔진 시제품을 100마력 이상으로 용량을 증가시켜 상용화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무인기의 개발 추세가 대형화 되어감에 따라 엔진 출력의 증가가 필수다. 뉴로스가 개발한 엔진은 다른 엔진방식에 비해 성능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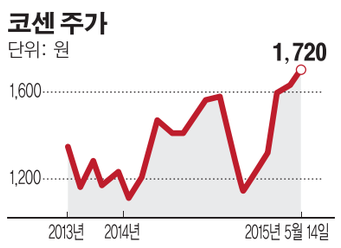
터보샤프트 엔진은 정찰용 무인항공기의 추진기관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핵심 기술을 활용하면 항공기의 지상용 비상 동력계통 또는 대형 엔진 시동장치 개발도 가능하다.

이밖에 무인항공기용 환경제어장치의 주요 구성품 및 전체 시스템 개발을 통해 향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무인항공기 사업 분야 진출 기반을 확보했다.

뉴로스는 사업보고서를 통해서도 "무인항공기 기술은 전략기술이기 때문에 선진국으로부터 기술도입이 제한되어 국산개발이 필수적"이라며 "각국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출 전망이 밝은 상황"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설경진 기자 skj78@

코센, 8년만에 흑자전환

1분기 영업이익 2억4400만원



강관 및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코센이 8년만에 1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올해 실적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코센은 1분기 영업이익 2억44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흑자전환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특히 1분기에는 업계 특성상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실적전망에 있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

같은 기간 매출은 원재료 가격 인하로 인한 판매단가 약세로 11.21% 감소한 125억 9300만원을 기록하였다.

회사 관계자는 "강관업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와 비용 절감 등으로 8년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하게 되었다" 며 "향후 주 원재료인 니켈 가격 회복과 더불어 신재생 에너지사업인 태양광 및 풍력발전 사업부분에서의 매출 상승으로 계속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코센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라남도 고흥군에 추진하는 40MW 규모의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획득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 발전소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내 대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진원생명, 美 국방부 지원 에볼라 백신 1임상 착수

성공땐 로열티 수입도 챙겨

진원생명과학이 미국 국방부 지원 에볼라 퇴치 프로젝트 1임상에 착수했다.

에볼라 퇴치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진원생명과학은 제품 생산판매에 따른 이익뿐만 아니라 제품 판매에 대한 로열티 수입까지 얻게 된다.

진원생명과학 관계자는 14일 "당사와 자회사인 VGXI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관계사인 이노비오가 주관하는 미국 국방부 지원 에볼라 퇴치 프로젝트 중 첫 단계인 에볼라 DNA백신의 1상임상 연구가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번 에볼라 퇴치 프로젝트의 주관기관인 이노비오는 이미 올해 초에 에볼라 DNA백신의 임상 승인 신청을 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임상 승인을 받았다.

최근에는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펜실베니아 대학 임상센터 등의 임상윤리위원회로부터 임상연구 개시 승인을 받았다. 향후 에볼라 DNA백신의 안전성, 내약성, 예방 면역반응 및 항바이러스 효과를 평가하게 된다.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인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지원하는 에볼라 퇴치 프로젝트는 이노비오, 다국적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인 MedImmune, 펜실베니아 대학(Upenn), 에모리(Emory) 대학, 밴더빌트(Vanderbilt) 대학 등이 참여한다.

진원생명과학은 미국 소재 글로벌 임상개발팀을 운영해 전체 임상연구의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진원생명과학의 자회사로, 플라스미드 전문 국제규격 임상시료 생산 위탁시설인 VGXI는 임상시료의 대량생산을 담당하게 된다.

박영근 진원생명과학 사장은 "우리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에볼라 퇴치 프로젝트는 에볼라를 근원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세계 유수 연구기관들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미국 국방부가 지원하고 있어 신속하고 성공적인 제품 개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볼라 퇴치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회사는 제품 생산판매에 따른 이익뿐만 아니라 제품 판매에 대한 로열티 수입까지 얻게 돼 수익성 향상과 함께 기업 가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파티게임즈, 베트남 진출

현지 인터넷 기업 VNG와 MOU

파티게임즈는 베트남 최대 인터넷 기업 VNG와 자사 대표 카페 경영 SNG '아이러브커피'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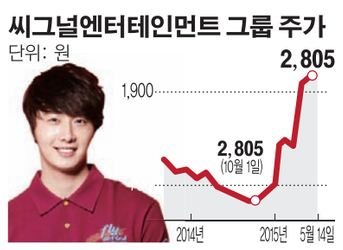
VNG는 2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국민 모바일 메신저 '잘로(Zalo)'를 운영하는 베트남 1위 인터넷 기업으로 현재 전자상거래, 온라인 광고 서비스와 함께 게임 퍼블리싱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베트남 모바일 게임 시장은 동남아 국가 중 가장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평가 받고 있다. 스마트폰과 무선통신 환경의 보급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모바일 게임 시장은 매년 2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모바일 게임 매출액 역시 전년대비 2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베트남 모바일 게임 시장에는 가벼운 캐주얼 및 소셜 장르가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아이러브커피'의 베트남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정유현 기자 yhssoo@

씨그널엔터, 한류스타 앞세워 中 미용전시회 공략

화장품 자회사 스킨애니버셔리 첫선
'CBE 2015' 정일우 모델 스타마케팅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이 화장품 자회사 스킨애니버셔리와 한류스타를 내세워 중국에서 첫 선을 보인다.

14일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에 따르면 이 회사는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는 'CBE 2015(China Beauty Expo, 상해미용전시회)'에 참가한다.

사상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CBE 2015'에는 중국 상해 푸동신국제전람센터 내 15만㎡(약 4만5375평) 공간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전 세계 26개국에서 온 2000여 화장품·뷰티 관련 회사가 7000개에 이르는 부스를 개설할 예정이며 국내업체도 역대 최대 규모인 174개업체가 400개 부스를 연다.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과 스킨애니버셔리도 6개 부스를 열고 함께 참가하는 것.

특히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은 이번 'CBE 2015'의 첫 스타마케팅으로 한류스타 정일우를 선택했다.

지난 2월부터 중국의 안후이위성 TV에서 '해를 품은 달'을 방영하기 시작했다. 해품달은 김수현과 정일우가 출연한 작품으로 현지 인지도와 선호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한류스타 정일우는 19일 'CBE 2015'오픈과 시간을 맞춰서 스킨애니버셔리의 브랜드 부스를 방문해서 중국팬들과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관계자는 "이번 행사 공동참가를 시작으로 다양한 마케팅을 선보이려 한다"며 "이번 행사 기간 중에는 중국의 메이저 유통업체 들과도 스킨애니버셔리의 중국 진출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막 전날인 18일에는 중국 전역의 유력 바이어 1000명이 모이는 '제5회 중국 화장품 소매 회담'이 개최되는 일정으로 스킨애니버셔리의 중국진출에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설경진 기자 skj78@

에스에프씨, 1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31%↓

9억원… 전분기보단 6% 올라
中 정부 태양광 지원에 실적 개선

태양광 모듈용 백시트·필름 제품 전문기업 에스에프씨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153억7000만원, 영업이익은 9억1000만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 늘고, 31%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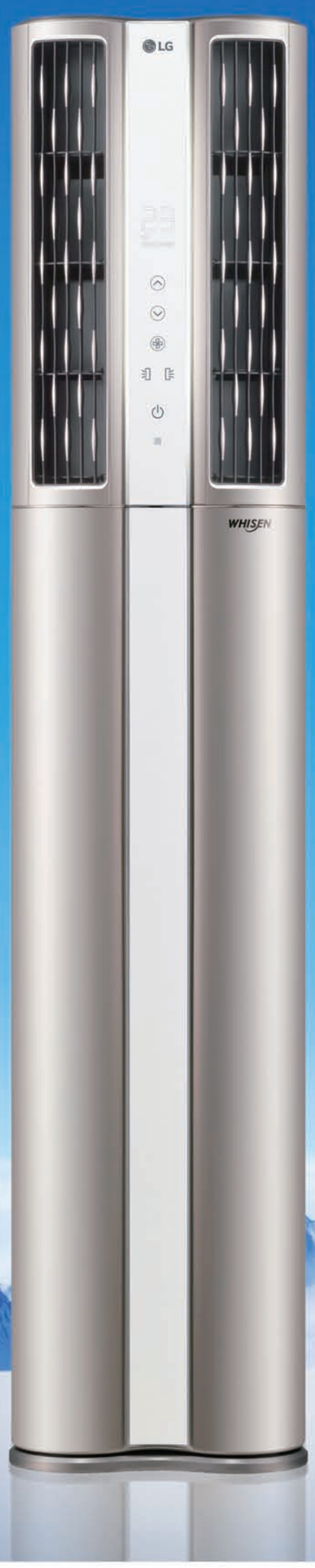
반면,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3%, 6% 상승했는데, 최근 중국 태양광 시장의 자본 흐름이 악화되면서 에스에프씨는 지난해 2분기 적자를 기록하는 등 고전하기도 했으나 한 분기 만에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의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점차 실적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박종일 에스에프씨 부사장은 "중국 태양광 시장은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업체들의 자금난으로 장기 여신 거래 요구가 많다"면서 "이에 에스에프씨는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외상거래를 기피하여 대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시작으로 작년 2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상대적으로 사업 건전성이 뛰어난 국내 업체들의 선전으로 국내 시장이 가파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며 "기존 국내 거래처들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인도나 일본 등 비(非)중국 지역과의 거래도 강화해 실적을 턴어라운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LG전자

2015년은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에어컨
이제는 듀얼에어컨 시대



두 개의 에어컨으로 강하게



강력함을 원할 땐 두 개의 에어컨으로
| 듀얼 파워 냉방 |

하나의 에어컨으로 절전



절전이 필요할 땐 하나의 에어컨으로
| 듀얼 절전 냉방 |

두 개의 에어컨을 따로 따로



원하는 바람이 다를 땐 두 개의 에어컨을 따로 따로
| 듀얼 맞춤 냉방 |

한 개의 에어컨이 가진 한계를 넘기 위해 휘센이 시작합니다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에어컨, 마침내 듀얼에어컨 시대를 열었습니다

LG WHISEN 듀얼에어컨